

성무 星武

2022. October Vol. 51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

“CUSTOMER FIRST”

항공사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받은
 국내 유일의 항공사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만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객 경험과 가치 창출” 경영철학
 국적 항공사로서 우수한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등 최고의 CCM
 성과를 이룬 기업으로서 **이러한 점
 토대 ‘서비스 개선위원회’ 정기
 개최** 고객 중심 서비스 경영의 강화를 위해 발족
 발족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말씀(VOC) 체계
 및 고객 설문 조사(Net Promoter Score) 실시**
 VOC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석,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개선 활동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VOC 관련 통계는 고객 서비스
 개선 성과를 반영하여, 고객 서비스 개선
 실적에 반영됩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기획**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과 가치 창출 경영철학
 국적 항공사로서 우수한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등 최고의 CCM
 성과를 이룬 기업으로서 이러한 점 토대
 토대 ‘서비스 개선위원회’ 정기 개최
 고객 중심 서비스 경영의 강화를 위해 발족
 발족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C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여 분석,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개선 활동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VOC
 관련 통계는 고객 서비스 개선 성과를
 반영하여, 고객 서비스 개선 실적에
 반영됩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기획**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기획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기획**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기획**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지를
 심사하는 법정인증제도입니다



From 2002 to 2022



대한민국 항공 전력의 출발점이 된 T-50의 초도비행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으로 진입하게 한 T-50의 초도비행에서 첨단 항공산업을 견인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초도비행에 이르기까지 KAI의 역사는 가슴 벅찬 도전의 연속입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www.koreaaero.com | TEL 055-851-1000 | FAX 055-851-1004



대한민국의 **NEW SPACE**를 이끌다! (주)한화

지난 40여년간 자주국방의 일익을 담당해온 (주)한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전역후 자산 관리, 어디에 저축하지 ?

마음 편한
투자는
없을까?

안전하게
믿고 맡길 곳
없나?



예비역도 가입 가능!
회원 콘도/제휴 복지혜택 그대로!

쏟아지고 확실한 선택 ! 행복 PLUS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4.65%

(세전, 확정금리, 1년 만기지급식 기준)

백만원부터 가입 가능
6개월, 1년, 2년 선택



안전한 재테크

군인공제회 16년 연속
최우수 신용등급 유지

기업신용평가등급
E-1(AAA)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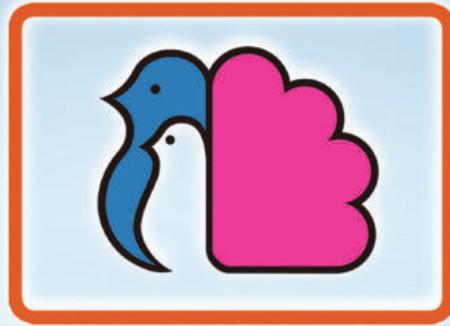
3.60%

(연복리, 세전, 변동금리)

월 5만원부터 가입 가능
3년, 5년, 7년, 10년 선택

* 2022. 10. 19. 기준, 만기 후 재가입 시 공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과세 종합저축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전 금융기관 포함)

* 2022. 8. 25. 기준 : 이자율 연 3.60% (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 가입일·지급일·지급회차별 원리금 차이 및 저율과세 적용 시
이자소득세 공제로 실질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 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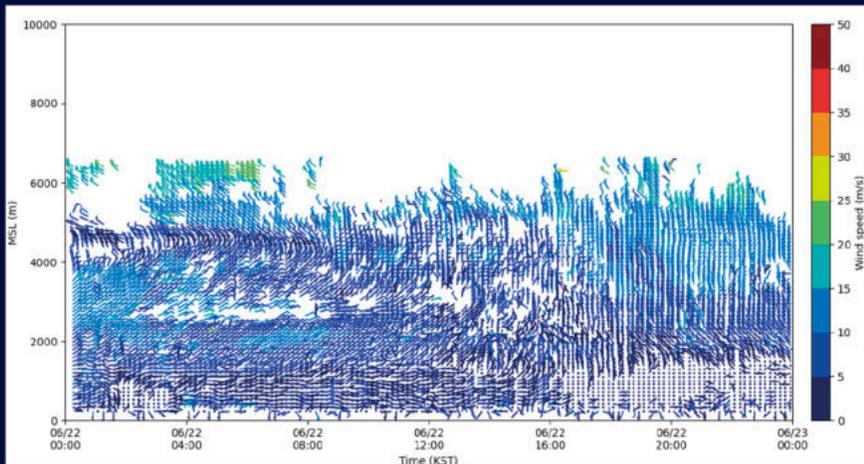
부영그룹

이제는 국산 윈드프로파일러 레이더로 항공작전을 계획하고 운용하세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직바람 관측용 레이더

10km 상공까지의 정확한 풍향 및 풍속을 실시간 관측
256 배열 AESA 구조로 높은 가동률
우수한 유지보수 편의성 및 OPEX 비용 최소화
유연한 신호처리, 품질관리를 통한 정확하고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

- ▶ 부처연계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17~21')
- ▶ 국가 태풍센터에서 검증 운용 (2021')
- ▶ 청주 공군 기지에 설치 예정 (2022 신속 시범 구매사업)



2021년 6월 22일
제주도 국가태풍센터 상공
관측 예시

Contents

2022 October Vol. 51

10 인사말 12 총동창회·연구소 소식

18 모교소식 22 공군소식

30 성무논단

성무논단·제언

KF-21: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원동력 / 정광선(32기)

세계 주요국의 국제우주협력 동향과 시사점 / 서명교(46기)

국방우주조직 발전방향 제언 / 이동규(35기)

T-50 파생형과 발전방향 / 전영훈(18기)

공군박물관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 강창부(41기)

특별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공군의 혁신 노력과 향후 과제 / 정경두(30기)

軍人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마치며 / 원인철(32기)

시사 포커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 홍성표(28기)

미디어 환경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에 미치는 영향 / 김철우(29기)

94 기획특집

Space Challenge

공군의 항공우주군 비전 정립 / 김광진(37기)

국방우주력 발전방향: 공군의 능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 최성환(42기)

공군 항공우주 분야 학술회의, 포럼 등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 이선호(61기)

공군의 발자취

공군 역사기념물 / 편집실

128 성무대 추억 리뷰

[모교탐방기] 요즘 모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 이두희(29기)

[보라매공원 회고]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 이준희(31기)

[타임머신] 공사신문으로 본 생도생활 변천 / 편집실

149 그때는 그랬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 남웅우(29기)

용문산 대대장, '청와대 경호실'에 불려간 사연 / 김국창(7기)

통행금지와 메추리 / 이경달(29기)

기이한 인연 / 송기준(25기)

졸다가 고향이 바뀐 생도 / 이학주(30기)

니가 거기서 왜 나와 / 이용곤(30기)

자취방에서 쫓겨난 사연 / 김오현(30기)

164 동문기고

Diamond Forever

임관 50주년 단상 / 이달호(19기)

디자로그 임관40주년 맞이 / 김광희(30기)

하늘, 바람 그리고 비행기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 이윤우(6기)

세한도 앞의 사내 / 강임구(24기)

바람은 길동무 / 이영하(22기)

비호(飛虎) / 김상훈(33기)

어쩌다 공군

보라매의 꿈 / 최문강(11기)

T-50 회고(回顧)와 감사(感謝) / 박병구(28기)

어쩌다 한의사 2 / 차종환(29기)

기후위기 시대의 공군 / 이일수(29기)

따르릉! 사무총장입니다! / 이경달(29기)

공짜에 익숙한 나의 모습 / 김오현(30기)

성무대를 떠난 보라매 / 김나우(70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박영후(70기)

인생 2막 3장

상담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문정주(32기)

은퇴지식인으로서의 소명 / 박성보(26기)

미생(未生) / 이형걸(32기)

전원생활 / 한광성(20기)

베트남 생도 후원인이 되다 / 최정근(29기)

[우정기고] 나의 생도생활 / 변성금(28기 김학수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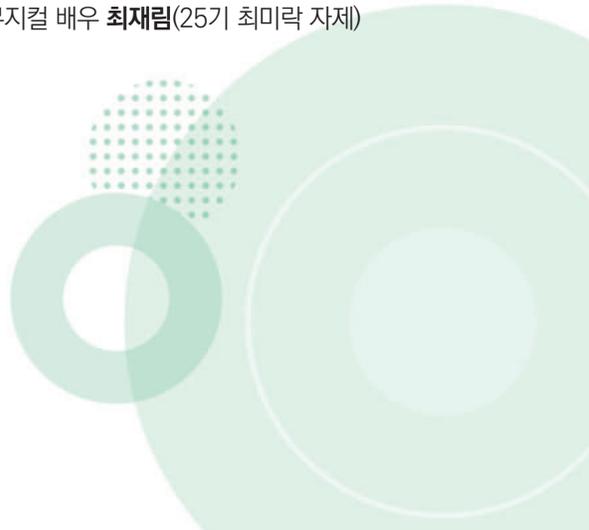
[특별 인터뷰] 공군스타가 낳은 뮤지컬계의 스타 / 뮤지컬 배우 최재림(25기 최미락 자제)

232 동기회 동정

238 Now 지금 모교에서는

240 총동창회·연구소 알림

247 편집후기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치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키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사십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 | | | | | | | | | | |
|---|---|---|---|---|---|---|---|---|---|---|
| 冠 | 率 | 信 | 沈 | 公 | 信 | 帶 | 誠 | 清 | 容 | 空 |
| 威 | 先 | 常 | 着 | 平 | 義 | 任 | 心 | 廉 | 儀 | 士 |
| 兼 | 垂 | 必 | 果 | 無 | 一 | 完 | 服 | 潔 | 端 | 十 |
| 備 | 範 | 罰 | 敢 | 私 | 貫 | 遂 | 從 | 白 | 正 | 訓 |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하 |
| 라 | 라 | 라 | 라 | 라 | 라 | 라 | 라 | 라 | 라 | 라 |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원 여러분!



제29차연도 총동창회 운영이 어느덧 전반기를 훌쩍 지나 후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동창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29차연도 총동창회 운영 초기에 이사회를 통해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많은 동문들께서 마련해 주신 운영기금으로 여러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제29차연도 '성무'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무'誌 발행은 총동창회 운영의 중요한 성과물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기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동문과 기고자분들 그리고 원고모집 및 편집을 위해 봉사해 주신 제29차연도 편집위원들의 노고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신 회원분들의 참여와 성원의 덕택때문이었음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 지면을 통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권의 '성무'誌가 공군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문과 회원 관계자 여러분 간에 따뜻한 소식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 제28차연도 총동창회에서는 동문 자녀들에게 성무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고, 장학사업과 안보연구 활동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총동창회 산하에 '(사)성무안보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29차연도 총동창회는 제28차연도 임원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립된 '(사)성무안보연구소'가 법인설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28차연도 총동창회로부터 승계받은 기금과 지속해서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의 성금으로 재원 유지 및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동문 11가족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에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완성하였고, 연구과제를 최대한

발굴하여 과제연구를 진행하도록 노력 중이며, 연말에는 최대한 의미 있고 충실한 안보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소가 설립 초기 단계이므로, 기금조성이나 연구과제 수행 등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실정이나, 향후 연구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무’誌 발행의 업무 추진에서 보았듯이 연구소의 발전도 어느 일부 소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문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인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 조성 및 확보, 꾸준한 연구활동과 과제수행, 내실 있는 세미나 개최 등 연구소의 모든 활동에 많은 동문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에 소정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제6기 동기회 및 제24기 동기회 그리고 개별 기부를 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소 업무를 맡아 봉사해 주고 계시는 조보근 연구소장, 임종춘 및 조승균 책임연구위원 동문에게 각별한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께서 납부해 주시는 평생회비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2022년 금년 3월에 공사를 졸업한 제70기 동문이 졸업과 동시에 평생회비를 전원완납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군사관학교 모교와 제70기 기생 동문에게 감사드리며, 평생회비는 장기적인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전액 총동창회의 기본재원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제70기처럼 졸업과 동시에 전원완납하는 멋진 전통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문님들의 건안 하십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제29차연도 총동창회장 박재복

총동창회·연구소 소식

공군본부 예방 (2022. 1. 21.)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박인호 참모총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 발생한 F-5조종사 순직과 F-35 동체 착륙 관련하여 조종사와 지상조치 요원에 대한 포상과 사기양양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군사관학교 예방 (2022. 1. 21.)



회장단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제29 차연도 사업계획 중 졸업 및 임관기념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도들에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거행하도록 하고, 졸업생도의 평생회비 일괄 납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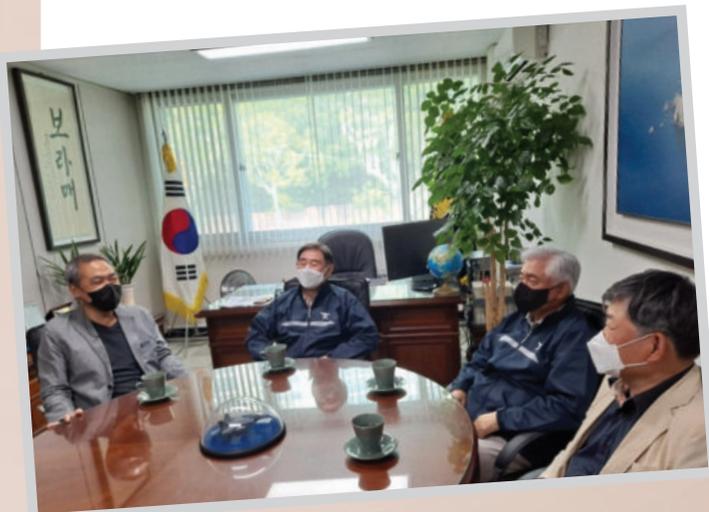
제29차연도 정기 이사회 (2022. 2. 10.)

제29차연도 이사회에서는 소통과 참여로 운영 중점을 정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공군전우회 예방 (2022. 5. 11.)

총동창회장단은 4월 1일 취임한 공군전우회 김은기 회장을 방문하여 취임 축하 인사를 드리고 환담 및 오찬을 나누었다. 김은기 회장은 “공사총동창회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하여 공군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두 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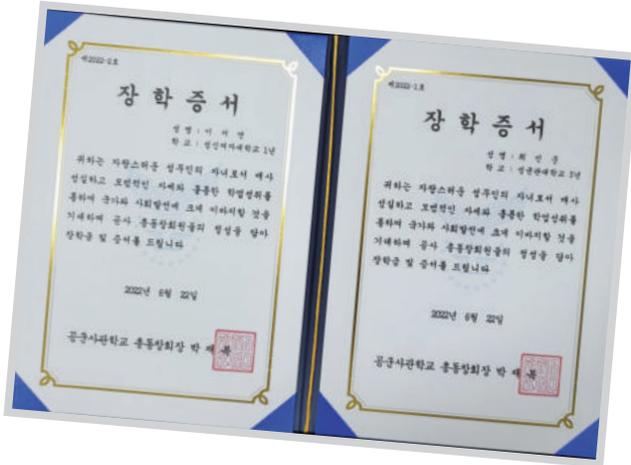
신임 공군참모총장 방문 (2022. 6. 8.)



정상화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취임 인사차 본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군참모총장은 항공안전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예비역 단체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성무장학금 전달 (2022. 6. 22.)



총동창회 회장단은 성무장학사업 시행 후 세 번째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작년 3월 대학생 첫 지급에 이어 연말 정기총회시 대상을 확대하여 초, 중, 고등학생까지 추가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20명에게 1,7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운 보육원 후원 방문 (2022. 9. 29.)

총동창회 임원단은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올해도 청운보육원을 찾아 첫돌을 맞은 김하람 아기의 돌잔치를 후원하였다.



성무안보연구소 창립 세미나 (2021. 11. 25.)



총동창회 부설기관인 (사)성무안보연구소의 창립 세미나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동문과 대내외 인사 및 공군사관생도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축사, 미 제7공군 사령관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전과 항공 우주력’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편, 2022년 안보학술세미나는 11월 17일(목) 14:00 공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순조회 초청행사 (2021. 12. 3.)



본회와 공군전우회는 공군회관에서 연말을 맞아 공군 순직조종부인회 회원을 초청하여 오찬 및 기념 선물을 전달하는 등 위로행사를 실시하였다.

제28차연도 정기총회 개최 (2021. 12. 16.)



본회는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28차연도 정기총회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 기수별 대표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반동안의 업무와 결산을 보고하고,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동창회를 운영할 제29차연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2021. 12. 16.)

본회는 제28차연도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이재우(5기)회원과 박종선(14기)회원을 2021년도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5기 이재우

(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상임 석좌교수)

이재우 동문은 30여 년간 전투조종사로 조국영공수호에 헌신하고 전역후에는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창설하고, 세계정보보호 전문가 TOP 10에 선임되는 등 한국 정보보호의 주춧돌로 추앙받고 있어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하였다.

14기 박종선

(현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겸임교수)

박종선 동문은 30여 년간 전투조종사로 조국영공수호에 헌신하고, 전역후에는 산업경영 공학분야의 후진 양성에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공군의 KTX-2(T-50) 개발에 공헌하여 모교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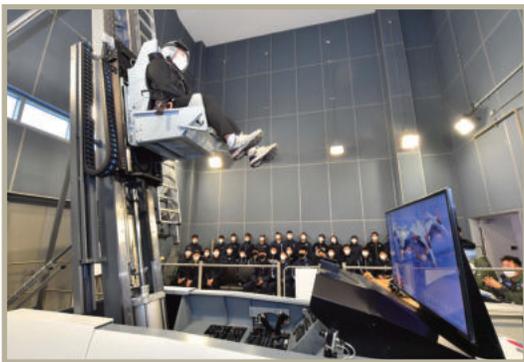
| 모교 소식 |

성무토론대회 (2021. 10. 14.~27.)



공군사관학교는 10.14(목)~27.(수) 3주간 단재관 강당에서 제2회 성무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사관생도가 주도하는 중대 대항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시상황에서 인공지능 무기체계 공격권은 인간 통제하여 두어야 한다”는 논제를 두고 8개 중대 총 32명의 사관생도가 참가해 예선에서 결승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3군사관생도 합동교육 (2021. 11. 15.~19.)



11월 15일부터 5일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에 합동작전에서 공군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 사관생도 합동교육을 진행하였다.



제74기 사관생도 입학식 (2022. 2. 21.)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신입생도 201명의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4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74기 입학생도들은 입학선서를 함으로써 사관학교 정식 입학을 알렸다.

제70기 졸업 및 임관식 (2022. 3. 2.)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제70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인 초청없이 개최되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해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특별이벤트로 학부모 졸업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다.

리더십 심포지엄 개최 (2022. 5. 17.)



공군사관학교 안중근 홀에서 “MZ 세대와 공감하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사관생도 인성, 리더십 함양과 군인정신 고취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53대, 54대 공군사관학교장 이, 취임식 (2022. 6. 14.)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53, 54대 공군사관학교장 이,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제54대 교장으로 취임하는 이상학 중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교의 목표인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 공군 장교 양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박물관 특별기획전 (2022. 6. 21.)



공군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카메라에 찍힌 소년 대한공군'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과거 공군 창군 및 공사 개교 당시와 6.25 전쟁기 등, 20세기 중엽의 공군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련 사진 및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해 운영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4학년 합동교육 (2022. 6. 28.)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대상 합동성 강화교육을 위해 '22. 6. 28(화), 30.(목) 양일간 육군3사관생도 4학년 생도 490여 명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였다.

3사관학교 생도들은 공군의 임무, 역할, 작전 교육, 공군 이해 증진을 위해 교내 견학 및 체험, 공군작전 강의, 생도들간의 친교활동을 진행하였다.

| 공군 소식 |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식 (2021. 9. 23.)



공군은 미래 공군 우주역량 발전을 위해 우주전문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의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민·군 공동 위원회인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간 우주 분야 전문가 22명과 공군 내 우주 관련 유관부서의 현역위원 19명이 참가해 총 4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우주정책·전략·관련법 및 우주영역인식·위성체·발사체 등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국가·국방우주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군수사단 창설 (2021. 9. 30.)



공군은 군사경찰단 업무 중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군본부 직할부대 ‘공군수사단’을 창설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창설된 공군수사단은 기존의 각 부대별로 운영해오던 수사조직을 통합하여 중앙수사대 및 권역별 5개의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센터로 재편성하였으며, 각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군본부 우주센터 신설 (2021. 9. 30.)



공군은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을 거행하고, 더욱 확장된 우주 임무를 시작했다.

기존의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소속 우주처에서 공군참모총장 직속 부서로 예속 변경된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 및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대외기관과 우주역량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과 상호교류, 적시적인 우주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신설됐다.

2021년 탑건 선발 (2021. 12. 21.)



'2021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대회 결과 올해의 탑건에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 전투조종사 최준상 대위(학사 138기)가 선정되었다.

최 대위는 "앞으로도 전술 연마와 영공방위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군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 행사 (2022. 1. 5.)



공군은 군 최초의 우주감시전력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 전력화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공군은 우주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는 우주영역인식 능력 확보를 위해 2015년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019~2021년까지 운용시험 평가기간을 거쳐 올해 전력화를 달성했다.

앞으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활동을 감시하고, 우주 물체를 탐지·추적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39, 40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2022. 5. 27.)



공군은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 40대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대장 취임식과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대장 이임 및 전역식을 거행했다.

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 군사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신뢰와 존중으로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임하는 박인호 대장은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한미 공군, F-35A 연합비행훈련 최초 실시 (2022. 7. 11.~14.)



한미 공군은 국내 임무 공역에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F-35A가 국내 도입된 이후 양국이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F-35A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실전적 연합훈련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블랙이글스, 영국 RIAT 에어쇼 최우수상, 인기상 수상 (2022. 7. 15.~17.)



블랙이글스가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에 참가해 수준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지난 2012년에 이어 10년만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리아트 에어쇼는 영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로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7개국 200여 대의 항공기와 17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했다.

호주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 최초 참가 (2022. 8. 29.~9.7.)



공군이 '22 피치블랙(Pitch Black)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역내 안보와 우방국 간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격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올해 훈련에는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10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참가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였다.

KB국민은행이
당신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자 상품안내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이체(변경)시 **우대혜택** 제공

KB 군인연금협약대출

■ **대출금리 최저 연 3.89%~최고 연 5.52%** (2022.7.19 기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미만, 일시상환, 최저금리는 최대 우대이율 1.0%p 적용 시)

대출대상 :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군인연금수급권자
(KB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기준 충족 시)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대출한도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대 3천만원 이내 - 분할상환 :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예시 : 2022.7.19 기준 현재,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미만 기준)

| 구분 |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우대금리(C) | 최종금리(A+B-C) |
|-----------|---------|----------|------------|-------------------|
| 6개월 변동금리 | 연 3.02% | 연 1.87%p | 최고 연 1.0%p | 연 3.89% ~ 연 4.89% |
| 12개월 변동금리 | 연 3.65% | | | 연 4.52% ~ 연 5.52% |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금융채 금리로 6, 12개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 : 고객별로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연 0.5%p 추가 가산)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KB신용카드
최고 연 0.3%p



급여(연금)이체
최고 연 0.3%p



자동이체
연 0.2%p



KB스타뱅킹
연 0.1%p



적립식예금
연 0.1%p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KB신용카드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연0.1%)/60(연0.2%)/90만원(연 0.3%)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건별 50만원 이상
- 급여(연금)이체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자동이체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 KB스타뱅킹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 적립식 예금 30만원이상 계좌보유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준비서류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필요 시)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서류 문의 포함)

- ※ 본 상품은 KB국민은행으로 연금이체가 필수이며, 대출상환/접수 시 타 금융기관으로 연금이체 중인 경우 KB국민은행으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여 1회 이상 연금 입금 확인 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 약정납입일(자동이체일)은 매월 25일로 지정하고 연금수령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하며 약정납입일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무 논단

성무논단·제언

- 32 KF-21: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원동력 / 정광선(32기)
- 37 세계 주요국의 국제우주협력 동향과 시사점 / 서명교(46기)
- 47 국방우주조직 발전방향 제언 / 이동규(35기)
- 56 T-50 파생형과 발전방향 / 전영훈(18기)
- 63 공군박물관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 강창부(41기)

특별 기고

6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공군의 혁신 노력과 향후 과제 / 정경두(30기)

72 軍人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마치며 / 원인철(32기)

시사 포커스

76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 홍성표(28기)

85 미디어 환경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에 미치는 영향 / 김철우(29기)



KF-21: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원동력



정광선(32기)
전 방사청 KF-21 사업 단장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40분,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FA-50 3대가 차례로 이륙하고, 이어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KF-21이 활주로에 모습을 드러내며 우렁찬 소리와 함께 이륙했다. 부대 밖 해안도로에 장사진을 이룬 많은 사람들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천여 기술자들의 감탄 어린 함성이 터져 나왔다. KF-21은 33분간의 비행을 끝내고 무사히 착륙함으로써 역사적인 최초 비행을 마쳤다. 이 33분의 드라마는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순간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선두 그룹(Top Tier)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나는 2014년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개발착수부터 금년 1월까지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을 맡아 개발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KF-21 개발과정과 성공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말도 많았던 KF-21 개발사업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F-4와 F-5 전력을 대체하고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여 공군의 기반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 성능은 4세대 전투기인 KF-16의 기동성능과 대등하되 항공전자장비는 더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성능을 목표로 한다.

KF-21 탄생은 2001년에 시작된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예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2002년 합참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소요를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이하 ‘사타’) 과정에서 국내 보유기술 부족, 개발비용 과다, 수출 경쟁력 부족, 엔진 개수 등 개발형상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세 번의 사타에서 불합격을 받고, 네 번째 분석에서야 ‘국내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2011년 후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국방과학연

구소 주관으로 탐색개발을 진행한다. 그러나 탐색개발 종료 후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타 결과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면서 2회에 걸친 사타를 추가로 진행하여 2014년 9월이 되어 서야 '선진항공업체의 기술이전', '제3국(인도네시아)의 투자유치'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사타 합격 판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게 된다. 이후 사업이 잠시 순항하는 듯 보이다가 2015년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으로부터 4개 주요 항공전자장비의 기술이전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토론 및 대책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4개 항공전자장비들을 국내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2015년 12월말 방위사업청과 KAI 간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

이처럼 사타를 7회 실시하여 이중 5회는 타당성 부족, 1회는 타당성 있음, 마지막 1회는 '조건부 사업추진'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10여 년 동안의 사타 진행 과정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겉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국방부 예하 연구기관인 KIDA 외 3곳(KDI, KISTEP, 건국대)의 연구기관이 사타를 주관하였으나 건국대 외 두 기관은 국방사업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연구의 대부분을 KIDA에 재용역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사타



결과는 KIDA의 최초 연구결과인 “사업타당성 부족”과 동일하고 단지 그 사유와 대안만 조금씩 변화했을 뿐이다. 사타를 10여 년 넘게 해오는 동안 우리는 T-50, TA/FA-50, KC-100, 수리온 등 여러 종류 항공기의 개발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확보했는데 어찌 사타결과는 매번 동일했는지 아쉽기만 하다. 물론 KIDA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의 타당성을 1~2년 간격으로 다시 검토하는데 본인들이 낸 결과를 1~2년만에 스스로 뒤집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사타의 많은 부분이 Boeing, Lockheed Martin, SAAB 등 선진항공사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한다. 이들 업체는 개발 기간 11~13년, 비용 10~12조를 제시했다. 국내연구(건국대, ADD)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선진 항공업체들의 개발 환경과 국내 항공업체의 개발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생각한다. 국내업체는 이들 업체들보다 노임단가가 저렴하고 업무 시간도 유연성이 크다. 또한 선진업체들이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당시는 실존하지 않은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 장비 및 기술까지도 개발이 필요했으나 한국은 4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다수의 장비 및 기술이 실존(물론 당시 미확보된 기술이 다수 있지만)하여 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개발이므로 상대적으로 개발기간과 비용이 줄어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연구기관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과대평가된 개발 RISK와 개발비용이 매번 사타의 발목을 잡았다.

셋째, 선진항공업체는 한국의 보유기술 수준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을 통해 기간과 비용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6, 7번째 사타에서는 2012년 탐색개발 결과를 기초로 국내기술수준(TRL)을 반영하게 된다.

넷째, KF-21 개발은 2010년 사업추진전략 승인 시 F-X사업(현 F-35사업)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항공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도록 계획되었다. 즉 F-X사업이 먼저 착수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제3국(인도네시아)의 개발비 투자확보도 명시되었는데, 제3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KF-21 개발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리 없지 않은가? 사타 연구기관은 이것들의 미확보를 이유로 사타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가지고 다투는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즐기찬 설득 끝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개발착수 전 확보를 전제로 최종 사타에 조건부 합격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KF-21의 개발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KF-21 개발 성공에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2016년 AESA 레이더 시제업체 선정 시 국내 유력한 업체가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이를 방산비리로 몰아가던 보도, 2021년 4

월 KF-21 시제1호기 Roll-Out 이후 지상시험을 위해 항공기 장비/부품 일부를 탈착한 것을 KF-21 전체를 해체했다고 보도하거나, AESA 레이다 지상시험 중 발생한 안테나 송수신 모듈 결함을 레이다 개발실패로 몰아가는 보도 등이 그것이다. 이제 KF-21이 실제로 비행하였으니 이런 문제 제기는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제기 배경에는 전투기체계의 개발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 개발실패 시 막대한 예산이 헛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KF-21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런 감시의 눈길은 개발성공의 필요한 요소라고도 생각하며, 개발자들은 보안이라는 어려움이 버티고 있지만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개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KF-21 개발 성공의 의미

KF-21은 이제 막 첫 비행시험을 했으므로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갖게 된다. 이는 공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고, 원하는 무기/장비를 개발 또는 구매하여 스스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플랫폼(예: F-15, F-16, F-35 등)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승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막대한 비용

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국내 개발 전투기이므로 부품단종 대응과 후속군수지원이 더 원활해져 높은 작전 가동률 유지와 경제적 전력운용이 가능해진다. KF-21 국산화 목표율은 양산 단계 대비 65%이며 현재는 이를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산화는 전투기 생산 및 군수지원에 지拂되는 많은 비용이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게 돌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KF-21 개발 및 생산은 국내 항공 우주산업을 활성화해서 국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 방위사업청 조사결과, 2016~ 2020년까지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조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국내 업체들에게로 투자되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산시 생산유발효과 24조, 부가가치 유발효과 5.9조, 취업 유발효과는 1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넷째, 국내 방위산업 항공분야 수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KF-21 이전의 항공분야 방산수출은 KT-1, T/FA-50 등 완제기 수출이었다. KF-21 이후는 완제기 수출뿐만 아니라 독자개발 경험으로 체득한 체계통합기술을 활용해 국산 장비/무기 또는 고객이 원하는 장비/무기를 체계 통합한 고객 맞춤형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출된 FA-50에 국내개발 AESA 레이다와 같은 첨단장비를 장착하는 등의 성능개량도 해줄 수 있다. 심지어 타국 전투기 플랫폼에 국산 무기/장비를 체계 통합하는 등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KF-21의 미래

KF-21은 향후 2천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26년까지 공대공능력 개발/검증, 공대지/해 능력 개발, 2026~28년까지 공대지/해 능력 검증을 끝으로 개발이 완료된다. 26년부터는 공대공능력을 갖춘 KF-21 40대를 공군에 우선 인도하고, 28년에는 공대공, 공대지/해 능력을 모두 갖춘 80대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되면 이미 인도된 40대도 공대지/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KF-21이 첫 비행을 성공하면서 개발과정의 절반을 넘어섰다. 모든 개발이 그렇듯이 분명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껏 했던 것처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KF-21 비행시험에 전력투구할 때이다. 현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볼 때 KF-21 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공군과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양산 이후의 KF-21 미래형상을 정립해서 현재 개발과 병행하여 미래형상에 적용할 첨단기술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KF-21 완전 스텔스화, 전자전기/함재기,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 등 우리 능력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KF-21을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로 끊임 없이 변환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KF-21 개발을 위한 사타 검토로 긴 세월을 보냈던 과거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KF-21

의 다양한 형상 개발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여 자연스럽게 5.5세대 또는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야 한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세계 주요국의 국제우주협력 동향과 시사점



중령 서명교(46기)
공군본부우주센터 우주정책협력과장

I. 서 언

전 미공군 우주사령관 Howell Estes 장군¹은 이미 20여 년 전 국회 공청회에서 “과거 석유가 그랬듯이 이제는 우주가 군사와 경제의 중심이고, 적 또한 우주에서의 능력을 키우고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 자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오늘 수행하고 있는 방어뿐만 아니라 내일은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²고 연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역에서 공중우세를 확보한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으며, 군사적 승리를 이뤄냈다. 공중우세가 승리의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우주가 전장이 된 시대에는 우주 공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우주우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전쟁에서 공중 영역의 활용과 발전 역사를 참조하면 우주영역의 미래 활용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우주는 가장 높은 고지이며 전투에서 많은 중요한 이점을 준다.³ 공중영역이 초기에는 정찰을 주목적으로 이용되는 단순한 공간이었지만, 점차 영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적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제공작전이 계속 발전해 온 것처럼, 우주 역시 ISR, 통신, 항법의 정보지원 개념을 넘어, 우주 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제우주작전⁴이 점차 발전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영역은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주 영역은 점점 혼잡해지고, 경쟁적이며 분쟁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우주 선진국⁵들의 ASAT⁶ 실험, 사이버 공격, 위성 정비,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⁷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은 우주안보환경을 더욱 악화

1 미공군 우주군 사령관 1996년~1998년(1941년 생)

2 Prepared Statement by Gen. Howell M. Estes III, USAF(1998 Congressional Hearings)

3 미우주군 발간 교리(Space Capstone Publication Space Power, 2020. 8. 10, 미우주군)

4 공군은 우주영역인식, 우주정보지원, 전력투사, 우주통제작전의 4가지 작전 유형이 있다. 제우주작전은 우주통제작전을 공군인이 제공작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5 본 기고에서 우주 선진국은 우주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지칭한다.

6 대위성공격무기(Anti-Satellite weapon)는 미사일, 동궤도, 지향성에너지 활용하여 궤도상 목표물을 물리적으로 공격 가능한 무기

7 궤도상의 위성 정비기술과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은 필요시 상대 위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악화되는 우주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국제 우주 협력 동향과 한국 공군의 국제 우주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공군의 국제 우주협력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한다.⁸

II. 세계 주요국의 우주력

세계 주요국의 국제우주협력 동향을 살펴보기 전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등 주요국의 핵심 우주력을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민간 우주자산을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민, 군의 구분을 넘어 우주력을 국가적 차원의 능력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주력 중 모든 우주작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우주영역인식(SDA)⁹과 상대 위성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개념의 대위성공격 무기 능력, 그리고 우주정보지원의 중심인 각종 위성활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가. 우주영역인식

우주영역인식은 인류의 우주 공간 활용 증대에 따른 우주물체의 급속한 증가 때문에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우주사령부에서는 지구 궤도 상에 임무 중인 위성 외에도 임무 종료된 위성, 우주쓰레기¹⁰ 등 10센티미터 이상의 물체 약 25,000개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100만개로 추정되는 1센티미터 이상의 물체나, 3억개로 추정되는 1밀리미터 이상의 물체는 관리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물체들은 지구 궤도 상 우주시스템과 앞으로의 우주공간 활용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주 물체가 가진 엄청난 속도 때문에 작은 페인트 조각조차 우주정거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협하다. 적성국의 우주 활동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우주물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영역인식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해 왔고, 우주 선진국은 이러한 우주영역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 공간에 대한 완전한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우주 강국조차도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각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주기반 감시자산 확보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우주영역인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주영역인식의 한미 간 협력의 예로, 한측 위성에 우주물체가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미국 연합우주작

8 주요국의 우주조직 동향은 '주변국의 우주력 건설동향과 시사점(2021. July, Vol. 50, 성무, 이성훈)'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우주영역인식(SDA : Space Domain Awareness)은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의 확대된 개념으로 우주작전과 더불어 국가안보, 경제, 환경 등 국가 제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 및 관련 요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특성을 파악 및 이해하는 것

10 위성 간 충돌, 위성과 우주물체 간 충돌, 대위성공격무기 실험 등으로 인해 발생

전본부는 한국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에 근접예측정보를 전파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렇게 전파된 정보를 각 위성운영 기관에 전파하고, 이 정보에 따라 위성운영 기관은 필요시 회피 기동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우주물체 근접 상황을 위성 운영기관에 전파하는 횟수는 연평균 약 500회 정도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나. 대위성공격 무기

현재 위성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등 7개국이다. 대위성공격무기의 종류는 이러한 위성 발사체 능력을 활용한 미사일 공격, 동궤도¹¹ 및 지향성에너지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3가지 종류의 공격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인도는 미사일을 활용한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프랑스는 지향성 에너지를 활용한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¹²

다. 인공위성 활용

위성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스타링크는 최종 42,000기의 위성을 활용하여 전 세계 인터넷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국, 중국, 캐나다 등도 뒤를 이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십여 년 내에 위성 67,000여 기가 우주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올해 초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성의 숫자는 미국 2,925기, 중국 497기, 영국 452, 러시아 167, 일본 92, 인도 61, 프랑스 58, 한국 17기 등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5,000여 기의 인공위성이 실제 작동 중이다. 이중 전 세계적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며, 인도와 일본은 이보다 제한적인 항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도 2035년까지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다.

III. 세계 주요국의 국제우주협력 동향¹³

가. 미국

미국은 세계 최강의 우주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0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미국에 제2의 스푸트니크 충격¹⁴을 주었고 그해 11월 러시아의 ASAT 실험은 이 충격을 더욱

¹¹ 목표위성과 동궤도에서 활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쓰레기 제거 및 위성정비 기술을 활용하여 목표위성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자폭 등)

¹² Global Counterspace Capabilities Report(Global Secure Foundation)

¹³ 논문 Military ambitions and competition in space : the role of alliances(IISS, Feb. 2022, Greg Austin 등 3명 공저) 주로 참조

¹⁴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crisis, 스푸트니크 쇼크)은 1957년 10월 4일 소비에트 연방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악화시켰다. 이 사건들로 인해 미국은 기존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우주 분야마저도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발전시켜온 우주력을 바탕으로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창설함은 물론, 국방성 조직, 공군의 정책, 획득, 행정 등을 신속하게 재정비하였다. 특히 2020년 전략서에 4개의 축으로 구성된 급진적 정책을 명시하는데, 그중에 동맹과 파트너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전략서에 미국은 ‘확실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우주영역’을 목표로 미국과 동맹국이 우주영역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합작전을 위한 강화된 우주력과 효과를 그들에게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Five Eyes,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Quad, AUKUS¹⁵ 등 동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국제우주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¹⁶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¹⁷이다. 이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UKUSA¹⁸ 안보협정을 맺음으로써 창설되었다. 이들 국가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우주영역인식 등 우주 공간에 대한 정보 등도 포함된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의 비밀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정보공유 수준이 높다. 파이브 아이즈의 특징은 각국을 이끄는 주류 민족이 앵글로색슨족이며, 모두 영어가 공용어인 영미권 국가라는 것이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곧 정보공유를 할 때의 장벽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정보 취득의 범위를 뜻한다. 이는 타국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접근하는 정보의 양과 질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다. 연합우주작전구상(Combined Space Operation Initiative : CSpO)

Five Eyes(파이브 아이즈) 확장에 대한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주 정책 협력을 위해 프랑스, 독일을 초청하여 7개국의 연합우주작전구상(CSpO)을 출범한다. CSpO는 광활

미국이 받은 과학기술교육부문의 총격

15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

16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종합

17 5개국의 정보기관은 각각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이며, 각국 안에서조차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18 영국(UK)-미국(USA)를 합친 것으로 ‘영-미’를 뜻함

한 우주영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협의체로 2014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4개국이 합의하여 결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파이프 아이즈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도 가입한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독일과 프랑스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CSpO는 7개국으로 구성된 우주 작전을 위한 협의체가 되었다. CSpO는 출범 이후 2019년에는 7개국 군 고위인사들이 모여 연합우주작전본부¹⁹와 각 국가 우주작전센터 간 우주지휘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작전개념, 인력 필요성,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CSpO 책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국가 안보 분야 우주협력을 논의하는 등 그 역할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2021.12.15.)에 개최된 책임이사회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대위성공격 미사일 실험에 대한 강한 우려를 CSpO 차원에서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국은 우주에서의 위협 행위를 억제하고 지구 궤도의 우주 쓰레기를 감소시키는데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2021년 OOD(Operation Olympic Defender)²⁰ 연습에 참여하였고, 미국은 표준화된 우주역학 알고리즘 도서관(Astrodynamics Algorithm Library)²¹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허가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정보공유 관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가장 신뢰한다는 방증이며, 동맹국에 대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 NATO²², ESA²³, 프랑스, 독일

NATO 동맹국들은 2019년 우주로, 우주로부터, 우주 내에 공격은 NATO가 집단방어(5항)를 발동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우주정책에 서로 동의하였다. 2021년 NATO 동맹국은 전략적 SSA²⁴ 시스템에 약 100억 원 투자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위성 통신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고, 미래 혁신기술 7대 연구투자 우선순위에 우주분야를 포함하는 등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NATO는 NATO의 우주활동이 작전계획, 능력개발, 산업혁신, 훈련과 연습의 우주 시나리오 통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그 역할을 강화시켰고, 미국 우주군은 이와 더불어 NATO가 우주에서 더 강한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NATO의 우주전략과 교리는 ‘우주에 대응하고, 반응하며, 전 범위에서 경쟁과 군사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SA는 NATO의 입장과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우주관련 행위자 중 하나이다. EU와 ESA 회원

19 미국주도 영, 호, 캐, 뉴, 독, 프 등 연합 우주구성군사령부의 다국적 우주작전본부이며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위치함.

20 OOD는 2013년 최초로 시행되었고 분쟁 중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21 이것은 미 우주군이 우주에서 물체가 궤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궤도물리학의 정보와 알고리즘을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로 알려져 있음.

22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유럽 28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참가하는 안보협의체

23 ESA(European Space Agency) 유럽의 22개국으로 구성된 우주개발 담당조직으로 1975년 창설되었고 2,200여 명이 근무 중임.

24 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 우주상황인식)는 우주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구궤도에서 움직이는 물체, 입자, 에너지를 감시, 추적, 식별하는 개념



국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고,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유럽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및 중국과 같은 우주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우주 주도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NATO에 의존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와 개별적으로 우주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주도국인 독일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군사 우주 파트너십을 선포하며 개별적인 우주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록, NATO 주도국들은 우주정책의 중요 요소에 유럽의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은 미국의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군 우주자산에 대한 큰 요구가 없어 미국과 같은 우주산업 규모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Quad(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는 2021년 9월 최초로 4개국의 대면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우주까지 확장하는데 동의하였다. 4개국은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평화적 목적의 한정된 우주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동시에 ‘우주의 지속 가능한 사용 보장’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였다. 쿼드는 우주협력 가능 분야 중 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모두 중국을 우주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조기경보를 위해 우주감시 및 추적의 성능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SSA 파트너십에 회의적이었던 인도는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와 우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쿼드는 현재 SSA 파트너십 형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의 또 다른 중요한 협력분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ISR 필요에 대응하는 것인데, 우주기반 ISR 협력은 4개국 모두에게 데이터 분석과 비용 공유차원에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인도는 미국과 정보공유 보안을 확실히 하는데 서명하였고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양자 정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쿼드 회원국들은 우주안보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는 다년간 중국과 우주정책과 관련한 파트너십과 동맹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러시아는 항공우주분야에 기술을 강화하고 외교무대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제달 연구소를 포함한 ‘새로운 연합 활동에 대한 이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을 위해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고, 202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2024년 로봇 소행성 임무의 협력을 통해 소행성에서 샘플을 함께 채취할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우수한 우주기술의 상승작

용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두 국가의 협력은 대위성 공격 무기까지 포함하는 등 군사 우주문제에서도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슈가 될 우주 거버넌스 문제에서도 공통된 입장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 두 국가와 국제사회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러의 협력관계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협의체와 같은 수준의 신뢰관계는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V. 한국의 국방우주력 및 국제우주협력 현황

가. 국방우주력 현황

공군은 30여 년 전부터 우주영역이 군사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견하고 전투발전요소²⁵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공군비전 2050에서 강조하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면 우주력은 그동안 교리, 인력양성 등 소프트 파워에 집중된 면이 많고 전력과 조직은 아직 미약하다.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군, 우주사령부 등 우주조직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처럼 우주 중진국²⁶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우주조직의 발전이 절실하다. 우리 국방부, 합참 등도 우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사일우주정책과 내에 인력을 보강하고 합참 군사우주과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국방우주전략서, 군사우주전략서 등의 기획문서들을 작성해 국방우주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군도 각 군 본부에 우주정책부서를 만들고 우주력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며, 공군은 전투발전단 우주처에서 공군본부 참모부서로 우주센터를 신설하여 공군우주력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나. 국제우주협력 현황

〈합의서〉

국제우주협력면에서 노력을 살펴보면 공군은 2021년 최초로 미우주군이 초대하는 국제 우주지휘관 회의에 공군참모총장이 참가하여 미 우주군과 우주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금년 4월에도 공군참모총장은 국제우주지휘관회의에 참가하여 우방국 우주지휘관들과 만나 우주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우주지휘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주협력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대해 협의하였고, 올해 7월 전 세계 항공우주지휘관

²⁵ 교리, 조직, 훈련, 전력, 리더십/교육, 인력, 시설, 정책의 8개의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요소

²⁶ 본 기고의 우주 중진국은 인도,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 발사체, 군사 우주조직 창설, 항법위성, ISR, 통신위성 등 우주 정보 활용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 국가를 지칭한다.



회의에서 영국, 호주와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또한 프랑스, 인도, 태국 등과도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습, 훈련, 교육 참여〉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Global Sentinel²⁷, SACT²⁸ 등 연습과 우주 심포지엄, SPACE 100 교육과정²⁹에 참가하고 있고, 학술회의인 AMOS³⁰도 참가할 계획이다. 또한, 슈리버 위게임³¹이나 SPACE 200³² 등 현재 한국에는 개방되지 않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가의견을 개진 중이다. 미국 프로그램 외에도 프랑스, 호주, 인도 등과도 교육과 훈련분야의 협력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구 내에서는 2012년 최초로 한미 우주협력팀을 출범하여 한미 연합으로 우주연습을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좀 더 강화된 우주통합팀(SIT : Space Intergration Team)으로 명명하여 연합 우주연습을 점차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연습 후속조치로 각 구성군사의 인원을 연락장교가 아닌 우주통합팀 구성원으로 연합사 작전시행지침서 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우주 작전 역량의 차이로 인해 아직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입장이며, 향후 한국이 우주전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정보공유가 이뤄진다면, 한미 우주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난 22-1차 연합지휘소 연습 중에는 한국군 최초의 우주자산인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미군에게 제공하기도 함으로써 정보공유에 대한 미군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향후 연습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참여〉

금년 초 미국과 서방 7개국은 연합우주작전 비전 2031이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공군은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협의체는 아직 초기 단계로 참가국의 공동목표와 역할 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협의체가 안정되면 한국의 참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참가국과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참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현재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27 각국 우주작전센터가 참가하여 우주상황별(위성총동 추락, 탄도탄 발사, 위성공격 등)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연합공조 대응 절차 숙달 등 대응 및 협조방안 모색하기 위한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28 SACT(Sprint Advanced Concept Training, 스프린트 고급개념 훈련)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우주방어능력 확대와 우주교통협조 체계개발을 통해 확고하고, 실행 가능하며 지속유지가 가능한 감시 및 분석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연습

29 미 우주군 우주작전 기본교육과정

30 AMOS(Advanced Maui Optical and Space Surveillance Technologies)는 국제 우주상황인식 관계자(군, 기업, 학계)들의 우주상황인식 관련 연구발표가 이루어지는 국제 학술대회

31 美 육·해·공군,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교통부, NASA, 정보기관 등 民·軍 유관기관 및 동맹국(7개국)이 참가하고, 미래 우주 위협을 가정하여 대응하는 연습

32 미 우주군 우주작전 중급교육과정

미국과 한국의 정보공유 수준을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참여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사령부 연락장교 파견〉

2019년부터 미국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본부에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는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 다만, 합의서 상 연락장교 배상문제 등 양국 국방부 훈령의 차이로 추가 협정을 준비 중인 상태이다. 관련 내용을 미 국무부에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 검토하고 있으며, 연락장교 파견은 미국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본부와 한국 우주정보상황실 간 협력은 물론 향후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참여³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안건이다.

〈각국 지휘관 우주센터 방문〉

미국 우주사령관부터 각 국 총장급 인사의 공군 우주센터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우주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각국 지휘관과 공군 지휘부의 우주분야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상호 우주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V. 결 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주 선진국부터 우주 중진국까지 각 국은 우주분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협력분야는 우주영역인식(SDA)이다. 최고의 우주역량을 가진 우주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광활한 영역의 우주에 대해서는 완벽한 우주감시에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등 우주 선진국도 우방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주정보지원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은 중요하다. 위성은 궤도상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고, 나머지 궤도상의 시간은 유희기간으로 활용이 제한된다. 상호 신뢰하는 우방국 간 필요한 위성영상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있으면 불필요한 유희기간을 줄이고 제한된 위성 자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우주력은 우주 선진국에 비해 초기 수준이다. 우리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우주 선진국의 교육, 훈련, 작전지식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은 필수이다. 우주 선진국의 전략서나 비전 등을 통해서는 작전의 분류 등 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우

33 연합우주작전구상 참여국은 미 우주사의 연합우주작전본부에 해당국 우주 연락장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전력을 활용하는 세부적 방법과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연습과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은 함께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습득할 수 없다. 우리군 최초의 우주전력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우방국과 정보공유 내용, 절차, 유통채널에 대한 협력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단발성 회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를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의 근거도 마련해야 하겠다. 연합우주작전구상(CSpO) 참여 등 국제 우주협력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며, 우주 선진국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의 협력도 지속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후발국이지만 우주개발과 협력 참여를 위해 노력 중인 국가들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함께 발전하는 방안 역시 추구되어야 하겠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공군 대공군 회의' 등으로 지속 협력하고 있는 인도, 태국 등과의 우주협력 관련 논의가 그러한 노력의 시작이며, 향후 우리의 인공위성 등 방산수출, 작전지식 공유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협력을 추구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우주력도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 우주협력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우주조직 발전방향 제언



이동규(35기)
세종대학교 우주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 폐지되면서 국가차원의 우주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제 지구촌 생활을 벗어나 더 크고, 더 멀고, 더 높은 고차원적인 우주터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호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중심의 국제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누리호 뒤를 이을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 본격화, 한국형 항법위성체계 개발 추진 등이 그 증거이다. 신대륙을 찾아 신항로개척에 나섰던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이어 지금은 우주로의 신영역 개척을 위해 또다시 새로운 대항해 도전 길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한편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우주 신성장 분위기에 맞춰 오래전부터 기반조성에 힘써오던 우리 국방 우주분야도 최근 들어 각 군의 우주력발전 노력 경쟁이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여 동안 국방 우주분야에서 종사해 온 필자 생각에는 그동안 각 군이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에 비해 국방우주력 발전이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고 기회를 빌어 국방우주력이 왜 중요한지, 현재 우리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선진국은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국방우주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방우주력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어느덧 우주공간은 선진국들의 각종 인공 위성(최근의 초소형위성군 포함)과 우주발사체 운용 등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어 벌써부터 Space Traffic Jam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경쟁시대에 우리 위성과 우주잔해물 간 충돌, 우주물체의 지상추락 등과 같은 우주위험과, 그리고 우리 위성에 대한 임무방해, 공격행위 등의 우주위협으로부터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자유로운 우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방우주력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우주공간이 현대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광역성, 신속성, 치밀성, 은밀성 등의 우주특성을 이용한 각국의 국방우주전력 강화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황만 보더라도 위성인터넷 사용, 위성항법 재밍공격, 정찰위성 연합 영상지원 등 우주작전의 실전 적용사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우주감시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UN 평화유지군 참가, 대테러 및 해상로 안전활동, 전쟁지역으로 부터의 재외국민 긴급 귀국지원 등 세계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군사작전 영역이 이제는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분야도 우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지휘통제전력이나 광역 항법/감시정찰자산의 운용이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미래 우주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러위성, 자폭위성, 레이저장착 위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우주방어 전력도 필요하다. 우주라는 신영역이 어느덧 전장화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군의 우주방위 역량 조기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 우주영역에서의 위협과 위협
 - 위성 파괴를 목적으로 한 레이저무기 장착 킬러위성
 - 위성 파괴를 목적으로 근접비행하는 자폭위성
 - 위성통신의 교란과 위성의 영상촬영을 방해하는 스토킹위성
 - 통제 불능의 위성·우주잔해물과 우리 우주자산과의 충돌 등
- 우주에서 지상으로의 위협과 위협
 - 타국위성의 한반도 상공통과(1000여기 이상)시 영상정찰/통신감청
 - 우주환경 악화에 따른 공/지/해상영역에서 통신/항법신호 장애발생
 - 통제 불능의 위성·우주잔해물의 한반도 추락시 국가적 재난 발생 등
- 지상에서 우주로의 위협
 - 지상레이저무기를 이용한 우주공간에서의 위성활동 방해(손상, 파괴)
 - GPS 항법위성 신호방해를 위한 지상 GPS재밍(jamming) 장비운용 등

〈우주위협과 우주위협〉

국방우주력의 현주소

국방우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우리군의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각 군의 우주 조직과 전력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군은 1998년부터 우주업무 담당부서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우주역량을 발전시켜 왔는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했고 조만간 공군 최초의 우주자산인 우주감시전력이 작전운용 개시될 예정에 있다. 순차적으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우주군 등 선진우주국과의 군사우주협력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은 최근 들어 우주업무 전담부서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우주전력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가일층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각 군의 노력 집중은 잘된 일이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에도 우주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이 오래전부터 구성되어 있다. 국직부대로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군 위성통신 관련하여 관제대대 운영과 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국군정보사령부는 군 정찰위성체계 전력화를 위해 관련부대를 정비 중에 있다.

이렇게 군별, 부대별로 모두가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중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체계적·종합적이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분위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 듯해 보인다. 공군은 우주를 시작하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신력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육군과 해군도 최근 들어 우주로의 도약을 시작하려 하나 추동력이 약해 보인다. 심지어 이런 노력들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에는 마치 삼군이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군에서 국방우주를 주 업무로 하는 합법적인 전담조직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주무조직 지정없이 군별, 부대별 자체계획과 의지에만 맡겨두니 국방차원의 우주역량이 계획적·총체적이지 못하고 각 군은 공신력과 추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의 우주발전 경우는 정부부처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합법적이고 주도적으로 책임과 임무를 전담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국방우주는 그러하지 않았다. 공군이 1990년 말부터 국방우주력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는 하나 그 지위와 책임에 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도 없다.

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에 ‘육·해·공군은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주영역도 지·해·공중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가시적·물리적 공간이며 어느덧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따라서 우주전장에 대해서도 권한을 부여받아 국방의무의 책임을 전담할 군조직이 만들어져서 합법적으로 임무가 지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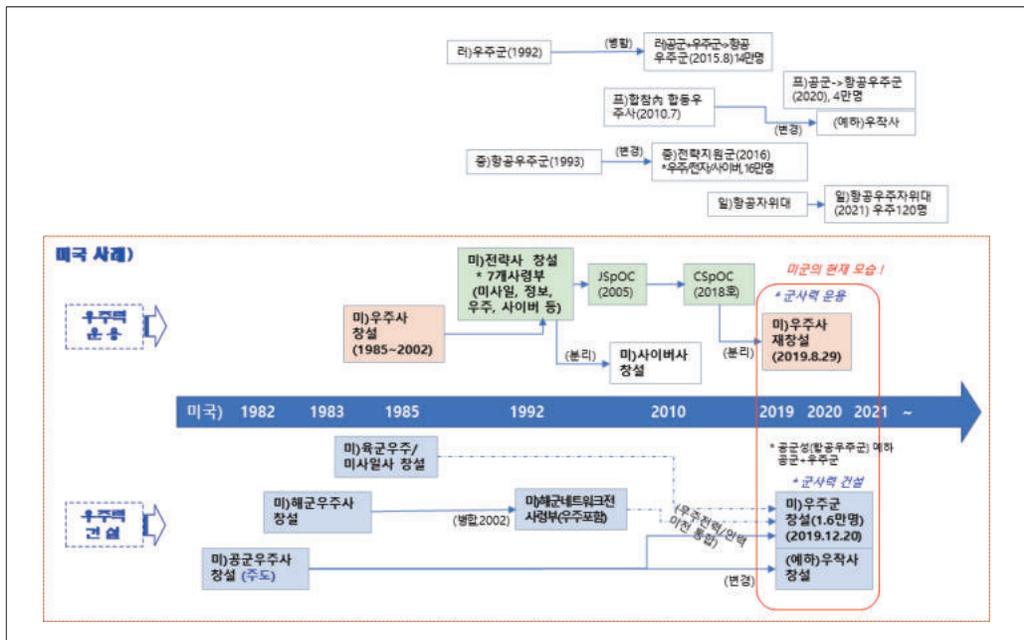
선진국의 국방 우주조직

이제 우리 군의 우주 전담조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먼저 우주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겠다. 우선 미국은 1942년 미공군 창설 이래 80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 공군 위주로 삼군

의 우주전력과 인력을 통합한 우주군을 독립 군종으로 창설하여 새로운 군복으로 갈아입혔다. 육·해·공군 예하에 있던 80여 개 부대가 우주군으로 이전 배속되어 미사일조기경보, 인공위성 운영, 우주통제, 우주정보지원, 우주교리/전술발전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초기 영충병력은 16,000명 수준이었다. 현재까지는 공군성 예하에 공군과 우주군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공군성이라는 명칭을 양 군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새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¹ 우주군 창설이전까지는 미 국회와 국방부의 합법적인 승인하에 공군우주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우주력을 발전시켰다. 한편 우주력 건설(이른바 양병)을 위한 우주군 창설과는 별도로 우주력 운용(이른바 용병) 차원에서 합동/연합 우주작전 수행을 위해 우주사령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 합참 예하에 합동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ISR, 위성통신, 우주감시 능력을 통합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말에 공군을 항공우주군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예하에 기존의 합동우주사령부 조직을 이전하여 우주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2025년까지 500명 정도의 우주인력을 목표로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20년 5월 항공자위대 예하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여 20명 규모로 지상 기반 우주감시전력만을 우선적으로 운용하였다. 올해에는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120명 정도의 우주인력을 가지고 확장된(기존 광학감시 임무에 레이더 우주감시까지 포



〈선진국의 우주군사조직 발전사〉

1 Comprehensive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U.S. Space Force, 2020. 2.

함) 우주감시부대를 운용해 나갈 계획에 있다. 우주의 선점 내지는 우위 확보를 위해 소규모더라도 우주부대를 조기에 창설하려는 발 빠른 행보로 보이는 대목이다. 궁극적으로는 항공우주자위대 병력의 30% 수준인 14,000명 정도가 우주임무에 투입될 예정으로 미국의 우주군과 같은 독립군종을 창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18년부터 공군에서 우주임무까지 맡고 있으며 합동전략사령부가 우주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공군의 현재 우주인력은 600명 수준으로 미약하나, 우주임무를 계속 공군에 두고 있는 것은 향후 미군을 벤치마킹한 우주군을 창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연고로 영국은 미국의 저궤도위성 개발팀과 연합우주작전본부에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형국이다.²

중국은 1993년 항공우주군을 창설하였고, 이후 2015년에 전략지원군을 창설하면서 우주 임무를 흡수하여 사이버, 전자전 분야와 함께 합동작전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략지원부대 총 병력은 16만명 규모이고, 우주전력으로는 위성통제, 우주정찰국, 우주시험시설, 우주개발센터 등이 있는데 국가차원의 우주개발임무도 병행하고 있다.

러시아 경우는 구소련 붕괴 이후 과거의 우주강국 지위로 복귀하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1992년에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당시 군 우주자산은 우주기지, 우주전력시험통제센터, 과학연구소 등이었다. 2011년에는 방공군과 우주군이 통합하여 항공우주방위군을 신설하여 우주감시와 미사일 공격/방어 임무를 단일화하였다. 다시 2015년에는 공군과 항공우주방위군을 통합하여 항공우주군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는데, 총 병력은 약 14만명이었다.

우주 선진국의 국방우주 전담조직 변천사를 요약하면 공통점이 2가지 있다. 우선은 대부분 국가가 항공분야와 우주분야의 군 조직을 함께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공군성산하에 공군과 우주군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장환경이나 임무특성의 유사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는 군 전담 우주조직을 이룬 시기에 빨리 만들었는데, 비록 초기 시설장비와 인력 규모가 작더라도 서둘러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창기에 강력한 추동력을 얻기 위한 국방의지의 표현이며 국제적으로는 우주선점, 우주우위를 확보하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작전의 범주

그럼 도대체 군사적 차원에서의 우주작전 범주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국방우주 전담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우주는 그 공간만큼이나 작전범주도 방대하다. 우리나라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현을 위해 미군의 우주작전 개념과 체계를 준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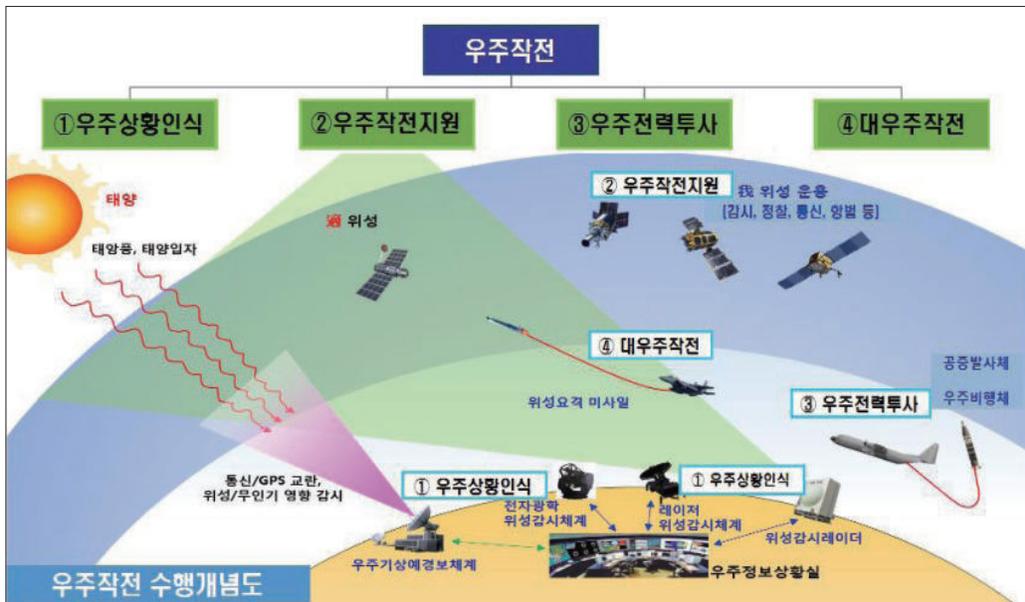
² A space defense strategy for the UK, 2020. 1. 20.



는데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주상황인식, 우주작전지원, 우주전력투사, 대우주작전 분야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상황인식 분야는 우주전력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공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식별하는 활동으로 우주작전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임무로서 우주환경 변화 인지 및 우주작전에 필요한 위성정보의 통합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정보지원 분야는 합동 군사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 및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공·지·해상 작전능력 신장을 위한 위성 기반 작전지원 임무와 국가/군 위성의 효율적인 운용통제를 위한 위성통제체계 운영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우주전력투사 분야는 우주전력이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 전력을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우주에 배치할 위성, 인원, 물자 등을 우주로, 또는 우주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우주작전 능력을 배치, 유지 및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우주작전 분야는 우주전력이 우주공간에 직·간접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어적·공세적 활동으로 적의 우주 전력/능력에 대한 방해, 거부와 적 공격/방해로부터 아 우주자산 및 능력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작전 분류 및 우주작전 수행개념도〉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우주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전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도 우주감시 분야와 각 군의 작전지원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주감시정찰 전력 확보를 두고 이것이 우주작

전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여 마치 우주작전이 각 군 작전을 지원해주는 역할일 뿐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우주전력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미래의 핵심 기반전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주작전 규모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하니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우주전력을 확보하면서 우주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작전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둘러 군 전담 우주조직을 가져야만 한다.

국방우주 전담조직 신설방안

최선책은 독립 군종 ‘우주군’ 창설

우리 군의 현실과 우주 선진국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군은 국방우주 전담조직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우리 군도 궁극적으로는 각 군의 우주력을 통합하여 독립 군종 형태인 우주군 체제로 가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새롭게 식별된 전장에 대해 주무군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전담 방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치 지상전장에 대해 육군에게 지상작전에 대한 주임무를 부여했듯이, 그리고 사이버 전장이 식별되면서 사이버사령부라는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임무를 법으로 보장해 주었듯이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 군 부대별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우주전력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우주군 간에 연합 우주작전과 제반 업무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난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군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새로운 군을 창설하려면 현재의 군 구조와 인력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예산과 함께 재정비 기간 동안의 군 안보태세의 흔들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는 일이니 아무래도 과도기적 차선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차선책은 당분간 ‘특정군 주도’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 각 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지 40년만에 각 군의 우주 전력과 인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독립군종으로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그 이전에는 공군우주사령부 주도하에 육군과 해군의 우주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우주력 건설을 오랫동안 함께 수행해 왔다. 미공군 우주사령부에게 1959년에 미 국방부에서 우주임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그리고 1960년에 미 국회에서 주도권을 법적으로 위임해 주었고 2001년에는 미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를 승인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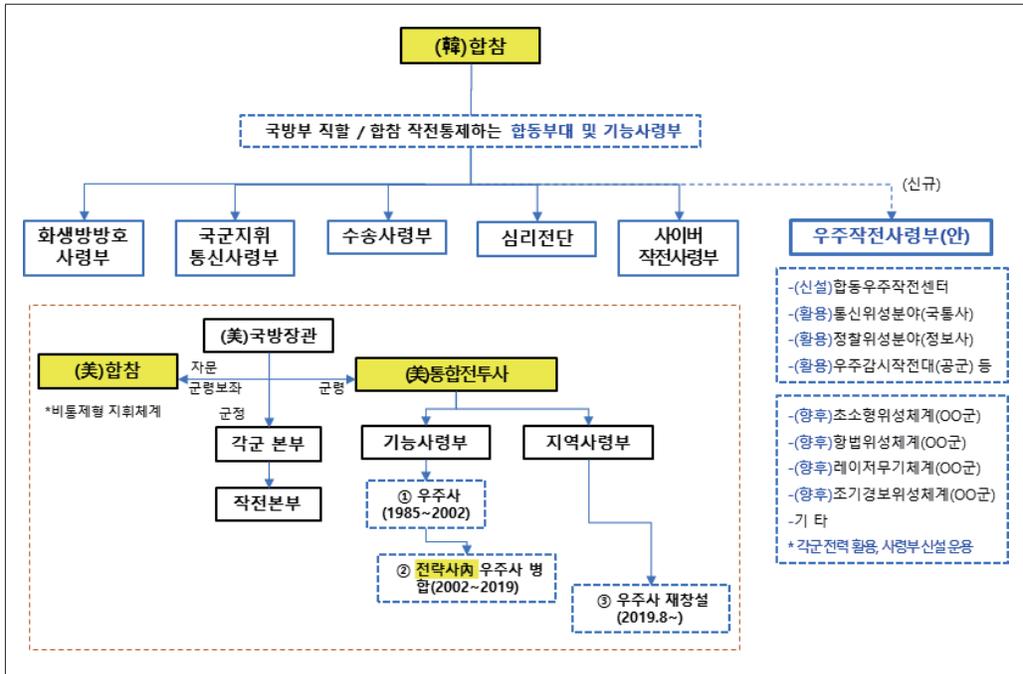
우리 군의 경우도 당장 우주군으로 가기에는 국가여건이나 국방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미국처럼 순차적으로 우주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겠다. 우선 현재의 군 조직에서 어느 군이 국방우주력 건설 임무를 당분간 대행하는 특정군 주도 체제로 가다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그때 각 군의 능력을 통합한 독립된 우주군 체제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국방 우주조직의 표준 샘플국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주 선진국에서 선호해오던 수순이다. 우리군의 우주분야는 아직 성숙단계에 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군이 대행하면 좋을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된다. 현재 임무와의 유사성, 역할 적용시 효과성, 그동안의 경험·경력, 동맹과의 연합작전 효율성, 그리고 선진국 사례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각 군 모두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중한 국방비를 가지고 모두가 주도 역할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해·공중 어느 전장에서든 주도(supported)와 지원(supporting)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결심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 뒤따를 뿐이다. 적이 기다려줄 리도 만무하다.

합동우주사령부 창설도 선택 아닌 필수

미국의 예를 먼저 들면, 국방우주력 건설(양병)을 책임지는 우주군과는 달리 국방우주력 운용(용병), 즉 우주작전임무를 전담하는 합동/연합부대인 우주사령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미우주사령부는 1980년대 초반에 각 군 우주사령부간 잦은 갈등을 해소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5년에 창설되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2002년에 전략사령부로 흡수 병합되었다가 다시 2019년 8월에 분리되어 재창설되었다. 현재는 지역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예하에 연합우주구성군사령부(CFSCC, Combined Force Space Component Command)와 합동우주방어부대(JTF-SD, Joint Task Force-Space Defense)를 운영중에 있다.

이처럼 우리군도 우주력 건설을 위한 특정군 지정, 또는 우주군 창설 추진과는 별도로 합동성 강화 차원의 군사력 운용을 위한 합동우주 전투작전부대(사령부급)의 신설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혹자는 각 군의 우주전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합동우주사령부 신설이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30년여 전에 우주작전이 시작된 전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도 늦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각 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소요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주작전수행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어찌면 우주전력의 조기 확충을 위해서라도 정책적이고 선제적으로 우주사령부 창설을 선포할 필요가 있겠다.



(합참내 우주 군사조직 창설방안)

결 언

우주 선진국처럼 우리 군도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 이전에 당분간은 특정군으로 하여금 우주력 건설을 전담하여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과 임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정군 지정 여부는 우주전장의 특성과 우주작전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져보면 쉽게 해답이 나올 일이다.

우주 대항해 시대, 우주위협 심화 시대에 아직도 자군 우선주의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군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새로운 전장환경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선진강군 육성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우주조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주작전은 미래 이야기에서 일상이 된지 오랜데 우리는 아직도 누가 책임지고 가야 할지 주인조차 지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인이 존재해야 잘 지킬 수 있고 타군과 합동성 강화도 가능한 법이다. 전쟁에 2등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자랑스런 후배 군인들이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군은 철저히 준비해 주어야 한다. 우주전장에 대한 전담 주무군 지정을 늦은 만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T-50 파생형과 발전방향



전영훈(18기)
전 KAI T-50 개발센터장

들어가며

T-50이 개발을 완료한 지 벌써 1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당시 필자(공사 18기)는 공군 전투조종사(당시 F-4D)로 근무하다 미국에 유학하여 항공공학을 전공한 후 귀국하여 공본 성능 검토실에서 당시 F-X(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대상 기종(F-16과 F-18) 선정에 관한 연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F-X 전투기 기종 선정 검토 과정에서 직접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당시로서는 쉽게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너무나 야심찬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초음속 훈련기 개발추진 (경전투기급 기본 형상)

국과연(ADD)에서 항공기 개발의 꿈을 실현하고자 연구 및 개발 추진에 몰입하였다. T-50 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되었다. 연구개발에 대한 사회의 여건 미비,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절대 부족, 이를

수행해 나갈 연구 인력의 부족 그리고 개발을 뒷받침 해줄 정부 예산의 여력, 어느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T-50 개발 사업을 착수 시키고 진행한다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움과 난관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난관은 오히려 필자와 우리 연구진을 더욱더 연구를 하게 하여 나아가 사업추진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성공을 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요즈음은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많이 쌓아 소요군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원하며 지원하는 분위기인 것을 보면 정말로 많이 변했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당시 필자는 고등훈련기를 개발로 한국 공군의 훈련기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잠재적으로는 경전투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하였다.

탐색개발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탐색개발이 착

수되었다. 탐색개발은 절충교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F-16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국과연(ADD) 및 업체 기술자, 공군 연구원들과 미국 록히드마틴 엔지니어들과 현지에서 약 3년 동안 고등훈련기 탐색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서 투입된 도미한 우리 연구진은 약 최대 89명 규모였다. 이 중에는 다수의 공군 현역 장교들이 연구에 투입되어 개발 초기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현역 연구원은 필자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이었다.(24기 이윤상, 27기 고영하, 28기 이용표, 29기 고심재, 김창휘, 노종호, 30기 김창호, 김종국, 31기 김동철, 김인재, 이규열) 이 기회를 빌어 현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날의 T-50 개발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탐색개발 진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고등훈련기인 T-50을 초음속기로 개발하는 문제였다. 그 당시는 전 세계에서 초음속 성능을 지닌 고등훈련기를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2022년 현재까지도 초음속 훈련기는 T-50이 유일하다.) 당시 공군과 합참의 초기 요구도(ROC, Requirement of Operation Capability)에 아음속기로 명시되어 있었다. T-50 개발 책임자였던 필자는 미국 현지에서 국내 및 미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도 충족하고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미래의 전투기와 연계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훈련기를 개발

해야 한다는 연구 결론에 도달하였다. 전투기의 비행성능은 미래로 갈수록 기동성 향상을 요구하는 추세로 항공기의 추력 대 중량비가 높았다. 추력 대 중량비는 기동성에서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미래의 고등훈련기도 추력 대 중량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고등훈련기는 초음속기로 설계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소요군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소요군과 합참은 ROC를 초음속으로 변경하는 의사 결정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체계개발을 업체주도로 보내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 탐색개발은 국과연주도로 개발했지만 체계개발은 업체가 주도로 개발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갈 수도 없고 사업이 간다고 한들 성공도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없어 이 사업이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록히드 마틴의 공동투자 공동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였고 한편 록히드마틴 입장은 업체주도가 아니면 공동투자 공동개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자기네들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 돈을 벌겠다는 것, 즉 비즈니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집단이 아닌 국가연구소를 파트너로 원치 않았다. 책임자인 필자는 록히드마틴이 참석 안하면 우리 독자적으로 성공시키기 힘들며 정부에서 우리 민고 사업을 보내 주지도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난관을 극복하고 초음속 훈련기의 성공적으로 완수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우



리 정부(국방부)를 설득시켜 업체주도로 가게 되었다.

체계개발 착수

이제 중요한 것은 T-50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체계개발단계에 착수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국내 여건은 초음속 성능의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 실패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 대수가 적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된 훈련기를 해외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리도 여전히 있었다. 정부로서도 체계개발 착수의 결단은 소요비용, 기술이전 담보, 빈틈없는 군사력의 증강, 초음속 훈련기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등의 난제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돌파구는 대한민국 정부, 국내 업체 및 미국 업체 간의 공동개발로 비용을 분담하고 개발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공군 수요 등을 겨냥하고 국제협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설계과정

T-50 설계는 순수 고등훈련용으로만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전술입문훈련도 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관속비행에 이어 기본훈련과정, 고등훈련과정, 전술입문과정을 거친 후 전투기 조종을 하게 되어있다. 고등훈련과정을 마치면 전

투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전술입문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 또 하나의 기종이 필요하게 된다. 과거에는 실제 전투기로 훈련을 하다 보니 중요한 전투기를 전술입문 훈련에 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전투기 부족과 비효율적 운용으로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T-50 고등훈련기에 전술입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무장(레이더, 기총, 로켓 및 각종 폭탄)을 장착하므로서 한 개의 기종으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TA-50)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설계되어 개발에 성공하였고 공군에 납품이 되었고 공군은 대단히 만족을 하였다.

T-50은 훈련비행 횟수(소티)를 40% 단축, 조종사 능력은 40% 향상, 훈련 시간은 30% 절감 및 조종사 양성 비용은 20% 절감할 수 있어 고객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고 전투조종사를 양성한 고등훈련기로 세계의 최고의 고등훈련기라고 평가되고 있다. T-50은 우리 공군은 물론 해외로 수출되어 현재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이라크, 인도네시아에까지 수출돼 운용되고 있고 운용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T-50 파생형

T-50 파생형으로는 첫 번째로 특수 곡예비행 목적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용 T-50B이다. 이 형은 곡예비행을 위해 스모그 분사장치, Pin 카메라, Image

레코더 등이 추가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FA-50인데, TA-50은 레이더와 각종 무장을 장착되었고 국내 전술입문 훈련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적지에 투입되었을 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는 보호하는 장비가 없다. FA-50은 여기에 RWR(Rear Warning Receiver)나 CMDS(Counter Measures Dispenser System) 등 자체 보호 기능과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한층 확장되고 전술데이터링크 능력, 정밀유도폭탄 투하능력, 야간 임무수행 능력까지 구비하고 있다. AIM-9J/L/M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AGM-65 매버릭, 합동직격탄(JDAM), 등의 무장 장착이 가능하여 전투기의 임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이다. 이 항공기는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고 현재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구매 타진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F-50(가칭)인데 아직 개량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태로 개량 개조를 제안한다. FA-50은 근본적으로 고등훈련 목적으로 개발된 T-50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전투기로 사용 시 작전거리가 짧고, 무장은 많이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작전임무에 투입 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좌석이 복좌로 되어있어 전투 시에 단좌로도 가능한데 불필요한 복좌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복좌를 단좌로 개조하고 그 공간에 연료를 추가함으로 작전거리를 증가시키고 엔진을 현재 F404-GE-102에서 F414-GE-400로 교체하면 추력향상으로 보다 많은 무장이나

전자 장비를 장착할 수 있고 기동성능이 많이 향상된다. T-50 개발 당시 설계할 때 미리 단좌기 필요성에 대비하여 설계변경도 많이 하지 않고 개조할 수 있도록 Provision을 해두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AMRAAM 등을 장착하고 항공전자 장비를 추가하면 스웨덴의 Gripen NG(Jas-39E/F)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하고 성능 우수한 훌륭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수가 있다. 지금 동남아나 중동, 남미 그리고 제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유럽 일부국가들은 F-16이나 F-15, F-35, Rafael, Eurofighter 등의 고가비행기가 재정상 허락하지 않으며 저렴하고 성능 우수한 항공기 F-50과 같은 전투기를 찾고 있다. 전투기는 한 번 개발되면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Upgrade 되고 있다. 이렇게 개량 및 개조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교훈

T-50을 개발한 후 교훈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군용기를 개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기체계에 대한 자주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부수적으로 해외수출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2차적인 목표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1차적인 목표인 자주능력 확보란 후속 군수지원 능력을 스스로 갖는다는 것이다. 후속군수지원이란 항공기 운



영도 중 필요한 부품 등을 적시 적소에 제공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부품 국산화 준비도 없이 불모지에서 출발한 T-50 개발은 개발 후 점진적으로 부품국산화를 이루고 미래 개발항공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다음 개발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T-50을 개발한 후 부품국산화는 20%도 못 미쳤으며 그 후도 부품국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아직까지도 스스로의 후속군수지원 능력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시스템이나 제도는 후속군수지원 능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개선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 다음 항공기 개발에도 대부분의 부품을 해외구매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게 된다. 항공무기체계에 있어서 후속군수지원은 절대적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공기를 띄울 수가 없다. 항공기는 조그마한 결함이 있어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이며 타 지상이나 해상무기체계보다 예민하고 치명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후속군수지원을 외국에 의존할 때는 후속군수지원국에 무기체계 운영이 종속되게 된다. 이것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질이 생길 때는 무기체계 운영이 치명적이 되며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가 된다. 비근한 사례가 이란의 경우이다. 이란은 당시 팔레비 왕조 시 미국과 우호관계 이었지만 호메니 정권이 들어서며 반미정서로 바뀌어 단교가 되었으며 1980년 9월 22일 이란-이라크 전쟁 시 이란은 미국이 제공한 당대 최고의 전투



블랙이글스가 17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 영국 공군 특수비행팀 레드 에로우즈(Red Arrows)와 우정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사진 공군)

기(F-14, 지금의 F-22급)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단교가 된 후 후속군수지원이 중단되어 지상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던 예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개발은 미리 미리 개발해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 교훈은 T-50 개발 당시 우리에게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절충교역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개발할 때는 도움을 받아 좋았는데 개발 후에는 기술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개조개발 할 때는 언제나 기술 통제를 받게 된다. 수출할 때에도 통제를 받게 된다. 미 정부의 통제를 받아 수출을 포기한 때도 있었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은 우리가 미리미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개발 후도 우리가 마음대로 개조개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수출도 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기술이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지 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최상이다. 절충교역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통제하는 기술은 절대로 이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항공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품개발과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미리 미리 개발되고 입증되어야 하며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부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개발이 시작되다 보면 필요 부품을 양산물량까지 개발도 중 확보하게 되며 이는 양산 후 부품국산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소요가 적어 경제성이 없어 현재의 제도로는 국산화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되지 않으면 기술 보유한 만큼만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체계개발과 동시에 기술개발까지 하려면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게 된다.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활약

동아일보, 2022. 6. 7. 자 기사에 의하면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공군 현역 시험비행 조종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KF-21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소재 등으로 인해 제작사인 KAI 소속 조종사가 시험비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강하게 추진하였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책임 소재를 뛰어넘는 중요한 결단이다.

블랙이글스팀은 영국 리아트(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RIAT)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 38개팀이 참석하였는데, T-50B의 우수성과 탁월한 기량을 선보여 지난 2012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한번 최우수상(The King Hussein Memorial Sword)과 인기상(The ‘As the Crows Flies’ Trophy)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투기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요군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위치럼 첨단 전투기 개발을 위한 고비마다 대결단





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T-50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후배들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발전방향

T-50 기초 형상에서 파생된 FA-50을 단좌로 개조하고 그리고 엔진을 보다 강력한 F414-GE-400 엔진으로 교체하여 연료와 보다 많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한다면 보다 우수한 다목적 전투기(F-50)로 거듭 날 것이며 공군의 Low급 전투기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FA-50 경공격기 오는 9월 폴란드와 최종 계약을 목표로, 3조 4000억 원 규모(48대)의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7. 18. 파이낸스뉴스)

약 30년전인 개발 초기부터 설계하고 구상하며 개발하였던 T-50의 기본형이 드디어 전투기 형상으로 발전되어 수출하는 단

계에 이르렀다. 세계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우리 공군의 전력 보강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마무리 글

현재 개발 중인 KF-21은 F-50보다 한 단계 위급인 전투기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Middle급 항공기로 운용할 때 우리의 전력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 본다.

이제 우리 손으로 개발된 항공기의 부품 국산화를 서둘러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미래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발전시켜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가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세계 하늘에서 위용을 떨치기를 소원한다. ✈

공군박물관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대령 강창부(41기)
공군박물관장

1964년 7월 22일, 공군 창설의 주역이었던 최용덕 장군이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그날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공사기념관’의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1962년 2월 당시 학교장 장지량 소장의 지시로 추진되어 이날 개관에 이른 ‘기념관’은 학교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기념관의 설치 목적은 ‘공군의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여러 역사적 기념물, 항공과학 관련자료, 선배들의 업적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 보관, 진열, 연구함으로써 생도 및 일반 국민에게 공군사의 산교육을 제시하고 전통 수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군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공군사관학교 20년사』 p. 257). 개관 당시 진열품은 전사자들의 유품과 가족들의 사진, 복장, 마크, 제 증명서 등 100여 점에 불과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공사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정작 공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기념관의 이름도 분명 ‘공사 기념관’인데! 그리고…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공군사관학교에는 ‘공사 기념관’이나 ‘공사 박물관’은 없고 ‘공군박물관’이 공군이 운영하는 유일한 공식 박물관이자(아직은 미약하지만) 엄연한 국립박물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해방 이후 새롭게 모습을 갖추게 되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독립적인 공군의 창설을 꿈꾸었던 우리 선배님들은 그 꿈의 실현을 위해 2가지의 전략을 세웠다. 그 첫째는 단계적인 공군 창설 전략으로써 우선은 육군 내에서 항공부대를 창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공군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해방된 한국이 항공 전력을 갖추는 것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던 미군정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단계적 전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수립 후에도 제반 여



건이 매우 취약했던 국군 내에서 새로운 군종을 창설하는 과정의 지난함을 고려해보아도 그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두 번째 전략은, 항공기의 확보가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인재양성에 집중하는 전략이었다. 공군 창군의 선배님들은 미군정이나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나 ‘인재(항공인)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항공기만 제공해주면 된다’는 논리로 육군 내 항공부대와 나아가 공군의 창설을 놓고 설득과 항변을 거듭했다. 이러한 ‘인재양성 우선’의 전략은, 공군이 아직 창설되기도 전에 항공인재 양성의 요람인 사관학교를 먼저 설립하는 역사로 구현되었다. 그렇게 1949년 1월 14일, 비록 아직은 육군 소속으로 ‘육군항공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보게 되었지만,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의 독립적인 창설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되었다. 그렇게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공군의 역사에 선행했다.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공군의 역사 그 자체였고, 공군의 역사는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로 농축되었다. 적어도 공군 초기의 선배들에게는 공군사관학교는 곧 공군이었다.

1964년 7월에 ‘공군사의 산교육을 제시하고 전통수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관을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공군사관학교에 ‘공사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던 배경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공군의 가장 큰 어른이신 최용덕 장군께서 개관식에 가장 주요한 내빈으로서 임석했던 것도 그런 사연에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공군박물관의 역사도 공사기념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사기념관은 1973년 11월에 폐쇄되었다.

공군박물관의 역사에서 두 번째의 주요한 국면은, 1979년 3월 22일의 ‘공군기념관’의 개관이었다. 1978년 8월에 국방부의 정신전력 강화지침이 하달되면서 시작



된 기념관 건립사업은, 이듬해 3월에 (이번에도 다른 곳이 아닌) 공군사관학교의 학교본부 옆에 건평 200평의 기념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기념관은 효과적인 자료수집과 전시를 위하여 전역한 장병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한 끝에 개관할 수 있었다. 이후 1985년에 공군사관학교가 현재의 청주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기념관도 연건평 945평의 지상 2층 건물에서 ‘공군박물관’으로 개칭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현재 공군박물관은 공군이 운영하는 유일한 공식 박물관이자 국립박물관(2012년 등록)으로써, 총 2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군사항공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유물 중 6건(13점)은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공군사의 주요 유물이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급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공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한 일부라는 점을 공인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군박물관은 2022-2024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이후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1월말에 참모총장의 재가를 받은 발전계획에 따르면, 장차 공군박물관은 공군사 관련 유물의 수집·보존·전시뿐만 아니라 ‘공군사연구소’를 부설하여 공군사 연구의 실질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조직과 인원, 재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사실상의 공군중앙박물관으로써 공군 내 각 부대의 역사관 운영을 지도하고, 공군사 관련 각종 유물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협소한 공간 내에서 1층에는 공군의 역사를, 2층에는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각각 전시함으로써 그 어느 것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공군박물관에서는 공군의 역사만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는 별도의 공간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공군은 태생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전폭적이고도 헌신적인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 공군의 창설 과정에서는 현대전에서 공군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뜬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컸고, 창군 초기 T-6의 구입을 시작으로 방위성금헌납기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성금은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에서 고미바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최첨단 전력과 체계를 갖추어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공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국민의 신뢰와 후원은 변함없이 결정적인 힘이 되고 있다. 이에 공군박물관은 더



욱 더 국민친화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공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친화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동안 우리 공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으려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공군박물관의 발전은 병사를 포함하여 고작 7명에 지나지 않는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참모총장이 결재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실행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야말로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공군인’의 집중적이고도 부단한 관심과 후원이 있어야만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는 올바르게 보존되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공군의 원로들께서 공군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의사를 전달해 오신다. 더러는 당신의 유물을 전시해 주기를 진지하게 요구하기도 하신다. 관장으로서 그분들의 의사와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분 이해하며 그에 응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먼저 공군박물관의 열악한 현실을 먼저 살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국립박물관에 대한 인증평가제를 시행한 결과, 공군박물관을 포함하여 7곳이 국립박물관으로서 평가기준에 미달하였음을 고시하였다. 당시 주요 중앙언론매체들은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창피한’ 기관이라는 제하(題下)로 이를 보도했고,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대한 다음 인증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외람되지만, 공군박물관의 현주소는 공군의 역사보존에 대한 공군 현역장병들의 인식과 노력을 반영할 뿐 아니라 선배 공군인들의 그것 또한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공군박물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군 현역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예비역 선배님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날 공군에서 흘렸던 피와 땀이 어떻게든, 그리고 어디에든 흔적으로 남아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공군의 혁신 노력과 향후 과제



정경두(30기)
제46대 국방부장관

202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개인적으로 공군을 비롯하여 40년 가까운 오랜 군 생활의 소회들을 여러모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던 중, 내가 평소 존경하던 공사 총동창회 선배 임원님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현직에 있을 때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을 기고하게 되었다.

우리 공군은 창군 이래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명실공히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나는 제35대 공군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 70여 년간 우리 공군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역대 총장님과 선배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구해 온 ‘항공 우주군 건설’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이를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였고, 정책업무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 주요 핵심과제들을 선정해 나갔다.

첫 번째로 뽑은 우선과제는 한국형전투기(KF-21)사업의 국내연구개발 사업이었던

다. 오랜 기간 수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고 현재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한국형전투기(KF-21)사업도 중요하지만 늘 내 머리 속을 짓눌러 온 고민거리는 “격동하는 한반도 전략 환경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부합하는 미래 공군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가?”였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생각을 가다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스스로 얻은 해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T 기반의 「스마트 부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라는 숭고한, 그리고 공군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지 인근 주민들의 기지 이전요구 시위 등 근본적으로 해결이 마땅치 않은 만성적인 민원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공군 장병들의 낭패감과 사기저하는 심각할 정도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아울



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으로
서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군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최상
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겠다는 결심을 하
게 되었다.

그러한 고뇌 속에서 기획한 것이 4차 산
업혁명 IT 기술을 총체적으로 접목시켜 기
존의 부대 운영체계를 완전히 혁신시킨 이
른바 「스마트부대」로 변모시키는 것이었
다. 이런 나의 「스마트부대」 운영 구상은
즉각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지침으로 하달되
어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참모
진들의 노력으로 미래 공군부대 운영시스
템은 「ACE 비행단 운영계획」이란 이름으
로 착착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다. 이후 합
참의장, 국방장관으로 연이어 보직을 이동
하게 되었지만 나는 단 한시도 공군총장 시
절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스마트부대」
운영계획을 잊은 적이 없었고 언제나라도 전
군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사실 문재인정부 초기의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는 본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지
만 나는 장관 취임 이후 2019년 당시 기존
의 군사혁신(Military Transformation)을 뛰
어넘어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혁신(Digital
Transformation) 개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는 사명감으로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개념을 육·해·공·해병대 전 부대에 적
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우선 「스마트
부대」 개념을 국방개혁2.0 계획의 추가 과
제로 포함시켜 실행력을 높이도록 강조하
였다. 현재는 후배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
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적으

로는 매우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군총장 시절 참모들
에게 최초로 본 지침을 제시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군에게 부여된 모든 작전 임무
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IT 기반의 각종 핵심무기체계와 작전 및 부
대 운영시스템을 초연결·융합함으로써 항
공우주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
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예산을 운영
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적기에 투명하
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국방경영효율화를 도모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선배님들께서 구축해 오신 기존의
디지털비행단('10~'13년/10비 시범적용)과
스마트(1) 비행단('14~'15년)/11비 등) 계획
도 잘 발전되어 왔지만, 발전된 IT기술 전
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고, 각 부대별
구축 시스템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전 부대
의 작전·부대운영 시스템 연동체계 등 공
군 차원의 지휘통제체계 운영관리에 어려
움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규격화를 통
해 운영관리를 용이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넷째, 각종 무기체계와 전장관리체계,
자원관리체계 등 부대 운영시스템의 초연
결·융합 개념 적용 시, 사이버 해킹에 의
한 취약요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버 방호태세 유지에도 완벽

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민·관·군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분야의 발전된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Test Bed화하여 기술검증에 성공한다면, IT 강국을 기치로 내세운 국정과제 실행에도 우리 공군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서 최신의 「스마트부대」 운영개념을 민간영역까지 확장하여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발전시킨다면 우리 공군이 민·관·군의 Spin on/off 기술협력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본 개념은 I·C·B·M으로 일컬어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AI, 초고속 이동통신, AR·VR·Metaverse, 과학화 경계체계, 자율주행, 3D 프린팅, 퀀텀, 무인로봇·드론 등 유·무인 체계,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RFID, 블록체인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일컬어지는 IT 기반의 모든 기술들을 통합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스마트 지휘통제체계 및 전장관리체계 관리, 과학화 경계·감시 관리, 각종 자원(병력, 인사, 예산, 물자 등) 관리, 제한된 훈련장·사격장 여건 극복 및 교육훈련 관리, 시설물 관리, 주요 핵심 무기체계 및 장비의 정비 관리, 수송 관리, 환경·에너지 관리, 실시간 최신 기상정보 공유, 각종 재난상황 관리 그리고 완벽한 사이버 방호태세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개념을 정립하였다.

현재 공군은 지속적으로 IT 기반의 혁신 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하여, 항공우주작

전 수행체계의 지능화와 국방운영 환경 고 효율화로 완벽한 작전임무 수행 및 업무혁신과 전투력 강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하면서 향후, 공군 후배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군만이 가진 운영 노하우의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토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가치 창출과 이미지 제고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분야를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서의 독보적 존재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도 과거의 지정학 중심에서 기정학(기술정치학) 개념으로 동맹 및 우호협력 국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군 조직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본다. 즉,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가 최우선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작전분야에서 IT 기반의 첨단과학은 역시 '공군이 최고!' 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느 조직도 디지털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 가속화를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모든 조직이 경쟁적으로 우위 선점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공군이 국가안보의 핵심 군으로 국방을 견인해 나



가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작전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양질의 Big-data 구축, AR·VR·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교육훈련, 항공기 및 정밀유도무기 운영 및 정비, 그리고 암호·보안 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발굴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둘째, 공군부대의 구조적 이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장병의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한다. 즉, 우리 공군은 타군에 비해 IT 분야 교육 여건이 가장 용이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대 후 체계적인 디지털 신기술 교육체계를 적용하고 각 개인에게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다면 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미래 자기계발에 훨씬 유리하므로 복무기간이 다소 길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군이 디지털 인재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혁신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든지 공군 조직에 몸담고 싶어 하는 분위기로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IT 분야에서 훨씬 더 유능하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군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공군은 IT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질 인재를 얻게 되는 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공군 정원구조 상 부족한 인력의 해결 방안으로 로보틱스 및 무인화체계 구

축에 관심을 제고할 것을 강조한다. 전방 위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무기체계도 다양화하고, 운영 시스템도 복잡해진 현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려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논리개발이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병력부족 문제를 계속 충원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정책적인 정원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언택트 솔루션'과 '로보틱스'와 같은 선진 무인체계 관련 기술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단계적 무인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조속히 식별하여 무인화 Road map을 작성하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인력구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병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넷째, 「스마트 부대」 추진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IT 기반의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하고, 인원도 크게 확대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도래하는 AI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되, 확보된 전문 인력을 정보통신 병과로 한정 짓지 말고 전 병과에 확대 배치한다면 전 분야의 IT기반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고, 인력운영과 지원 측면에서도 우수한 미래지향적 인력 확보 및 배치 방안이 될 것이며, 공군의 각종 시스템운영체계

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보통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기간을 감안하면 벌써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것이라 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IT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향후 우리 공군이 국방 IT를 선도함과 아울러 표준·규격화 분야 등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한다면 공군의 존재가치는 드높아질 것이다.

한정된 지면관계 상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한다. 나는 현역 시절, 비행을 하면서 또는 부대 지휘관 재임기간 중 비행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과 갈등관리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후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영공방위 임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공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다소 허황된 꿈을 꾸곤 했다. 지금은 듣기 싫어하는 항공기 엔진소음이 언젠가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이어폰이나 헤드폰세트 같은 장비를 통해 듣고 싶은 음악으로 자동 변환되는 기술이 개발되고 현실화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우리 조종사들이 정말 마음껏 하늘을 누비며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는 꿈이었다. 디지털 혁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내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공군 사랑의 꿈이 멋진 현실로 다가오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軍人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마치며



원인철(32기)
제42대 합동참모의장

녹음방초(綠陰芳草), 나무 그늘 우거지고 풀에서 향기 나는 계절, 여름을 맞아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유시유종(有始有終),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1980년 2월 1일 공군사관학교에 가입교하여 사랑하는 동기생들과 함께 성무대 언덕을 넘으며 동고동락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2022년 7월 5일 제42대 합동참모의장직을 끝으로 정든 군복과 함께했던 42년 5개월 군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전역식을 가진 지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수십 년의 습관 때문인지 언제라도 군복을 입고 다시 출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의 소임을 마치고 전역 직후 그간의 소회와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37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던 2019년은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지휘목표로 무엇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창군 100주년을 바라보며 공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략적 수단인 F-35A의 전력화 추진과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의 정상작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B 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 될 천공의 성공적인 전력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25일 KC-330의 최초 해외임무인 6·25전사자 유해 송환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백신과 방역물자, 해외교민을 안전하게 수송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했던 글로벌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에 감개무량함을 느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재임기간 중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던 두 가지 분야는 항공우주력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공군사관생도들의 토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었습니다.

창군 100주년을 준비하는 ‘Air Force QUANTUM 5.0’의 비전과 로드맵을 완성하였고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우주력 발전개념을 가시화(Space Odyssey Project)함으로써 항공우주력의 도약적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에 있어 공중, 지상, 해양을 넘어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우주에 대한 관심을 전 군 차원으로 고조시켰습니다. 이후 공군의 우주계획인 “스페이스 오딧세이”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합참, 육군, 해군, 해병대의 우주발전 개념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특히, 4년간의 교육기간 중 주입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총 100회 정도의 토론수업을 진행하여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창의력과 융·복합적 사고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군사관생도들의 토론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개선된 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벌써 안보토론타회 등 각종 토론타회에 출전한 우리의 후배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한, 창군 70주년 기념행사와 ‘서울 ADEX 2019’의 성공적인 개최, 건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11전투비행단에서 거행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서 공군의 위용을 국민들과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으로 근무했던 1년 5개월의 시간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었던 공본 참모들과 공군 전 장병, 군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직을 수행하던 중 군령 최고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에 지명되어 2020년 9월 23일 오후 계룡대에서 공군참모총장 이임식을 마친 직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제42대 합동참모의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逢山開道 遇水架橋)”는 마음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군대’ 그래서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의장직을 수행한 21개월은 그러한 심정으로 쉽 없이 달려 왔습니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쏠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경계 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Fight Tonight 태세 하 접적 지역에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였고, 지속된 북한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 항공기·함정의 우리 관할영역 진입상황 등 어느 때보다 엄중했던 수많은 군사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습니다.



또한,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합동군사전략과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 군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력증강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전략서와 작전개념을 발전시켰으며, 합동 군사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하는 등 우리 군의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24시간 배틀 리듬을 적용하여 3차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미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를 완성함으로써 변화된 작전환경에서 한미동맹의 작전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대표로서 한미동맹 강화 활동과 우방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합동참모의장과 두 차례의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일 Tri-CHOD를 포함하여 前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現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인도태평양 사령관, 前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B. Abrams)/現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부임 초기부터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완벽한 팀워크를 유지한 가운데 동맹 현안에 대해 적시적으로 협의하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도전을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쉬움과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군의 군령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청해부대 34진 복귀와 22년 새해 첫날 발생한 동부전선 민간인 월북사건은 지금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 교훈을 얻고 더 강하고 튼튼한 군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신뢰가 더해지길 희망합니다.

합참의장직을 수행한 651일 하루하루를 돌이켜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소명을 다 할 수 있었던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안보정세는 매우 엄중하며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미완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접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우리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이 있어야 동맹도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과 같습니다. 적의 선의에 기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믿어야 하며 우리 군의 칼은 언제나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대와 안보 환경이 변해도 군과 군인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모두 많은 도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잘 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공군사관생도 생활을 시작으로 합동참모의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면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2년 5개월의 긴 세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국가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다했던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비록 몸은 군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군 그리고 국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원하면서 뜨겁게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2. 5. 31. 11전투비행단에서 아들 원중식 소령 등과 F-15K 마지막 편대비행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홍성표(28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I. 서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은 예상을 뒤엎고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3-4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석권할 것처럼 여유있게 불법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는 북부전선에서 보기 좋게 패퇴했고, 동부와 남부전선에서는 흑해로의 벨트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북부전선 카르키후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물리치고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목표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나토는 지난 6월 30일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만장일치로 초청하였고, 이를 승인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크림리아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개전 초 러시아의 항공폭격으로 여러 도심이 대량파괴 당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기들이 영공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서방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했지만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우려한 서방측은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대신, 폴란드의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하였고 폴란드에는 미국이 전투기를 대체 공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최신 대공화기 및 공격용 무인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의 방공능력을 급히 강화했다.

II. 우크라이나의 정세 변화

우크라이나는 오랜 역사와 국토면적 6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4천만명, 1인당 GDP \$3,727으로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다. 스탈린 시절인 1932-33년 홀로도메르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백만명이 아사 또는 학살당했고, 이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소비에트 정서 골이 깊어졌다. 우크라이나의 주력 수출은 식용유, 옥수수, 밀, 철광석, 철강 순이고 주로 중국, 폴란드, 러시아, 터키, 이집트 등으로 수출했다.

1991년 소비에트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크랍추크(Leonid Kravchuk, 1991-94) 초대 대통령이 친서방 노선으로 러시아와 결별을 추진했지만 1994년 선거에서 쿠치마(Leonid Kuchma, 1994-04)에게 패했다. 쿠치마는 집권 10년 동안 친러정책으로 일관했고, 대선에서 유쉬첸코(Viktor Yushchenko)에게 패했다. 유쉬첸코 시절은 혼란스러웠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차단으로 극심한 연료부족과 당내 갈등 및 의회 투쟁 등이 민심을 이반시켰고 개혁은 와해되었다. 2010년 대선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채 러시아가 지원한 야누코비치가 당선되었고, 그는 친러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적인 티모셴코 세력을 대거 구속시켰다. 2013년 11월 마이단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듬해 2월 보안군의 발포로 수백명이 사상했다. 비상사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다음 선거에서 블로지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패했다. 여섯 명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친서방과 친러 진영이 뒤바뀌면서 우크라이나는 걸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의 영토야욕이 가해져 불법침공이 강행된 것이다. 러시아는 크림반도까지 폭 100Km의 육상벨트를 확보하기 위해 돈바스 일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자 약 13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침공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정규군 20만 5천명이 자원민병대와 함께 방어전에 돌입하여 북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고, 돈바스 및 오데사 지역에서는 4개월이 넘도록 공방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경고하고, 유엔안보리를 즉각 소집했지만 러시아가 불응하자, 대신 유엔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하였다. 28일 100여 개국 대표가 토론에 나서 러시아를 규탄하였고, 3월 3일의 규탄결의안은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표의 압도적 가결로 채택했다.¹

IV.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

미국은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61억 달러의 군사안보지원을 제공했다. 군사지원은 주로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곡사포와 대전차미사일, 그리고 무인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4세트의 고기동성능의 로켓포시스템(하푼)을 비롯하여 36,000발의 155mm 포탄과 18대의 155mm 포 전술견인차량과 1,200기의 수류탄 발사기, 2,000기의 기관총, 18척의 연안 및 강변 경비정과 기타 부품 및 무기장비들이다.² 하푼 시스템은 특히 오데사

¹ 「한겨레」, 2022. 3. 3, p. 5.

² State Department, 'President Authorizes Another \$450m Drawdown to Support Ukraine,' in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072692/president-authorizes-another-450-million-drawdown-to-support-ukraine/>, (2022. 6. 30)



의 방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것으로써 러시아의 함대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다. 미국은 또한 막사 테크놀로지스의 고화질 영상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속 제공하여 군사표적들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전차, 곡사포, 탄약, 헬멧, 방호장비, 군복, 의약품 등 다양한 군수품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도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돕고 있다. 특히 체코와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국가로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도 그동안 견지해온 중립국 입장을 넘어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표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측의 군사지원

| 국가 | 무기장비 | | | |
|------|--|---------|-----------------------|-------|
| 미국 | Stinger 미사일 | 1,400 | Switchblade 드론 | 700 |
| | Javelin 대전차미사일 | 12,500 | Phoenix Ghost 드론 | 121 |
| | Mi-17 헬기 | 16 | M113 장갑차 | 200 |
| | 155mm 곡사포 | 90 | | |
| 영국 | NLAWs | 10,000+ | Sky Sabre 대공방어체계 | 수개 |
| | Javelin | | | |
| | Starstreak 고속방공체계 | 수개 | | |
| 체코 | T-72 전차 | 수십대 | 대공미사일 | 160 |
| | BVP-1 장갑차 | 58 | 박격포 | 4,000 |
| 폴란드 | T-72 전차 | 200대+ | Piorun 휴대용대공미사일 | 미상 |
| | 2S1 Gvozdika 자주포 | | 공대공미사일 | 수세트 |
| 캐나다 | M-72 대전차무기 | 4,500 | 수류탄 | 7,500 |
| | 장갑차 | 8+ | 155mm(M777) 곡사포 | 미상 |
| 독일 | Pbv-501 장갑차 | 56 | 대전차무기 | 1,000 |
| | Stinger 대공미사일 등 | 2,000 | Flakpanzer Gepard 대공포 | 50 |
| | PzH2000 자주포 | 7 | M270 MLRS 다련장포 | |
| 프랑스 | Long Range Artillery | 수백기 | | |
| 노르웨이 | M109 Howitzer | 22 | | |
| 호주 | M109 Howitzer 수십기, 총 \$91 Million Military Packages. | | | |
| 스웨덴 | AT4 휴대용 대전차무기외 | 5,000대 | | |

바이든 정부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안보지원은 총 80억 달러이다. 미국방부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패키지 중 제15차분 4억 달러의 무기장비 공여를 7월 8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 품목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 1,400기 이상 Stinger anti-aircraft systems
- 6,500기 이상 Javelin anti-armor systems
- 20,000기 이상 Anti-armor systems
- 700대 이상 Switchblade Tactical Unmanned Aerial Systems
- 126 155mm Howitzers and up to 411,000 155mm artillery rounds
- 36,000 105mm artillery rounds
- 126 Tactical Vehicles to tow 155mm Howitzers
- 22 Tactical Vehicles to recover equipment
- 12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and ammunition
- 2 National Advanced Surface-to-Air Missile Systems(NASAMS)
- 20 Mi-17 helicopters
- Counter-battery systems
- 수백대 Armored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s
- 200 M113 Armored Personnel Carriers(기갑차량)
- Over 10,000 grenade launchers and small arms(수류탄발사기 및 소총)
- Over 59,000,000 rounds of small arms ammunition(소총탄약)
- 75,000 sets of body armor and helmets
- 121 Phoenix Ghost Tactical Unmanned Aerial Systems(피닉스 고스트)
- Laser-guided rocket systems(레이저 유더 라켓)
- Puma Unmanned Aerial Systems(푸마 무인기)
- Unmanned Coastal Defense Vessels(무인연안방어선박)
- 26 counter-artillery radars(대야포레이더)
- 4 counter-mortar radars(대전차레이더)
- 4 air surveillance radars(공중감시레이더)
- 2 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s(하푼)
- 18 coastal and riverine patrol boats(연안용 선박)
- M18A1 Claymore anti-personnel munitions
- C-4 explosives, demolition munitions, and demolition equipment for obstacle clearing
(장애물제거 폭발장비)



- Tactical secure communications systems(전술보안통신장비)
- 수천개 Night vision devices, thermal imagery systems, optics, and laser rangefinders
-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services(상용위성영상정보)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protective gear(폭발물폐기보호장비)
-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protective equipment(화생방보호장구)
- Medical supplies to include first aid kits(응급의료키트)
- Electronic jamming equipment(전파방해장비)
- Field equipment and spare parts(야전장비 및 부품)
- Funding for training, maintenance, and sustainment(훈련, 정비, 유지 기금)

미국은 이외에도 필요시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협의하여 우크라이나가 국가방위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도 강화되었는데, 마이든 대통령은 4월 6일 러시아의 최대 금융기관인 스베르뱅크(Sberbank)와 알파뱅크(Alfa Bank)를 국제금융계에서 전면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내에서 이들 은행의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도 중지됐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신규투자 금지도 산업 전분야로 확대시켰다. 이번 제재조치는 G-7 및 유럽연합 등 30여 개국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였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무기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미 국방장관도 시비에로도네츠크 결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장거리 공격무기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³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또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9천만 유로(€)를 추가로 편성하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피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12억 유로 가운데 6억 유로를 집행하였다.

유럽연합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했는데, 유럽연합에 입국금지자 1,15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98개 기업체에 대해서도 기업활동 금지를 공표했다.⁵

6월 26일 독일에서 개최된 G-7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2027년까지 6,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추진할 것을 정상들이 합의하였다.⁶

³ *The Guardians*, June 16, 2022.

⁴ 'EU support to Ukraine: practical information: Timeline,'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stronger-europe-world/eu-solidarity-ukraine_en#timeline, (2022. 5. 12)

⁵ 'EU sanctions against Russia following the invasion of Ukraine,' i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stronger-europe-world/eu-solidarity-ukraine/eu-sanctions-against-russia-following-invasion-ukraine_en, (2022. 7. 12)

⁶ *NBC News*, June 26, 2022.

V. 전쟁 경과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은 동부와 남부 전선 모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소강상태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러시아는 돈바스지역의 완전장악을 위해 공세를 강화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전선에서의 전과는 그리 크지 않다. 간헐적인 미사일 오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탄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기세 좋게 북부, 동부, 남부 전선에서 일시에 진군을 개시한 러시아군은 북부 전선에서는 수도 키이우를 함락할 듯이 거세게 밀어부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보기 좋게 패퇴하였고, 동부전선에서는 돈바스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일단 도네츠크, 루한스크와 마리우폴 등을 장악하였다. 남부전선에서는 간헐적인 항공폭격으로 오데사를 공격하면서 겨우 교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세한 공군력으로 침공 첫날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공군기지 및 미사일 기지들을 공격했다. 2월 24일에 수도 키이우 인근의 추후이후(Chuhuiv) 기지를 공격하여 바이락타르 TB2와 연료탱크 및 비행장 시설들을 파괴시켰다. 첫날 항공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 레이더체계는 마비되었지만, 다음 날 우크라이나 공군기들은 러시아의 밀러로보(Millerovo)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2월 27일에는 러시아가 9K720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키이우 국제공항인 주토미르(Zhytomir) 공항을 공격했다.

3월 6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88대의 러시아 공군기들을 파괴시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공군은 저공으로 비행하다가 스텔저 또는 재블린에 의해 많이 격추되었는데, 피격된 Su-24와 Su-25가 대부분 그러했다. 러시아는 하루 200쏘티의 항공력을 운용했는데 주로 러시아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3월 13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훈련장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여 약 35명이 사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3월 18일까지 49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러시아군은 3월 2일 인구 47만 명의 아조프 해안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하였고, 9일에는 산부인과병원을 오폭하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3월 중순까지 민간인 약 2,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5일에는 약 2천대의 차량이 러시아군의 포위를 피하여 마리우폴을 탈출했고, 16일에는 러시아군의 항공폭격으로 도네츠크의 한 극장에 피신해있던 민간인 600명 중 30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3월의 마리우폴, 매니쉬와 북부전선의 부차, 체르니이후에서는 민간인 집단학살 매장소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3월 28일까지 마리우폴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약 5천명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민간인 집단학살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4월 6일 부차의 집단학살을 중대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



재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제재에서는 푸틴의 전 부인과 두 딸,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 무장관의 부인과 딸을 비롯해 러시아정부 핵심인사들의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4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수비대는 결국 항복했다. 하지만 일부는 자원해서 마리우폴에 남아 결사항전에 돌입했는데 한겨울 전기와 난방은 물론 물조차 끊긴 극한의 환경에서 저항을 지속하다가 5월 17일에 약 260명의 결사대원들은 결국 부상과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항복하고 말았다.

미국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전차미사일 재블린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1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 체코는 유럽연합국가로는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 T-72와 보병장갑차 BVP-1을 각각 5대씩 제공했다. 열차에 실린 이들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수송되었다.⁷

4월 13일 우크라이나는 R-360 넵튠(Neptune)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를 격침시켰다. 이는 막강한 흑해함대의 중심전함을 파괴시킨 전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15일 키이우의 넵튠미사일 공장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의 Su-27기도 Snake Island의 러시아군에 폭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약 70만 명의 병력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다.

5월과 6월은 양측의 포병전이 이어졌다. 러시아의 사거리가 긴 포 공격에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장사정포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방은 신중을 기했고, 러시아의 일방적 공세가 거세지자 마침내 미국과 유럽연합은 장사정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상에서의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간헐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공략하면서 돈바스지역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러시아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바스지역의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항구도시 마리우폴, 그리고 멜리토폴을 지나 커손에 이르기까지 폭 약 100Km의 벨트를 차지했고, 이는 크림리아까지의 육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서방은 G-7 및 NATO 정상회의를 통하여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으로 초청되어 참석했으며 러시아의 불법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7월 30일까지 양측의 피해는 아래 [표 2]와 같다. 민간인 사상자 수는 12,272명에 이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던 297만 명이 러시아로 이주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로 떠나간 난민은 약 8백만 명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23,367명이고 러시아군 사망자는 40,830명이다.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서 러시아는 5,754대, 우크라이나는 4,190대가 파괴되어 양측을 합하면 1만대가 파괴된 셈이다. 항공기는 러시아가 222대, 우크라이나가 261대 파괴되었다. 헬기는 러시아가 190대, 우크라이나가 145대 파괴되었고, 함정은 러시아만 15척이 손실되었다. 무인기는 러시아가 733대, 우크라이나가 1,644대, 차량은 러시아 2,889대, 우

⁷ BBC News, 2022. 4. 6.

크라이나 4,573대로 각각 추산되었다. 물론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하겠다.

[표 2] 양국군 피해 상황

| 국가 | 러시아 피해(우크라 주장) | 우크라이나 피해(러시아 주장) |
|--------|----------------|------------------|
| 인명 | 사망 15,000 | 사망 23,367 |
| 전차/장갑차 | 5,754 | 4,190 |
| 대포/박격포 | 906 | 3,217 |
| 다련장포 | 258 | 772 |
| 대공포 | 117 | 361 |
| 항공기 | 222 | 261 |
| 헬기 | 190 | 145 |
| 함정 | 15 | - |
| 무인기 | 733 | 1,644 |
| 차량 | 2,889 | 4,573 |



[지도] 우크라이나 전황(2022. 7. 27 기준)



VI.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우크라이나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러시아 권을 이탈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동유럽국가들의 일반적인 대세로써 이미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유지해온 인류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음은 외세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평시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여 러시아의 불법침공을 자력으로 방어하는데 실패했다. 인구 4,400만 명의 우크라이나는 겨우 20.5만명의 정규군을 유지했다. 이는 자주국방력의 중요한 척도인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0046%로써 한국의 0.0097%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서방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승리로 종결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효과적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축 체계를 완비하는 등의 자주국방력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방산제품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의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최근 한국산 FA-50 전투기 48대를 비롯하여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차 수출액만 10조원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3차 수출까지 합치면 약 25조원 규모의 방산거래이다. 폴란드에 이어 여러 나라들의 대표단들이 한국 방산시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평시 동맹관계의 중요성이다.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군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으며, 북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보기 좋게 격퇴시켰다. 이는 우리에게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늘의 국방현실을 감안하여 동맹 강화에 진력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



김철우(29기)
한국국방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미디어 환경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전쟁의 특징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 포인트로 설정한 이유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전쟁여론의 향배는 물론 군사작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전황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력에도 가변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바탕 위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 들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까지 전쟁에 개입하는 한편, 중국의 틱톡(Tiktok) 플랫폼의 위력까지 주목하여 전쟁보도의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전쟁보도의 주역이 TV 뉴스에서 소셜미디어로 대체되는 시대로 변모했음을 실증한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아직 전쟁의 최종 상태를 예단할 수 없고 여론전의 열세를 극복하

기 위해 반격에 나선 러시아의 조치도 균형감 있게 고찰해야 한다.

일찍이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거실(living room)에서 치러진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교훈을 도출한 바 있다. TV 매체가 전쟁의 참혹함과 장병들의 의미 없는 희생을 부각 보도함에 따라 반전여론이 견잡을 수 없이 퍼지는 체험을 했다. 종군기자들은 전투현장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과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전쟁지도부와 군사 리더들을 불신했다. 기자들이 작전현장이나 민간인 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취재하여 비판적 논조와 영상 이미지로 보도했다. 지상과 TV 뉴스가 전쟁여론을 주도했던 시대를 거쳐, 걸프전에서 ‘CNN 효과’가 등장하는 변화를 겪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방 당국이 언론의 취재보도를 통제·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직접동행취재(Embedding)와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수일 내에 항복하리라 전망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젤렌스키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결사 항전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소셜미디어가 여론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했고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급력을 증폭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과 언론의 관계에 혁신적 변화를 실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 빅테크 기업들까지 뛰어들어 강대국 패권경쟁의 대리전을 수행한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쟁지도부는 소셜미디어로 민간인 학살의 실상을 폭로하여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Battles for Hearts and Minds)'를 치열하게 벌인다. 이처럼 전쟁지도자가 이미지와 소통 역량 자체를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현상은 미래전에서 중시해야 할 포인트다. 하지만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었던 국제여론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맞물리면서 독일·프랑스·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의 행보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기도 한다.

이 글은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전쟁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위기 관리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디어 환경 변화가 전쟁뉴스를 알려주는(Informing) 기

능을 넘어서 전쟁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주는(Influencing) 변수라는 기본 인식을 깔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 환경과 그 영향력을 간파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관리와 전쟁억제가 어려운 시대로 변모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II.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 특징 분석

1.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명분 만들기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사회기반시설을 교란했고 개전과 동시에 지휘통신 체계부터 타격했다. 명백한 침략행위를 '특별군사작전'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여론전을 의식한 메시지였다. 작전 명분으로 내세운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비나치화, NATO의 동진 차단 등으로 집약되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흐름이 형성된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전쟁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전파되고 경제적 타격이 심화하면서 휴전협상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요구하는 휴전협상 조건은 우크라이나 NATO 가입 포기 및 중립국화,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 돈바스 공화국 독립 공식 인정, 러시아 통용 위상 명문화 등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푸틴은 에너지 무기화를 노골화하면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는 전술핵 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지

는 맥락으로 연결되어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함의를 내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푸틴의 전략적 선택을 실증하기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동향을 보이며 신냉전 질서로 재편되는 흐름이 식별된다.

2. 소셜미디어 활용한 항전의지 결집

소셜미디어는 정보 유통구조와 내용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모바일 통신이 생활화로 이제 소셜미디어는 전쟁의 참혹상을 알리는 전달자에 머물지 않고 국제여론의 틀을 형성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소셜미디어가 전쟁에 대한 사실·분석·주장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전쟁이다. 소셜미디어는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계형성과 정보 공유에 사용하는 도구다. 따라서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거나 흥미로운 내용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아가 전쟁에 대한 사실, 의견, 추정, 조작, 가짜뉴스까지 뒤엉켜 정보가 폭주하는 가운데 패권 경쟁의 구도에 부합하는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이 나타났다.

신냉전 구도의 진영대결 양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인 2014년에 4%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의 모바일 통신 가입자는 2022년 초

80%를 넘어선 상태다. 모바일 통신의 생활화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면, 여론전의 양상은 러시아측의 우세로 기울어졌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미디어 전사로 활약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충격적 영상으로 인해 패배주의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결사항전의 선봉에 나섰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미디어가 항전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모으는 무형전력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키이우를 향해 줄지어 이동하던 러시아군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줄줄이 파괴되는 현상이 공개되고, 러시아 장갑차 행렬은 당황한 듯 대열이 깨지면서 도망치는 모습까지 동영상에 담겼다. 이처럼 실시간 동영상은 상징적 국면과 연동되어 우크라이나 군대의 사기를 드높이는 효과로 연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는 세계 여론을 향한 메신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젤렌스키의 설득소통이 먹혀든 것은 전쟁 맥락에 적합한 맞춤형 메시지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메시지는 SNS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자국민의 항전 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서방세계 국가들이 반러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 각국의 정상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국 의회, UN, 한국 국회에 이르기까지 호소력 넘치는 스피치를 하여 세계적 지원이 이어지게 했다. 젤렌스키의 소



통은 푸틴의 행보와 현격한 차별화를 달성하며 전쟁 자체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특유의 맞춤형 메시지를 담아낸 젤렌스키의 동영상은 러시아가 퍼뜨린 가짜뉴스와 특수군사작전의 명분을 압도했다. 그가 개전 초기에 집중 폭격당한 방송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SNS를 이용하여 통수권자의 존재함과 결사 항전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메디언으로 활동했던 영상촬영 경험과 미디어 감각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이 미사일 공습을 당했을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참혹한 영상을 올려서 러시아의 만행에 대한 국제적 규탄 여론을 이끌었다.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일상화된 생활통신 수단을 통해 젤렌스키 본인이 직접 생생하게 전쟁 현장을 공개하여 러시아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심리전 활동도 전개했다.

젤렌스키 효과를 편파적으로 예찬하거나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지 못한 실패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설득소통과 맞춤형 호소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서방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기폭제가 된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젤렌스키 효과는 전쟁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전쟁판도 바꾼 머스크의 스타링크

개전 초기에 적국의 통신망을 공격해서

지휘통신과 정보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현대전의 기본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통신시설과 방송국을 공격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방송과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는 곤경에 처했다.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에게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확인 10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메시지로 화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머스크는 발 빠르게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 세트를 배송했다. 스타링크는 Space-X의 우주 인터넷 사업으로 위성을 통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이다. 전쟁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뛰어들어 위성을 통한 통신이 재개됨으로써 전쟁의 판도에까지 변화를 몰고 왔다. 위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복원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적 특징에 속하며 미래전 양상을 가늠케 하는 상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이 고효율 홍보기회라는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도주의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머스크의 참신한 발상과 신속한 조치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실증했다. 통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감시정찰 드론과 폭격용 무인기 조종을 위해 스타링크가 이용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드론

을 이용한 적기 식별은 물론 공격용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 탱크를 격파하는 성과로 연결한 스타링크의 군사적 효용성을 실증하는 셈이다. 이처럼 민간 IT 기술이 군사작전에 직접 활용되는 현상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력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스타링크에 한정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일 삭제 악성코드를 찾아내어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의 컴퓨터망을 복원시켰다. 메타(페이스북)는 우크라이나의 군장교와 유명 인사들의 계정을 탈취하려던 해커들을 적발하여 해당 계정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했다. 유튜브는 가짜뉴스 공세를 펼친 흑색선전 채널을 즉각 삭제하는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구글맵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우주기업들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정보를 제공하여 반격작전 수행을 도왔다. 소셜미디어와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유럽의 결정에 호응하여 러시아 관영 매체를 차단했다.

역풍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실증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방침은 검열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중지를 명령했다. 메타(페이스북)는 푸틴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에 대한 암살을 촉구하는 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침을 지속하며 맞서고 있다. 페이

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러시아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은 틱톡(TikTok) 스타들을 초대해 전쟁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여론전의 중심축이 소셜미디어로 이동했음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한 가짜 뉴스 대응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짜 뉴스 판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 개발까지 등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을 선언하는 듯한 가짜 동영상 SNS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있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눈을 깜빡이며 국가 문장이 그려진 배경 막 앞에서 국민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있다. 러시아 측이 조작하여 유포한 콘텐츠다. 인공지능을 통해 텍스트를 넘어 조작된 영상제작까지 가능하고 여론전쟁에 이용된다.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이 과정에서 조작된 콘텐츠가 횡행하여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전설적인 우크라이나 전투기 파일럿이 미그기를 타고 러시아 전투기를 여러 대 격추시켰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다. 키이우의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퍼진 짧은 비디오는 틱톡에서 2억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트위터에서는 930만 회의 조회 수를 넘겼다. 팩트체킹에 나선 전문가들은 키이우의 유령 같은 이야기는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



했고 동영상 중 하나는 전투 비행 시뮬레이터의 컴퓨터 렌더링이었다. 파일럿의 사진도 2022년이 아닌 2019년에 찍힌 사진을 퍼온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군부는 소셜미디어로 용병을 모집하여 사이버공격에 맞대응하는 'IT 군대'로 활용했다. 해커조직은 물론 드론 동아리까지 참여하여 52개국에서 모여든 2만여 명의 의용군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해커조직 어나니머스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도와서 러시아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글로나스에 대한 공격이 실행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의 국영 매체를 차별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이에 즉각 반발하여 광고 중단이라는 맞불을 놨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유튜브 비디오에 많은 광고가 붙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글은 러시아 내에서 모든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인 틱톡 역시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 관영 매체가 틱톡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처칠이 옛 소련 등 동구권의 폐쇄성·비밀주의를 빗대 쓴 '철의 장막'이란 표현을 인용해 러시아가 새로운 디지털 철의 장막을 쳤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당국이 해외의 언론·정보로부터 자국민을 차단하고, 국영 매체가 묘사한 대로만 현실을 인식하도록 해 러시아 국민을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III. 미래전 대비 차원의 전략적 함의

1. 전쟁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전쟁지도자의 행보는 뉴스가치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쟁지도자들은 변화된 미디어 속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동영상 등을 인식의 전쟁에서부터 승기를 잡아야 한다. 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media savvy) 역량이 전쟁지도부에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군사작전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정당성 확보와 명분 축적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제·메시지·이미지·행동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충하거나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목표 달성을 위해 공조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민간의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어 전쟁여론은 물론 전쟁 판도와 군사작전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전에서 민간 영역의 도움 없이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심화할 것이다.

2. 소셜미디어 전쟁보도의 부작용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 간 전쟁에서 SNS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전쟁의 진실을 들추고 참상을 알려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실시간 동영상이 범람하고 군사분야 유튜브 채널이 폭발하는 시대로 진화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증했지만 분명한 한계



도 드러냈다. 특히 가짜뉴스 내용까지 받아쓰고 퍼 나르는 매체들은 전문성을 잃고 가짜뉴스에까지 휘둘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대혼란 현상이 파생하고, 사실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기만정보까지 난무하면서 전쟁 자체에 대한 뉴스 가치가 약화되어 무관심 현상까지 파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반인륜적 현상조차 무감각해지는 폐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동영상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 전황 자체가 획기적으로 반전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서방과 러시아를 막론하고 국가 권력은 플랫폼을 통제하거나 합법적으로 압박할 기회를 포착했다. 러시아 측의 입장이나 소셜미디어를 역이용하는 측면도 균형감 있게 분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영어권 미디어들이 전 세계 여론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뉴욕타임즈, BBC, CNN 등도 취재보도의 관점을 러

시아에 대한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전문적 분석을 첨가한 콘텐츠가 부족한 문제도 거론된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변화가 전쟁보도와 국제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전쟁보도의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련의 정보유통 현상은 한반도 위기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언론 매체의 협조나 통제 수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정도로 정보유통 생태계 자체에 대변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보도를 외신이나 소셜미디어 정보에 의존할 경우 분석시각이 균형감을 상실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연합 대응조치로 대북한 도발 억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전략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구현하면 한반도 위기관리에 실효적 가치가 크다.

미래전은 소셜미디어와 다원화된 매체를 활용하면서 전쟁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언어, 상징,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동원할 것이다. 상대는 기만, 사이버 작전, 역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도부를 혼란케 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활동이 폭증하는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증되고 있다. 나아가 미래전은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과학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이버, 빅데이터, 로봇 등과 결합한 인공지능을 통해 적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촉발될 때는 국내의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매체별 속성을 활용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V. 결론

국가안보와 언론보도는 불가분의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 21세기에 글로벌 정보유통이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디어 환경이 다원화되어 사실, 추정, 의견에 가짜뉴스까지 뒤엉킨 전쟁보도는 통제할 수 없는 양상으

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을 모델로 삼아 돈바스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분단으로 휴전협정을 모색하는 논의까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그 영향력을 한미연합작전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연합 전략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한반도 위기관리와 전쟁지도를 담당할 리더들은 젤렌스키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안보 리더들은 달라진 미디어 생태계와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보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뼈저린 패착은 전쟁역지에 실패한 점이다. 젤렌스키 효과를 칭송하기 이전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유사한 불행이 촉발되지 않도록 전쟁역지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 환경변화가 군사적 위기고조를 넘어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으로 치달을 때 물고 올 영향력을 짚어보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진지하게 정립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증하는 치열한 여론전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와 대통령의 전략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강대국인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가 도전인 동시에 전략자산이라는 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





서울 ADEX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10. 17(화) ~ 22(일)
서울공항

www.seouladex.com



기획특집

Space Challenge

- 96 공군의 항공우주군 비전 정립 / 김광진(37기)
- 106 국방우주력 발전방향: 공군의 능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 최성환(42기)
- 114 공군 항공우주 분야 학술회의, 포럼 등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 이선호(61기)

공군의 발자취

119 공군 역사기념물 / 편집실



공군의 항공우주군 비전 정립



김광진(37기)
숙명여대 석좌교수

항공우주군의 비전

오늘날 항공우주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 조직인 한국 공군은 1949년 창군 이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군의 규모와 임무를 확대해왔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가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기치를 들고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시작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군에게는 지금까지의 성장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혁신 4.0 시대에 걸맞게 항공우주군 비전을 정립 시켜야 할 때를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공군은 창군 이후 단계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다. 1950년대가 6.25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공군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북한이 보유한 항공기 수와 능력 우위를 극복하고 대북 공군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투기 전력 규모 확대 시기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질적인 측면에서 대북 공군력 균형에 근접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심 지역 타격과 정찰 등의 전략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군력 구축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당시의 공군의 비전은 전략형 공군 건설이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미사일 방어, 우주 감시, 사이버 통제, 항공 통제, 공중 급유, 고고도 정찰 등 임무 유형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또한 이때부터 항공우주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주영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노력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 발간된 「공군 비전 2050」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공군이라는 공군비전과 함께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한국 공군의 변천 역사는 앞으로 품어야 할 중요한 비전 중의 하나가 국가 우주력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항공우주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공군이 국방혁신 4.0 정책과의 조화, 다양해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군사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국방환경 속에서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안보 위협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전통적 위협이 고조되어 있고, 과학기술 발전은 지상, 해양, 공중이라는 전장 영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방향으로의 전투수행개념 변화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공군의 항공우주군 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 요인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군은 이와 같은 도전과 기회 속에서 항공우주군의 비전이라는 목표(ends)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방법(ways)으로서의 공군의 핵심 역할을 식별하고, 그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means)을 갖출 수 있는 공군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때 공군의 핵심 역할과 발전방향 식별은 도전과 기회 요인과 관련된 공군의 잠재역량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공군이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도전과 기회라는 환경 요소를 살펴본 후, 공군이 지닌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우주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공군의 핵심 역할과 함께, 그 핵심 역할 수행에 필

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 시대의 도전과 기회

오늘날 항공우주군 비전에 대한 도전과 기회 요인의 하나인 안보 위협 중 글로벌 국제정세로부터 오는 것은 '강대국의 귀환'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표현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경쟁과 대결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는 경제전쟁 뿐 아니라 대리전 양상까지 보여주며 직접적인 대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만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직접적인 대결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양상은 우리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분쟁에 직접 연루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대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역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군사 전략도 핵무기 운용을 기반에 둔 군사전략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칠 것”이라고 하여 핵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2021년 1월초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추진, 초대형 수소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동 비행 전투부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전략핵무기 보유,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향후 전력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정치적, 외교적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실존적 위협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북한 역시 군사과학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발전을 근간으로 한 군사과학기술 경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경쟁 상황은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지능과 초연결로 구현되는 지능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초지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해 발전되고, 초연결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국방 분야에 적용할 군사과학기술로는 자율 및 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분야,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분야, 초고속 및 고위

력 정밀타격 분야,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분야,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분야,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분야,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분야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방부는 2016년에 핵심 기술 영역으로 자율학습체계, 전투원과 기계의 협업 의사 결정, 전투원의 작전지원, 유인과 무인 무기 체계의 작전수행, 네트워크 기반 자율 무기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현재 국방혁신 4.0 정책 속에서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과 국방 연구개발 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은 지상, 해양, 공중이라는 전장 영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방향으로의 전투수행개념 변화도 이끌고 있다. 이 분야의 군사교리 발전을 공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다영역 전투(Multi Domain Battle) 개념을 전영역 작전(All-Domain Operation)으로 성숙시키고 있는 중이다. 전영역 작전 개념은 전쟁 이전 단계 대처까지 포함하여, 전통적인 지상, 공중, 해양 영역뿐 아니라 비전통적인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전영역 작전 개념에서는 지리적 공간 영역에 정보와 사이버 영역까지를 포함한 통합 작전능력 발전과 함께, 효과적 전력 창출을 위한 여러 조직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때 전영역 작전 개념에서 전쟁 이전 단계의 대처를 강조하게 된 것은 중국과 러

시아가 각각 군사와 비군사 수단을 혼합하면서 전쟁 이전 단계에서부터의 다양한 개입으로 ‘기정사실화’에 의한 승리를 추구하려는 상황으로부터도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분쟁 전략은 정규 군사조직이 아닌 세력으로 전쟁 이전 단계에서 상대의 대비태세를 저하시키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군사와 비군사 수단을 혼합하여 정보의 무기화 등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며, 상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러한 회색지대 분쟁과 하이브리드 전략은 모두 전쟁과 전쟁 이전 단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정규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이전의 대처도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항공우주군 비전에 대한 도전과 기회 요인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한반도 이외에서의 분쟁 가능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군사과학기술 경쟁과 전장 영역의 확대, 전쟁 이전 단계의 위협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도전과 기회 요인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방태세와 항공우주군에게 어떤 역할과 능력이 요구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전과 기회 요인으로부터 한국 공군이 우리의 국방태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대답이란 곧 항공우주군 비전 달성을 위한 공군의 핵심 역할과

그것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추기 위한 발전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답은 지금까지 식별된 오늘날의 도전과 기회 환경에 관련된 공군의 잠재역량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한국 공군의 잠재역량

오늘날 한국 공군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과 기회 요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공군의 잠재역량을 찾아서 비전 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항공우주군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군의 잠재역량 식별이 중요한데, 오늘날의 도전과 기회 요인과 관련된 잠재역량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관련된 공군의 잠재역량이 구별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의 확장억제 공약과 함께 핵 사용시의 치명적 응징보복 위협과 핵·미사일의 성공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유효한 정찰·타격·방호 체계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때 응징보복 위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사용시 전략표적에 대한 즉각적이고 성공적인 응징보복 타격 방안이 필요한데, 이 경우 공군의 은밀침투와 정밀타격이 결합된 스텔스 항공타격 능력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리고 핵 사용 거부를 위해서는 핵 발사 체계가 무력화되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발사된 이후에는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적의 핵 발사 체계의 핵심 수단인 이동식발사대 운용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발사된 이후에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공군의 이동표적에 대한 탐지 및 타격 등 신속 표적처리 능력과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은 핵 발사 체계로 인한 이익 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공군이 지닌 은밀침투, 정밀타격, 신속 표적처리,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공군의 잠재역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전영역 작전 환경에서도 공군의 잠재역량이 구별될 수 있다. 오늘날 군사력이 활용되어야 할 전장 영역은 지상, 해양, 공중 등 전통적 영역 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라는 비전통적 영역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상,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영역을 포괄하는 전영역(All Domain) 작전 우세라 할 수 있다. 전영역 작전 우세는 지상, 해양, 공중이라는 전통적 영역에서 주도권 달성 노력과 함께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라는 비전통적 영역에서 전통적 영역에 대한 지원 및 영향력 행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전장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노력 전개를 통해 전영역 작전 우세가 확보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영역 작전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장 영역을 넘나들며 교차영역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해서 상대를 압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차영역 시너지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등의 비전통 영역의 활용 능력과 함께, 여러 전통적 영역을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달성된다. 이 경우 공중 영역은 지상, 해양, 우주 영역 모두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며, 사이버와 전자기파 영역과도 기능적으로 중첩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중우세를 시작으로, 공중 영역과 연결되고 중첩된 주변 영역으로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전영역 작전 우세 획득에 유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전장 영역의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 전장 영역의 우세를 우선 확보한 후 이것을 기초로 인접된 전장 영역으로 주도권을 확장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공중우세를 확보해줄 수 있는 공군은 공중 영역의 주도권 장악을 시작으로 하여 공중과 인접하거나 중첩된 영역으로 주도권 장악을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교차영역 시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중우세 확보를 주도할 수 있는 공군은 전영역 작전 우세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들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분쟁과 전쟁 이전 단계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공군의 잠재역량도 구별될 수 있다. 이때 공군의 잠재역량은 한반도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군사 분쟁 초기 단계의 대응과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 상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한반도를 넘어선 군사 분

쟁은 국가의 영유권이 미치지 않는 국제 공유영역(Global Commons)에서의 경쟁과 한반도서로부터 많이 이격된 곳에서의 국지분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국제 공유영역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영유권은 벗어나지만 안보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방공식별구역(ADIZ),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제 해상교통로(SLOC), 민간 항공교통로, 관련 우주 영역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국제 공유영역은 영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거나 경우에 따라 영토에 대한 위협 발생을 대비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간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제 공유영역에서의 국가간 충돌이 격화되거나 또는 한반도와 이격된 지역에서의 국가 이익의 침해를 동반하는 국지분쟁 발생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 운용의 특징은 경쟁 단계 상황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이익을 강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의 군사력은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운용되어서 위기관리와 확전통제를 달성하는 가운데 국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제 공유영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위기관리와 확전통제를 위해서는 원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여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현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군에 의한 원거리 신속 무력시위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지역에서 강압을 통해

국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확전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효과적인 무력사용과 함께 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방호해야 한다. 이 경우 공군의 정밀 타격 및 감시정찰, 정교한 지휘통제, 그리고 미사일 방어와 통합방공 능력은 강압과 확전통제를 위한 유용한 잠재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넘어선 군사 분쟁 초기 단계에서도 공군의 잠재역량을 찾을 수 있듯이,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에서도 공군 잠재역량은 구별될 수 있다. 전쟁 이전 단계에서는 정규 군사조직간의 공식적 충돌은 존재하지 않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군사 조직에 의해 자행하는 폭력과 위협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 간 충돌 현상과는 관계없으나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처가 요구되는 자연재해, 재난, 범죄, 감염병 등의 비군사적 위협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이전 단계 상황에서는 피해 증가와 위기관리 실패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군사적 방안들이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국제평화유지 지원, 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투원 후송 등의 요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때 공군은 해외 장거리 공중기동과 탐색구조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적시적인 수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 초기 단계와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대처에서 공군은 위기관리, 확전통제, 피해방지 및 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경쟁에서, 특히 우주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 경쟁의 무대에서도 공군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공군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군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와 본질적으로 친밀하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공군은 1980년대 국내 전투기 조립 생산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국산 항공기 개발 역사와 함께하며 국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깊게 참여해 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공군은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및 민간 산업체와 협업을 해 온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최근 군사과학기술 적용의 주요 무대이기도 한 우주에서 공군의 잠재역량을 찾아볼 수 있다. 공중과 우주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중과 우주를 넘나드는 기동에 대한 기술적 난관만 해소된다면, 공군은 공중 영역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기에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공군이 수행하는 주요 항공작전이 대부분 우주영역까지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사실 공군의 제공 작전과 공역통제 작전의 개념적 성격이 우주로 확장되어진 결과가 주요 우주작전 중의 하나인 우주통제 작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군의 공중 영역의 정보·감시·정찰(ISR) 작전 역시 우주 영역에서의 ISR 작전으로 확장될 수 있고, 공군의 미사일 방어작전은 기본적으로 우주 감시와 우주에서의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우주로의 전력투사 방법도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발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에서의 과학기술 경쟁에 있어서도 공중작전과 우주작전의 공통점과 공중과 우주가 연계된 작전 가능성이라는 공군의 잠재역량이 존재하는 것이다.

항공우주군 비전 달성을 위한 공군의 핵심 역할과 발전방향

지금까지 오늘날의 도전과 기회 요인과의 관련된 공군의 잠재역량을 식별하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항공우주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공군의 핵심 역할들이 도출될 수 있다. 사실 현재 공군이 맞이한 환경에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군사위협이고, 가장 유용한 기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항공우주군 비전 달성의 방법이 되어줄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영역 작전 우세 구현’과 ‘국방혁신 4.0의 항공우주 영역에서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공군의 핵심 역할이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핵심 역할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한 공군의 발전 방향은 도전과 기회 요인 속에 내재되었던 공군의 잠재역량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영역 작전 우세 구현’을 위한 공군의 발전방향으로는, 우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 다기능의 조화된 전력 건설이 식별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체계 다

변화와 함께, 미래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4차산업혁명에서의 첨단 과학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전력 건설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하이 로우믹스(High-Low Mix) 개념을 따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고가치 소수 전력과 현용 다수 전력의 조화를 통해 전영역 작전에 부합하면서도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달성하는 전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전력화까지 기다리기에 앞서, 그 이전이라도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용전력을 재조합하여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장착한 무인 전투기,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무인기, 고고도 장기체공 정찰용 무인기와 같은 생존성이 강한 전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영역 작전 우세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발전 방향으로는 정밀 무기체계의 복합적 발전이 있다. 이때 정밀 무기체계는 하드 킬 체계와 소프트 킬 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물리적 에너지에 의한 물리적 파괴를 달성하는 하드 킬 체계는 모든 종류의 표적에 대해 효과를 발휘한다는 특징도 있지만,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사용 제한이나 부수적 파괴 문제가 동반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비해 비물리적 에너지에 의한 비물리적 마비와 기능 저하를 추구하는 소프트 킬 체계는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상대에게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전쟁 이전 단계에서 확전통

제 효과까지 기대하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쟁 이전 단계에서 확전통제 효과 달성과 함께 첨단 고위협 체계의 마비에 적합한 소프트 킬 체계의 전력화를 증가시켜 정밀 무기체계의 다종화와 균형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밀 무기체계의 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 킬과 소프트 킬 무기체계의 균형과 함께 게임 체인저급 정밀 무기체계 연구개발 강화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군사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급 정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필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 중 게임 체인저급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극초음속, 지향성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과학,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 핵심 기술에 기반한 정밀 무기체계 개발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술의 실용화에 다가가고 있는 극초음속과 지향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게임 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극초음속의 정밀항법능력을 갖춘 유도탄을 활용한 정밀타격이나 고출력, 고에너지의 플라즈마와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발전은 상당히 진전되어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공군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영역 작전 우세 구현’에 대해 논의했는데, 또 다른 핵심 역할인 ‘국방혁신 4.0의 항공우주 영역에서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이라는 공군의 발전방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주로부터의 군



사적 지원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 속에서 전 영역 작전 우세를 위해서는 우주 영역에서 작전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주 영역 작전 주도를 위해서는 우선 지상 기반 우주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위성 활동 감시, 위성에 대한 위협 예측, 우주에서의 활동 감시 임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지·해 작전시 군사 위성을 운영하여 정찰, 통신, 항법,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와 같은 적시적 우주작전 지원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또한 레이저 요격, 탄도미사일 공격 등 적대적인 우주전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행위를 방해, 저지, 격퇴하여 우주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우주작전 능력을 구비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인력, 물자를 우주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상 및 공중발사체와 우주왕복이 가능한 비행체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임무들의 요구는 현재보다 우주 전력이 도약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도약적 우주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사일방어 전력과 항공 및 우주 겸용 전력의 발전에 기반하여 우주전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항공 및 우주 겸용 전력과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증강하여 항공전력과 우주전력의 균형을 달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방혁신 4.0의 항공우주 영역에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발전 방향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인력구조와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복무조건을 다양화하고 탄력적으로 개방하여, 군 복무 가능 인력풀을 확대하면서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모병제와 같은 미래형 병역제도 환경 속에서도 획득된 인력의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조건을 다양한 트랙으로 운영하여 군 복무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민군 경력의 동시 활용성을 증대시키면서, 복무조건 다양화와 함께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뉴타입 인력 소요를 지속 식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변화와 사회의 변천에 부합하는 직무분석과 병과 설계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인력의 획득과 함께 동시에 군 내에서 전문형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형 인재 양성은 군 교육기관의 교육체계 개선, 미래 우주군까지를 염두에 둔 우주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연합 및 합동작전 개념과 교리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전문가, 합동전력운영 전문가, 국방력 획득 전문가 양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결론

한국 공군은 창군 이래 무기체계와 조직의 확대를 거듭하며 성장을 계속해왔으며, 그런 가운데 항공우주군을 향한 비전도 발전시켜왔다. 최근에 발간된 「공군비전 2050」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공군이라는 공군 비전과 함께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의 도전과 기

회 요인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과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위협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방부가 국방혁신 4.0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급변하는 과학기술로 인한 군사과학기술의 경쟁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전장 영역의 확대와 전 영역 작전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전과 기회 요인 속에서 공군의 잠재역량들이 내재된 것이 식별되었고, 그 역량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응징보복과 거부 능력, 다양한 지역과 조건에서의 분쟁 대응 능력, 우주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등이었다. 그리고 공군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요인과 함께 관련된 공군의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우주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의 핵심 역할이 식별되어졌다. 그 첫 번째 핵심 역할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영역 작전 우세 구현이었다. 이 역할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발전 방향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 다기능의 조화된 전력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하이 로우 믹스(High-Low Mix) 개념에 입각한 고가치 소수 전력과 현용 다수 전력의 조화를 통해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력 발전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밀 무기체계의 복합적 발전도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하드 킬과 소프트 킬 정밀 무기체계의 균형적 발전과 첨단 과학기술 성과를 반영한 게임 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우주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역할은 국방혁신 4.0의 항공우주영역에서의 구현으로 식별되었다. 이 역할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발전방향으로는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방어 전력과 항공 및 우주 검용 전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우주전력을 단계적, 도약적으로 증강하여 항공전력과 우주전력의 균형 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다음 발전방향은 미래지향적 변화적응형 인력구조와 인재 양성으로 식별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복무조건과 인력 획득방식의 개선을 통한 군 인재 풀 구축과 함께 군내 교육기관과 교육체계의 개선을 통한 우주전문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인력과 미래전에 적합한 전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군이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별된 도전과 기회 요인과 공군 잠재역량에 기반하여, 공군의 핵심 역할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식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식별된 발전방향에 따라 능력이 구비되고, 그 능력을 기반으로 공군의 핵심 역할이 수행될 수 있다면 항공우주군 비전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방우주력 발전방향: 공군의 능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대령 최성환(42기)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1. 서론

우주영역은 우리 군이 구분하는 5개 전장영역 중 하나이며, 지상·해양·공중영역과 더불어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우주는 국가 우주자산의 생존성과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 우주와 연관된 위협과 위험요소에 대응하며, 필요시 적대행위 억제 등의 상대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우주를 향한 세계적 우주군사화와 무기화 행보가 급속해짐에 따른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주력 건설과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인해 반드시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명확하다. 본고의 작성목적은 상기 언급된 다양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군이 국방우주력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주위협 사례와 전사(戰史) 등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우주군사화와 무기화 추세 및 우리 군의 현황을 직시함으로써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군우주력 발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21세기 우주력의 의미, 패러다임의 변화

1957년 인류 최초로 우주영역에 오른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특정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우주개발시대가 시작되었다. 21세기 우주는, 민간우주기술의 도약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의 급성장으로 기존의 전통적 우주강국과 다수의 신흥 우주개발국의 경쟁과 협력이 확대되는 공간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쟁의 패러다임 또한 바꿔놓고 있다. <그림 1>



〈그림 1〉 21세기 우주력 의미,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 항공력의 척도가 많은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처럼, 우주력은 21세기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주력은 1991년 걸프전에서 정찰, 항법, 통신, 조기경보위성 등 군사위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용위성이 군사 작전에 활용되었던 사례부터, 1999년 코소보전, 2001 걸프전 및 2003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전영역작전의 핵심이 되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인도-중국간의 충돌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그림 2〉



〈그림 2〉 패러다임의 변화, 주요戰史에서

나.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

1967년 우주공간평화위원회(COPUOS)의 외기권조약(우주조약)은 외기권탐색과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주공간의 전유(영유)를 금지하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통적 우주강국과 신흥 우주도전국의 입장은 표면상으로는 우주조약 준수를 표방하고 있으나, 타국의 잠재적 공격행위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우주영역의 군사적 이용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이를 현시할 수 있는 우주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사례가 급증하

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주무기 개발과 보유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으며, 실제 타국 위성에 대한 전자·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

■ 외기권 조약(우주조약, UN COPUOS)

*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59년):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67년 우주조약 ~ '84년 달 협정



<우주조약 핵심내용, 67년>
 외기권(우주) 탐색과 **이용의 자유**
 우주 공간 전유(영유) 금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 원칙

표면상 국제 우주협약 준수 표방,
타국의 잠재적 공격행위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 정당화 추세

<그림 3> 패러다임의 변화, 우주이용에 대한 이해

다. 주요국 동향 분석

미국은 줄곧 우주패권국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19년 공군성 예하 우주군을 창설함에 따라 도전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림 4> 우주군 창설의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급속한 우주군사화와 무기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 이유이다. 반면, 우방국 및 동맹국과의 우주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국제 연합우주작전 등을 적극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 러시아와 중국 우주위협 억제, 우주패권국 / 도전국과의 초격차유지
- 6번째 군으로 미 국방부 공군성 예하 우주군 창설('19.9)
- 최첨단 우주공격무기 개발 등 우주 전 분야 선도

▶ 미 우주군은 미 공군의 우주전력, 조직, 운영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설



<그림 4> 미국 우주군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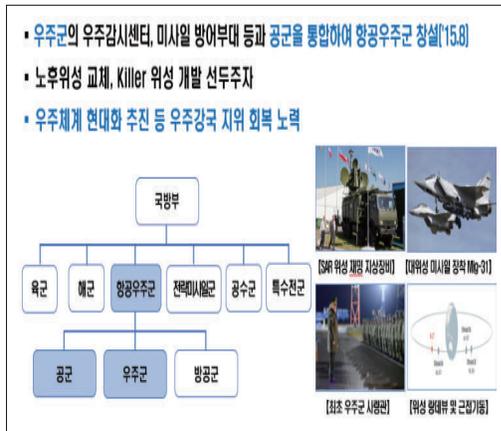
- 우주분야를 사이버, 전자전 분야와 통합한 전담 전략지원부대 창설('16.1)
- 미국 우주패권 견제위협 우주무기/전장화 추진
- 대위성무기체계, 레이저무기, 기생위성 등 우주무기 개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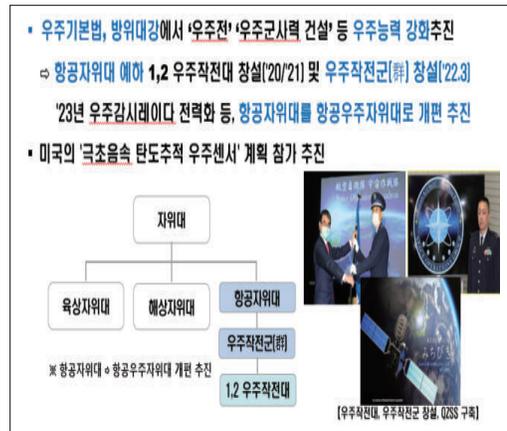
<그림 5> 중국 전략지원부대 창설

중국은 미국의 우주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우주무기개발과 시험 등 공식적 행보를 강화하

고 있다. 군사 조직면에서는 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통합하여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15년)하는 등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5> 러시아는 구 소련시절 우주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재도약에 집중하고 있다. 공군의 항공력과 미사일방어 기능과 함께 우주를 통합하여 항공우주군('15년)을 창설하고, 미국의 우주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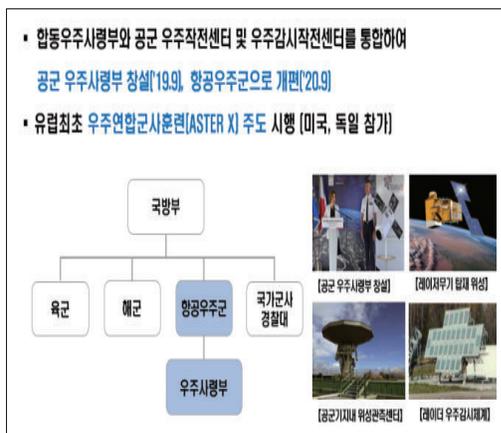


<그림 6> 러시아 항공우주군 창설



<그림 7> 일본 항공우주자위대 추진

일본은 '08년 우주기본법, '18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자위대의 우주사용 위우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를 공식화 하였다. 현재는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자위대 예하 제1, 2우주작전대를 창설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등의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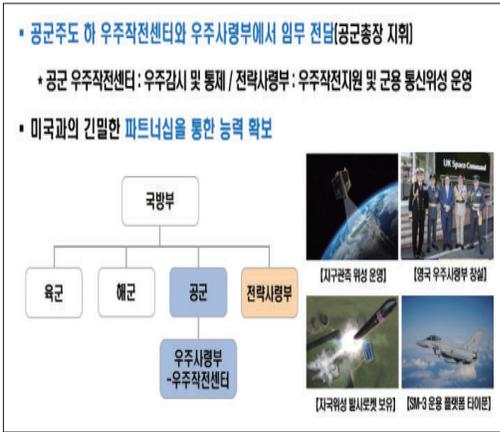


<그림 8> 프랑스 항공우주군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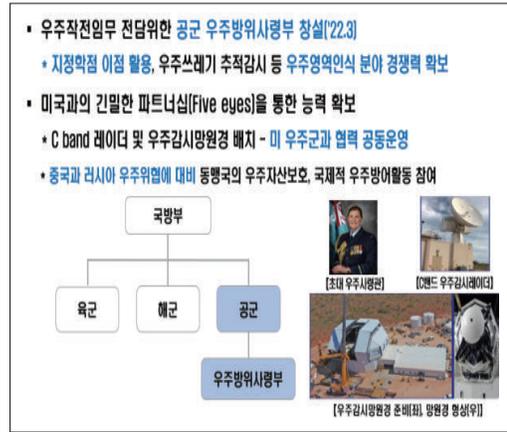


<그림 9> 독일 우주사령부 창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외에도 유럽의 전통적 우주선도국인 프랑스는 '20년 공군에 우주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항공우주군을 창설<그림 8>했으며, '21년 유럽 우주연합군사훈련을 최초로 주관하는 등 군사우주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그림 9>과 영국 역시 민간우주기술과 군사우주력의 강력한 민군협력을 기반으로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영국<그림 10>, 호주<그림 11>, 태국 등 신흥우주도전국은 최근 국제적 추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군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군 우주사령부(또는 우주작전본부)를 창설하여 본격적인 우주작전 수행여건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그림 10> 영국 우주사령부 창설



<그림 11> 호주 우주방위사령부 창설

라. 국방우주력 구축을 위한 공군의 노력

공군은 미래전에서 우주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30여 년 전부터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전투발전분야(DOTMLPF-P)로 구분되는 교리(Doctrine), 조직(Organization), 연습훈련(Training), 리더십·교육(Leadership & Education), 전력(Materiel), 인력(Personnel), 시설(Facilities), 정책(Policy)의 쏠 분야에서 유무형의 우주역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주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12> 특히 미 우주군을 포함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우방국과의 국제 군사우주협력 및 항우연, 천문연, 국과연 등 국내 우주전문기관과 우주개발과 안보의 공조성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 | | | |
|-------|---|-------------------|--|
| 교리(D) | '02년 우주작전 교리 제정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13, '21) | 리더십(L) - 교육(E) | 국내외 우주전문학위, 우주실무연수('00~) 군사우주분야 우주전문 교육과정 운영('22) |
| 조직(O) | '98년 최초 우주전담부서 신설 우주작전대 창설('19) 공군본부 우주센터 신설('21) | 인력(P) | 우주전문인력 양성, 전문직위 지정('08~) 쏠 신분대상 전문인력 확대('21) |

| | | | |
|-------|--|-------|--|
| 훈련(T) | 한미 우주통합팀('12~) 국제 우주상항초지 연합연습GS('17~) | 시설(F) | '15년 우주정보상황실 개소 - 한미 국방부 우주상항인식 MOU |
| 전력(M) |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등 전력화, 중장기 소요 8건 추진 중(~'30년경) | 정책(P) | 국내외 우주전문기관 협의체 구성('03~) 한공군-미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 신설('21) 민군, 공군우주력 발전위원회 출범('21) |

* DOTMLPF-P : Doctrine, Organization, Training, Materiel, Leadership & Education, Personnel, Facility, Policy

〈그림 12〉 전투발전분야(DOTMLFP-P) 별유무형 우주역량구축

마. 국가 우주안보를 위한 책임군, 우주공군으로 도약

1) 전영역 작전우세 달성을 주도

공군은 1990년대부터 약 30여년 간 우주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다양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적 국방우주력 발전에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우주력의 기본특성인 ‘속도, 고도, 거리’를 우주영역으로 확장하여 공·지·해 영역에서의 효과적 작전수행과 전영역에서의 작전우세 달성을 주도하고, 우주감시체계 등 우주전력을 운용하여 국가 우주자산의 활동을 보장하고 적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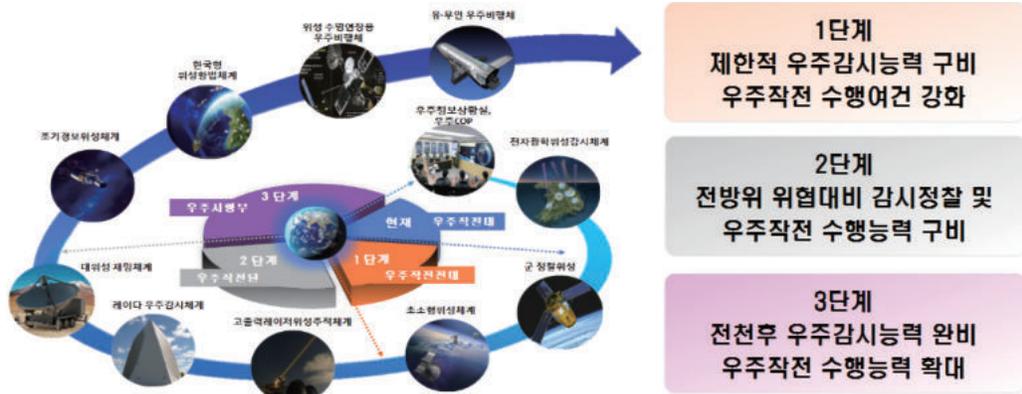


〈그림 13〉 우주작전 분류 별 전영역 작전우세 달성 주도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적용을 선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 추세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보에 필수적인 우주전력 소요(그림 14)를 창출하고, 미 우주군과의 파트너십 등 공고화된 국제 우주안보협력을 활용

하여 국가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군의 특성을 활용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한 민군 우주분야 기술협력 강화와 통합역량 발휘를 선도한다.



〈그림 14〉 공군우주력 발전 계획 (Space Odyssey 2050)

3) 국제적 군사우주분야 협력을 선도

대부분의 주변국은 공군을 중심으로 자국의 군사우주역량을 확충하고 있으며, 우주위협·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와 공조대응을 위한 국제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공군은 우주정보상황실,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초소형위성체계 등 단계적 우주 전력 구축을 통해 확보되는 우주작전 수행능력과 미 우주군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및 기 구축된 한미 연합우주작전 수행체계 등을 활용하여 한국작전전구에서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제고와 역내 다자간 우주 위협 및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우주공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15〉



〈그림 15〉 실전적 연합 우주작전 능력향상,우방국과의 우주작전 공조체계 강화

4) 정책적, 제도적 여건강화 추진

공·지·해 영역과 같이 우주영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군의 주임무를 규정한 국군조직법에서 우리 군이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군조직법 상 공군이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함을 항공우주작전을 주임무로 한다는 개정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주영역은 타 영역 대비 매우 광활하며,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등 특정 국가만의 능력만으로 생존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상통한다. 상호 능력의 공유 필요성에 근간하여 우리 공군은 우방국과의 공군대공군회의의 채널을 통해, 각국의 우주작전을 주도하는 공군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연합 우주작전 주체로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16>



<그림 16> 우주작전 수행 향상위한 여건강화

3. 결론

주변국의 능력발전, 우주위협 급증 등을 고려 시 국가 안보차원의 국방우주력 구축을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제한적이지만 공군이 구축한 유무형의 우주역량 인프라와 연합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전력발전과 작전능력을 구비하는데 집중하고, 능력에 부합 하는 우주작전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우주영역은 지상·해양·공중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가시적, 물리적 공간이다. 각 군에 지상·해양·공중영역에서 적 위협에 대응하고 작전을 수행하여 ‘지키는’ 책임이 부여된 것처럼 유사시 우주영역을 ‘지키는’ 책임도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군이 책임을 부여받고 우주안보 달성을 위한 우주작전 수행의 중심이 된다면,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연합 및 합동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1) Casey, B. et al. “Space Power, Space Capstone Publication”, US Space Force Doctrine, June 2020.
- 2) Hwang, Y. “ROK Air Force’s Role and Capability for strengthening Defense Space Power”,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Power, Vol. 9, Nov, 2021, pp. 229~267.
- 3) Harrison, Todd et al. “Space Threat Assessment 2022”,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April 2022.
- 4) Park K., Jung H., Hwang, Y., et al. “ROKAF Space Power Development Planning Handbook, Space Odyssey 2050”, ROKAF ASDW Space Division, May 2021.



공군 항공우주 분야 학술회의, 포럼 등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대위 이선호(61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2022년은 대한민국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 6월 21일, 우리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Korea Space Launch Vehicle)’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궤도에 안착했고, 지난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성과였다. 이렇게 모두가 우주력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의 항공우주력이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공군은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공군 내부에서만 연구에 그치지 않고 각계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력 확보에 대한 공군의 의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자문을 토대로 기반을 다져왔던 것이다.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해 그간 공군이 매진해 온 항공우주 분야 학술회의, 포럼 등의 역사적 변천과 그 의의를 살펴보자.

항공우주 심포지엄

1984년, 과학 문명의 발달로 항공우주 과학이 미래 첨단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상한 공군은 항공우주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산업 육성방안을 정립해 새로운 우주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84년 5월 17일, 역사적인 「제1회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항공우주 과학 기술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됐다. 우리 공군의 초청에 응한 미 공군은 항공우주 전문가를 연사로 파견했고, 한·미 항공우주 전



1988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군사관학교 성무회관에서 ‘2000년대의 공군과 항공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항공우주 심포지엄」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당시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년과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맨 왼쪽)와 패널들



공군우주센터가 개최한 「2022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주안보 세션에서 서현우 소령이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군 협업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기들은 '미래 전투기', '미래전에서 공군의 역할', '한국의 항공전략사상' 등 전문성 높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며 민·군·산·학·연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후 공군은 본 심포지엄의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주제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산업연구소, 국방관리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의견을 수립해 「항공우주 심포지엄」 확대 개최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발표보다는 토론 위주의 심포지엄으로 점차 발전했고, 항공산업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항공산업 전시회에는 대한항공,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국내의 여러 기업들이 항공기 모

형과 부품 등을 전시해 항공우주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내외에 인식시켜 항공우주 개발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최신행 전투기를 생산하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것과 달리, 국내 항공우주 산업은 낙후되어 있었으며, 각계의 관심도가 낮았던 시대에서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항공우주정책, 전략 및 전술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현재는 서울 ADEX(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와 연계해 개최되고 있으며,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를 향한 항공우주력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지난 2021년 10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권위 있는 학술토론 심포지엄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1990년대 말,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했던 공군과 연세대는 항공우주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학문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력 건설 논리를 공론화해 공군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고 항공우주력 확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군 전투발전단(現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연세대학교와 손을 잡고 1998년 “21세기 한국 공군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항공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8년 제1회 ‘항공력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 ‘공군력 국제학술회의’를 거쳐, 공군이 항공우주군 육성의 원년으로 선포한 2008년부터는 항공우주력 건설의 주체로서의 공군이 그 위상과 역량을 갖추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공군력 건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회의 명칭을 지금의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로 변경해 국가안보 및 항공우주 분야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회의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본 학술회의를 통해 지난 24년간 293명의 국내·외 연사가

21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20권의 총서를 발간하는 등 명실공히 항공우주력 학술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본 회의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국가안보 및 항공우주력에 대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였기 때문이다. 국내외 석학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비전과 성장 동력을 제공해 온 산실이자,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한 항공우주력 건설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그동안 학술회의에 참가했던 모든 이가 항공우주력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정책적 전략과 과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있기까지 공군과 연세대의 끊임없는 노력도 있었다. 공군과 연세대는 2006년 본 학술회의 운영과 연구자료 공유,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위한 합의를 정식으로 체결했다. 항공우주력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군과 연세대가 연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2012년 10월에는 원활한 업무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공군과 연세대가 ‘항공전략연구원 설립’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항공우주력 연구 기구인 ‘연세대학교 항공전략연구원’을 신설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항공우주전략연구원(Aerospace Strategy & Technology

Institute, ASTI)’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은 2013년부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의 주관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연구에 매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세계적인 항공우주력 확보를 위한 민간 차원의 정책 및 전략 연구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항공우주분야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신흥 우주개발 국가들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우주 경쟁에 나서는 지금, 우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우주 분야의 기술발전으로 우주력과 우주우세를 확보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인 만큼 국가의 우주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로 24회째를 맞



「제1회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에서 ‘공군 우주감시·정찰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최성환 당시 공군 중령(現 우주센터장)

는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

1980년 4월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선도국 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의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항공우주력 발전과 전력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분야 학술대회다. 공군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주안보 세션을 최초로 개최해 매년 두 차례씩 해당 세션을 주관하고 있다.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2020년 11월,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항공우주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에서의 우주안보 세션 개최는 공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군은 우주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분석해 우주영역에서의 주 임무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열린 우주 포럼

2019년, 공군은 우주력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군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



「Aerospace Conference 2021」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박용진 공군 중령이 '자율화 수준에 따른 저비용 무인기의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회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는 국가 우주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관·군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군과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방우주력에 대한 공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제고했으며, 국내 우주 분야 기술 동향과 발전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는 「열린 우주 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올해 11월, 「열린 우주 포럼」은 단독으로 개최되어 민·관·군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Aerospace Conference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관·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

기 위해 기존에 실시해왔던 항공우주 분야 세미나, 포럼을 통합한 「Aerospace Conference」가 2020년 처음 계획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던 만큼 공군-국민대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항공기 시스템) 발전 세미나, 민군협력 소요발전 세미나,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린 우주 포럼을 통합해 운영하려 했던 「Aerospace Conference 2020」은 아쉽게 취소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Aerospace Conference 2021」은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과 상생도약'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Aerospace Conference 2022」는 올해 9월,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Aerospace Conference」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 건설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해 각 분야별 소요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개최 취지에 맞게 이어질 것이다.

이 밖에도 공군은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 「공군-한국국제정치학회 간 공동 세미나」, 「국제 전자전 콘퍼런스」 등의 자리를 마련해 민·관·군이 끊임없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력을 선도하는 핵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

공군의 발자취

<기념탑/기념비>



강릉전적비
(1982, 강릉 통일공원)

6.25 한국전쟁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첫 단독 출격작전과 108명의 조종사가 7,851회 출격으로 평양 승호리철교 폭파 등 혁혁한 전과를 기념. 이 과정에서 산화한 11명의 조종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



공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기념비
(2001, 강원도 고성통일 전망대)

육군제1군단이 1952년 7월 10일부터 휴전 직전인 7월 18일까지 격전을 치른 351고지 전투에서 F-51 전폭기가 300회를 출격하여 긴밀한 공지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었음.



공군창군 60주년 기념탑
(2009, 여의도공원)

1949년 10월 1일 창군한 대한민국 공군은 여의도에 첫 비행단을 창설하였음. 2009년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담아 비상하는 모습의 기념탑을 여의도 공원에 건립하였음. 여의도는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에 따라 1,600여 명의 병력과 경항공기 20여 대로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비행단 부지로서, 1971년까지 20여 년 동안 공군의 최전방기지로 운영됨.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전 공군인의 이름으로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원대한 비전을 기리기 위해 본 기념탑을 건립.



성무탑 1
(1966, 서울 보라매공원)

1966년 4월 11일故 박정희 대통령이 본교를 星武臺라 명명하고, 공사 교훈인 智, 德, 勇 휘호를 하사하였으며, 동년 12월 20일 15기~18기 졸업 기념사업으로 하늘, 지도자, 오행을 의미하고 연무정신을 상징하는 성무탑을 서울 대방동 캠퍼스에 건립.

1985년 12월 이전된 청주 공사에 같은 모양의 성무탑을 건립.



성무탑 2
(1985, 청주 공사)



구)공군본부 주둔 기념 조형물
(1995,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의 발전기반을 구축한 구)공군본부 자리에 역사적 사실을 영구히 기념하고, 공군의 위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제공하여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애국애족의 호국이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5년 10월 10일 건립.



딘헤스 대령 기념비
(2017, 제주 항공우주 박물관)

한국전쟁 중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항공 수송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한국공군의 전투조종사를 양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이 단독작전능력을 갖추고 「승호리 철교 공중폭파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등 6·25항공전사에 빛날 혁혁한 전공을 세우도록 하는 데 기여함. 이에 대한 민국 수호와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 그리고 전쟁고아를 위한 숭고한 헌신 등 딘헤스 대령의 빛나는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



구)공군교육사령부 기념 조형물
(1995, 대전 보라매공원)

공군 기술장병 양성의 요람 및 발전의 역사를 상징하고 군사적지로서 의미부여와 공군의 조국수호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1995년 10월 1일 옛 공군교육사령부 터에 상징조형물 건립.

* 교육사령부 대전 탄방동주둔
: 1956. 8. 1. ~ 1988. 10. 26.(32년)

이상희 중위(당시 계급)는 1991년 12월 13일 오후 3시경, 광주 상공에서 F-5A4번기에 탑승하여 훈련 비행 중이었으나, 비행 훈련 중 3번기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가 제어 불가 상태에 빠져 광주 덕흥 마을의 밭에 기체가 추락, 순직함. 파편과 화재로 마을 주민 3명도 중화상 등 부상을 입었으나 사망자는 없었음.

이후 기체의 잔해에서 회수된 블랙박스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에 탈출을 결심했으나 민가를 확인하고,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유연을 남기고 탈출 포기 선언 후, 추락 직전까지 조종간을 잡은 상태로 추락해 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3세.



이상희 대위 기념탑
(2009, 성남시 야탑동 상희공원)

<공적비>



팔만대장경 수호 공적비
(2002, 합천 해인사)

6.25전쟁중에 탁월한 결단으로 우리민족의 성보 고려 팔만대장경판을 포화의 위기에서 구하고 휴전 후인 1954년 3월 34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전사한 김영환 장군의 공적을 기림.

<위령비/충령비>



호국영령 '위령비'
(1962, 경남 사천기지)

6.25전쟁부터 1962년 5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임무와 훈련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마흔 다섯분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비를 세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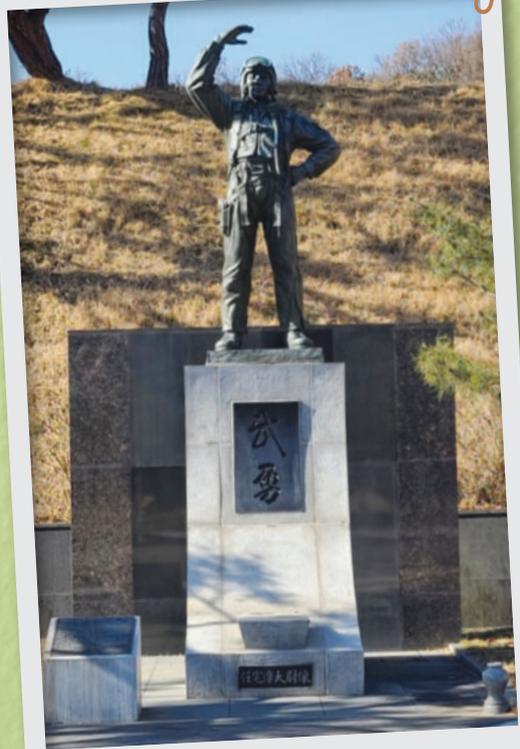


공군총령비
(1958, 경남 사천 선진리 성)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8년 9월까지 공군조종사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이근석 장군을 비롯 6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총령비를 세웠음.

<동상/흉상/기념관>

공사 출신으로 최초의 전사자이며, 조국을 위해 보라매 혼을 불사른 그의 희생정신을 후배들의 영원한 정신적인 귀감으로 기리기 위하여 공사 1기에서 33기까지 졸업생의 정성을 모아 1960년 3월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 청동 주물 동상을 건립, 1985년 사관학교가 청주지사로 옮겨오면서 공군박물관 옆 광장에 이전하였다가 2006년 12월 5일 눈에 잘 띄고 추모식 공간이 충분한 공군박물관 진입로 중앙으로 동상을 이전.



임택순 대위
(1985, 청주 공군사관학교)



이일영 공군중위 흉상과 추모비
(2001, 경북 안동)

6.25전쟁시 F-51무스탕 등 전투기로 44회 출격하며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을 고향인 안동시에서 기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2005, 대구 달성)



빨간 마후라 노래비
(2005, 대구 달성)



유용석 소령 흉상
(2016, 대구 달성)

유치곤 장군은 6.25전쟁 당시 203회 출격기록과 북한의 대 동강을 횡단하는 승호리철교를 폭파하는 하는 등 많은 전과 를 올렸으나 1965년 1월 39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

그의 장남 유용석 소령은 공사26기로 임관하여 수송기 조종 사였으나, 1982년 2월 제주임무 중에 순직하여 안타깝게도 아버지 유치곤 장군과 함께 순직 부자조종사로 공군역사에 남아 있음.

2005년 대구 달성군 비슬산 휴양림 아래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과 빨간마후라 노래비가 건립되었으며 그 후 유용석 소령의 모교인 대구 대륜고등학교 동문과 공사 26기 동기들 의 정성을 모아 유소령의 흉상을 건립.

아버지인 故박명렬 소령(공사26기)은 1984년 3월 14일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시 저고도사격임무 중 순직하였고, 아들인 故박인철 대위(공사52기)는 야간요격임무 중 순직. 부자조종사 흉상은 한국안보포럼과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의 군사세계 회원'들이 모금하여 2009년 7월 20일 공군사관학교에 제작, 기증하였음.



순직 부자조종사 흉상
(2009, 청주 공사)

6.25전쟁초기인 1950년 7월 2일, 이근석 장군은 F-51전폭기 10대를 직접 인수, 대구기지에서 출격하여 경기도 시흥지역에서 적 전차폭격 중 피탄되자 애기를 몰고 전차로 돌진하여 자폭함으로써 전사. 동상은 1953년 10월 2일 대구기지 정문앞에 건립.



이근석 장군 흉상
(1953, 대구 기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LIG넥스원이 시작합니다

국방분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의 개척자
민/군분야의 위성탑재체 국내개발 선두주자



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성무대 추억 리뷰

모교탐방기

130 요즘 모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 이두희(29기)

보라매공원 회고

136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 이준희(31기)

타임머신

142 공사신문으로 본 생도생활 변천

요즘 모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두희(29기)

물리학자에게 시간이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란다. 시간이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흐른다'고 인식하는 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또 변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라고 한다. 사계절과 밤낮의 차이가 없고 지금과 나중의 모습이 똑같다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춘다는 것이다. 시간이 무언가 변화하기 때문에 생긴 개념이라면 백년 전과 지금의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뜻도 된다. 변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년에 1학년 생도가 된 공사74기와 1977년 생도생활을 시작했던 예비역 29기 사이엔 반백년 가까운 격차가 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과연 74기와 29기 사이의 45년이란 시간은 생도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까? 그 막연한 추측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성무대를 방문하였다.



지금은 청주에 자리 잡은 성무대 정문에는 왕년의 전투기 F-86 두 대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이제는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그 비행기 곁을 지나면서 남다른 감회가 찾아왔다. 그 중 '837'이란 테일 넘버를 달고 있는 비행기는 내가 전투입문과정(CRT) 및 112전투비행대대에서 직접 조종했던 비행기다. 아마도 74기

생도에게는 까마득한 선배조종사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조종하던 역사 속 비행기일 것이다. 최근에 퇴역한 날렵하고 멋진 F-4, F-5도 있는데 굳이 1960년대 주력기였던 F-86이 학교정문에 하늘로 날아오르듯 서 있는 것은 전통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전통은 시

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과 피가 맥맥이 흐르는 정신으로 응결된 것이다. 백 마디 설명보다 낡은 비행기 두 대가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통을 말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졸업한 대방동의 그곳과는 달라 다소 낯설기는 했지만 정문을 통과하는 동안 성무대의 전통이 7월의 후끈한 열기와 함께 피부에 와 닿았다.



옛 발자취부터 돌아보라는 뜻이었는지 맨 먼저 박물관으로 안내되었다. 마침 공군 창군과 공사 개교 초기 공군인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카메라에 찍힌 소년 대한공군〉이 전시되고 있었다. 박물관은 시간의 흐름을 훌쩍 뛰어넘는 공간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45년 전의 대방동 사관학교로 날아갔다. 축소된 모형으로도 가지런히 잘 정리된 옛 학교본부와 교수부, 언덕 위의 생도 회관, 그 앞쪽의 교회, 언덕 아래 생도대 내무반 건물들이 꿈속처럼 아련하다. 비로소 내가 그리던 모교에 돌아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생도식당 뒤 둥근 아치 모양의 체육관도 보인다. 자세히 보니 아치형 지붕아래 3개씩 짝을 이룬 작은 점들이 보인다. 단박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조국과 겨레와 하늘에”라는 문구를 점 같은 글씨로 재현해 놓았다. 1976년 가을, 사관학교입학 체력평가 1,500m 달리기를 체육관 앞 흙 운동장에서 뛰었다. 그때 이 문구를 처음 보았다. 생도 시절에도 그저 멋있는 구호에 불과했지만 졸업 후 군 생활은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들이박히는 과정이었다. ‘조국’, ‘겨레’, 그리고 ‘하늘’이란 단어가 먼 우주공간에 별처럼 떠 있다가 내 가슴으로 날아 들어온 것이었다.

지금의 사관학교 곳곳에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보다 구체화된 이미지의 교훈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의 생도들도 나처럼 그저 보아 넘기는 구호에 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들 가슴에도 단어 하나하나가 아로 새겨질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관학교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다. 대방동 사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오르막 언덕 위 찬란한 모습으로 서 있던 성무탑, 언덕 넘어 삼거리의 임택순 동상은 나의 뇌

박물관의 타임머신에서 내려 가장 궁금했던 곳, 생도대로 들어갔다. 마침 나와 현재 4학년 생도 사이의 중간쯤 되는 49기 생도대대장이 안내를 하겠다며 기다리고 있었다. 09-27 활주로 라인이 선명한 점호장(현재는 명예광장으로 불림)은 넓었다. 모든 생도생활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과거 점호장은 인원점검보다는 서늘한 교육의 장이었다. 앞에서 있는 후배들은 선배들이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전전긍긍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까? 대대장의 말로는 선후배의 관계가 옛날의 엄격한 지도와 복종관계에서 보다 완화된 조언지도관계로 바뀌었다고 한다. 부모의 자잘한 몇 마디 잔소리에도 못견뎌하는 요즘 세대에게 어찌면 당연한 변화가 아닐까 싶다. 그래도 생도대 질서와 기강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선배에겐 강압적이 아니더라도 후배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전통적 권위를 갖고 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태라지만 성숙된 공동체 의식은 생도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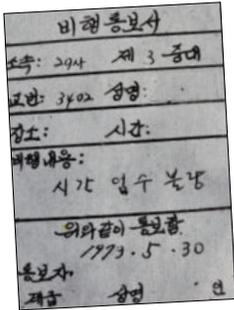
생활관 내로 들어서니 점호장과는 달리 복도는 좁고 어둡했다. 옛날 4인1실, 때로는 6인1실의 뻘뻘한 생활환경에 비하면 2인1실의 방들은 여유롭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소박했다. 집에서 혼자 쓰던 널찍한 방을 생각하면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룸메이트와 나누어 써야 하는 불편한 공간일 수도 있겠다. 철제 야전침대와 국방색 군용담요에서 목재 침대와 부드러운 이부자리, 1인용 소파, 여유로운 옷장과 책장 등이 옛날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거기에다 생도문화 중 꽃이라 여겨졌던 회식문화가 바뀌었다고 한다. '각1 계3(빵, 과자, 우유)'으로 통하던 내무실 회식이 방마다 설치된 냉장고와 외부의 배달음식 덕분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단다. 배고픔이 사라진 생도대, 지금 생도들의 주요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또 한 가지는 편지꽃이다. 피곤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길, 1층 중대계시관 아래 편지꽃이로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상이었다. 그리고 봉투입구가 개봉되어 있던 말건 1주일을 기다려 받은 답장 편지는 그 어떤 형태의 위로보다 강력했다.

언뜻 한 생도의 책장 위 커다란 고래 인형이 눈에 띄었다. 분명 옛날보다는 자유분방함이 엿보였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외부 일반대학의 기숙사와 비교해도 사관생도의 자긍심을 키우기엔 다소 낡고 열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인간이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이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생활환경으로의 개선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 생각했다.



대대장 방을 나서기 전 갑자기 떠 오른 것은 '벌점카드'였다. 생도생활 하나하나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단순한 이유는 바로 벌점카드 때문이었다. 한두 장의 벌점카드가 일과 후 특별교육, 주말 벌칙보행, 외출 제한, 내무점수 감점으로 연결되니 생도들에겐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벌점카드를 요구하는 훈육관이나 당직 선배들이 제일 야속하고 미웠다.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자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지만 몇 년 전까지 벌점카드가 살아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곳 역시 변함없이 '사람 사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도기간 중 나를 지배한 것은 관습이었다.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던 생도규정도 교육적이거나 합리성보다는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예비생도 메추리훈련 때의 직각식사가 그랬다. 절도 있는 식사예절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곳곳한 자세면 되지 왜 숟가락을 코 높이까지 올렸다가 입으로 가져가야 하는가. 아까운 국과 반찬을 줄줄 흘리면서도 박력 있게 밥을 먹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뎨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조금만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 곧바로 지적과 동시에 일으켜 세워서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니까 약삭빠른 결눈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생활이 그렇게 관습에 길들여져서 선배들은 목적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후배들에게 똑같이 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전통의 일부라고 믿었고, 선배가 된 이후엔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변화가 오히려 불편했다. 만약 지금 생도들에게 직각식사를 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현재는 당연하지 않은 그것이 변화일 것이다. 지금은 전 생도 뷔페식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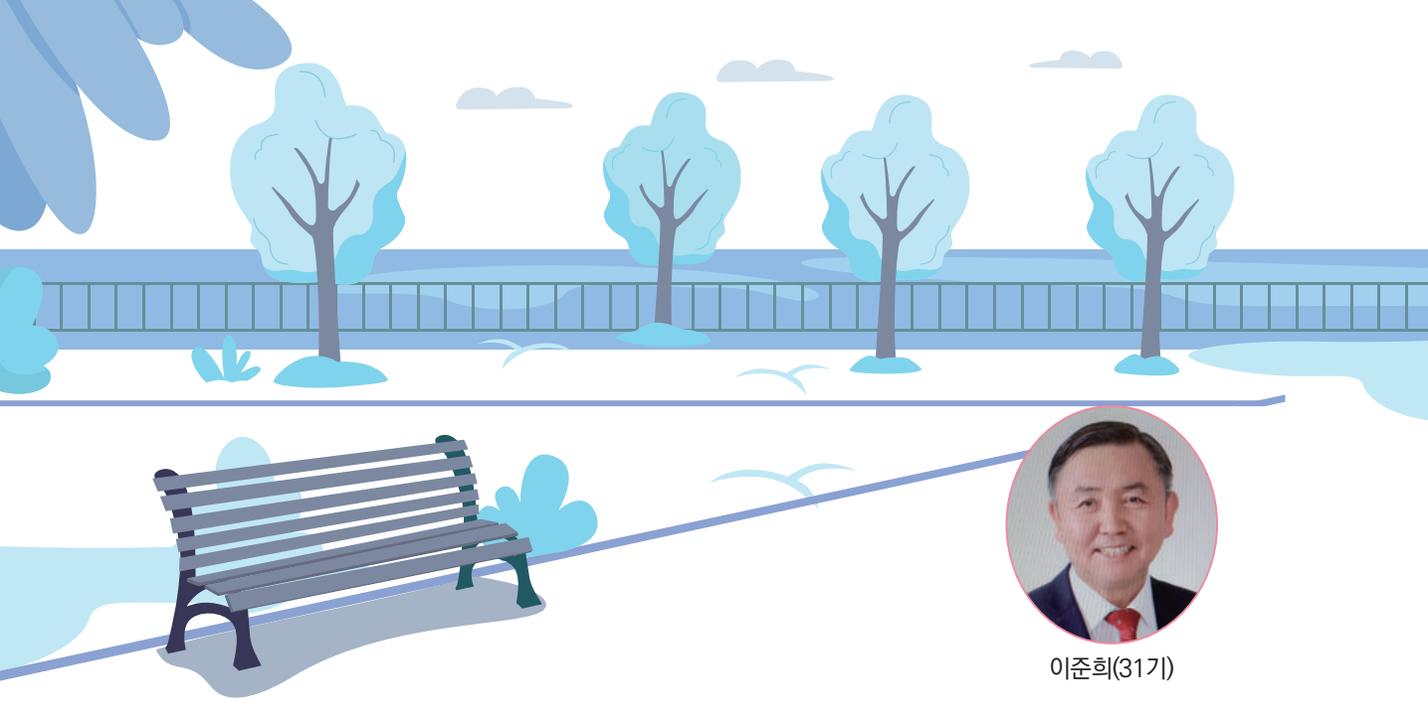
탐방 후기

탐방을 마치고 정문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보고 싶었는가? 못내 아쉬운 점은 학기말 하계훈련 일과가 진행 중이어서 생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충자료를 위해 찾은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오전 학과 오후 체육/군사훈련/자기계발활동으로 짜여진 일과시간, 목요일 오후에 거행되는 공포의 무용 구보, 1년의 마무리 성무제, 그리고 생도 의식, 명예 제도 등의 자료를 보며 하나하나의 정경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나간 45년이란 시간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다. 걸모습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그 취지와 정신은 전통의 맥으로 살아있어서 뿌듯했다. 엄청나게 변했을 것이란 추측은 선부른 선입견이었다. 오히려 너무 친근한 느낌이 들어 전통이 혁신을 가로막아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비록 사관학교의 교육목표와 존재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 흐름과의 괴리는 교내 모든 갈등의 근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생도들은 끊임없이 불합리를 찾아내고 그것에 저항한다. 때론 자기만의 불합리를 이겨내지 못해 퇴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합리에 대한 저항과 대응과정에서 학교는 발전하고 생도는 성장한다. 불합리가 없어진 생도대는 죽은 생도대이고, 저항하지 않는 생도를 요구한다면 그건 변화와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김한봉 생도대 제1대대장에게 한 예비역 선배의 당부로 남겼다.





이준희(31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 회귀 본능[回歸本能]으로 돌아본 「보라매 공원」

하천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 자란 뒤에는 알을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회귀본능[回歸本能]이라고 하는데,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가 연어이다. 연어들은 이름 모를 강 한 모퉁이에서 부화되어 태평양·인도양 긴 여행을 떠난 뒤 산란기가 되면 1,500km 이상의 기나긴 여정을 마감하여 귀소본능(歸巢本能)에 의해 물살을 거슬러 모천으로 회귀(回歸)하게 된다. 이때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지만 연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곳이 아늑함이 있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세상(新天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모천으로 회귀하듯이 필자가 대방동 공군사관학교(현 서울 보라매 공원)를 졸업(1983년)한 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남다른 추억이 많은 「보라매 공원」을 찾아가는 것도 회귀 본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육십갑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회갑(回甲)이 넘은 나이에 과거 사관학교 생도 시절을 회상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필자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 잡고 있던 공군사관학교(현재 보라매 공원)에서 무려 4년간이라는 젊은 청춘을 보냈기

에 보라매 공원을 거닐 때면 자연스럽게 옛날 생도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당시는 분명 힘든 시기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이라 그런지 그리워지기까지 한다.

눈 덮인 성무대 언덕을 걸어가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어

민족시인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속에 첫 키스의 추억을 날카롭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키스의 추억은 새로운 경험이기엔 인상 깊게 뇌리에 남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군 장교 출신으로서 공군사관학교에서의 생도 생활 중에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기억 중에 첫 번째로 꼽는다면 임시로 입교하는 가입교를 위해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딛던 날 인 것 같다. 중생이 출가(出家)를 하면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듯이 고교생 철부지가 '내 한목숨 조국과 하늘에'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숙명(宿命)처럼 받아들이기 위해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던 순간은 신선한 충격(衝擊)으로 뇌리(腦裏)에 남아 있다. 마치 휘날리는 공사생도들의 망토가 여인네들의 마음을 훔쳐가듯이.

좀 더 자세하게 그 시절을 회상(回想)해보면 공사 31기생이 가입교를 위해 성무 언덕을 걸어갔던 1979년 2월 1일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우 추웠고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 인솔하는 선배들을 따라 학교 내로 한발 한발 내디딜 때 눈을 밟으면서 나는 소리는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듯 나의 결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생도 식당에서 수없이 들었던 31기 기생 가인 '북경의 55일'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군화 발자국 소리와 어우러져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또한 성무 언덕을 넘은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설렘으로 뚜벅 뚜벅 걸었던 추억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공사인들의 삶의 모토와 생활의 지침이 되었던 공사 10훈(十訓)

공군사관학교 4년간 생도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Key Word)하자면 공사 교가에 나오는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와 공사10훈(訓)으로 함축될 수 있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이 말은 매우 간결하면서 공사인들의 삶의 모토와 사생관(死生觀)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다.



○ <공사인들의 삶의 모토>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이 구절은 생각할 수록 가슴 벅찬 공군사관학교 교가에 나오는 내용이고 공사 교훈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인데,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군사관생도들은 점호 시나 주요 행사 때에 교가를 부르고 또 불러 ‘하늘에 살다 하늘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공군사관생도들의 신념화는 물론 확고한 사생관(死生觀) 정립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푸른 제복을 입었던 공군이던 한 번쯤 이 구절을 읊으며 푸른 하늘을 보면서 공군 인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신의 일관(信義一貫)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등의 공사10훈(十訓)은 생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 보라매로 올바른 기상(氣像)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공사10훈(十訓)을 달달 외우게 된다. 과거 우리가 생도시절에는 심지어 못다 외우면 얼차려를 받게 된다. 그만큼 공사10훈의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공사10훈(十訓)에 담긴 오묘한 철학과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외웠고 10훈이 의미하는 바를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히려 푸른 공군 제복을 입고 장교로 생활하면서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왜, 선배들은 후배 메추리들에게 공사10훈(十訓)을 달달외우게 하여 몸으로 체득하게끔 무척 애를 쓰셨는가를 알게 되었다. 2022년 1월 11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5E 전투기가 갑작스럽게 추락하였는데, 추락한 원인은 노후 기체의 부품 이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심정민 소령(공사 64기)은 사고 당일 갑작스러운 기체 이상이 발생하자 민간인을 보호하려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야산에 추락해 순직한 뒷배경에는 공사 10훈(十訓)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심 소령은 자신의 안위(安慰)보다는 공사에서 배운 10훈(十訓)을 삶의 모범답안처럼 여기고 몸소 실천한 것이다.

○ <독수리의 비상(飛翔)>

진정한 보라매가 되려면 비상(飛翔)하기 위해 비행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공군사관학교는 ‘하늘의 사나이’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4년간 항공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2년간의 비행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생도 생활 마치고 초등, 중등, 고등 비행훈련이라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꿈에 그리던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게 된다. 하늘의 사나이 (고) 심정민 소령은 F-5E 전투기를 몰고 수원기지에서 이륙한 지 1분 여 만에 항공기

좌우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자 상부에 상황을 보고하는 등 침착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처하였다. (공사10훈(十訓) 7 沈着果敢하라) 그다음 단계에 심 소령은 긴급 착륙을 시도했지만, 조종계통에 문제가 생겨 기체는 말을 듣지 않고 급강하하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수를 야산 쪽으로 돌림으로써 가까스로 민가(民家)를 피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물론 상부의 지시를 성심복종(誠心服從)(공사10훈(十訓) 3)하였고 최후까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원시민을 구함으로써 책임완수(責任完遂)(공사10훈(十訓) 4)한 것이라 하겠다. 공사에서 배운 10훈(十訓)을 위기 상황에서 잘 적용하여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만들어 내었다. 심 소령의 인간승리 이야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투 기량이 뛰어나고 굵은일을 술선수범하여 신망이 두터웠던 것을 기본 바탕으로 공사 10훈(十訓)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몸으로 실천한 결과에서 나온 산물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위기의 순간에 조종간을 붙잡고 민가(民家)를 피한 고인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회자(膾炙)될 것이다.

본인은 문화일보(22.1.21)에 심 소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순직 순간까지 살신성인 실천한 진정한 전투조종사”)을 게재하면서 거룩한 죽음 뒤에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라는 공사 교가에 나오는 구절이 공사인들의 삶의 신조(信條)로 삼고 있었기에 가능한 점, 심소령이 민가(民家)에 피해주지 않으려했던 위민(爲民) 정신은 공사10훈(十訓)을 몸소 실천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려 했음을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러한 전투 조종사의 위국헌신(爲國獻身) 사례를 통하여 비행을 위해 지상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생명을 앗아 갈 수 있기에 선배들은 목이 터져라 강조했던 것임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남아답고 멋진 모습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그 누구인들 전투 조종사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인가? 하지만 나의 경우 일명 곰 발바닥이었기에 비행훈련을 떠났지만, 중도에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宿命)이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비행에 대한 동경심은 여전히 가슴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비행단에 근무할 때 일명 우동집이라고 일컫는 비행 통제소에 들어가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면 내가 전투조종사가 된 마냥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멋진 장면은 전투조종사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로 돌아올 때의 모습이다. 흔히들 남자의 가장 멋진 모습은 자신 일에 심취, 몰



입해 있는 순간이라고 한다. 석양이 질 무렵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검정 선글라스를 쓴 전투 조종사들이 임무 완수 후 귀환하는 모습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을 만큼 멋진 사나이의 기상이 느껴진다. V자 수신호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전투 조종사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당신들이 조국 영공을 지켜주는 덕분에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을 가슴속으로 외치는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었던 아련한 추억을 되새겨 본다.

추억이 서려 있는 대방동 「보라매 공원」

구 공군사관학교(현재 「보라매 공원」)는 메추리가 하늘로 비상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늘을 날기까지의 고통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인데, 1985년도에 청주로 옮겨갔다. 위치가 바뀌었을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校訓)을 비롯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에도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을 한 이들에게 청주 공군사관학교는 새로 지어져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에서의 이야깃거리가 없고 추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공원」은 명칭에 있어서 상징적인 공군 이미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서울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보라매 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체력단련과 재충전을 위해 쉬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그 장소에는 무스탕기, C-123 수송기, F-4 및 F-5 전투기들을 전시해놓아 이 공원이 왜 보라매 공원인지를 시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하지만 전시된 공군 비행기는 비둘기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되어가고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금기사항임에도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면 왠지 기분이 썩쓸해진다. 왜냐하면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을 했던 공사인들에게는 보라매 공원에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이제 과거의 추억들이 점차 훼손되고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보라매 공원」 내 산책로는 과거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던 연병장으로 훈련 중 선착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 추억이 서려 있다. 메추리 시절 추운 겨울에 연못에 들어갔던 기억들, 밥을 먹고도 곧바로 면회실에 가서 빵을 먹으면서 밥 배와 빵 배가 따로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던 기억, 수요일이면 저녁을 먹고 성무 연못으로 종교행사를 갔던 기억, 수많은 생도 생활 중에 겪었고 느꼈던 수많은 편린(片鱗)들이 소리소문없이 하나씩 매듭으로 이어져 이제는 그리움의 자취로 뇌리에 남는 것 같다.

맺음말

공군은 국가발전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6.25 당시에는 전투기 한대 없이 L-2 연락기 10여 대로 시작하였지만 미군의 도움으로 무스탕기(F-51)로 괴력을 떨쳐 제공권을 장악하였고 1970-80년대까지는 F-4 및 F-5 전투기가 주력기 였는데, 현재는 F-16과 F-15에 이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 전투기를 핵심 주력기로 보유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6.25 당시 미군이 북한의 보급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가 500회 출격했음에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그 임무는 대한민국 공군으로 넘어왔다. 1952년 1월 15일 당시 옥만호대위(제12대 공군 참모총장 역임)를 비롯한 선배 조종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1,500피트(약 450m) 최저고도로 불과 몇 차례 비행으로 성공,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도 뒤를 이어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공사교훈을 몸으로 실천하고 ‘빨간 마후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조국 하늘을 자랑스럽게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도 그러한 공군의 당당한 위용과 희생정신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변함없이 성원을 보낼 것이다. 6.25 당시 하늘의 사나이 빨간마후라들 전설적인 무용담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 쉬게 될 것이고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 죽고자 했던 공군사관학교 교가에 나타난 정의(正義)롭고 사나이 다운 정신은 앞으로도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예비역이 된 지금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공군사관학교여 영원(永遠)하라!!! ▶

F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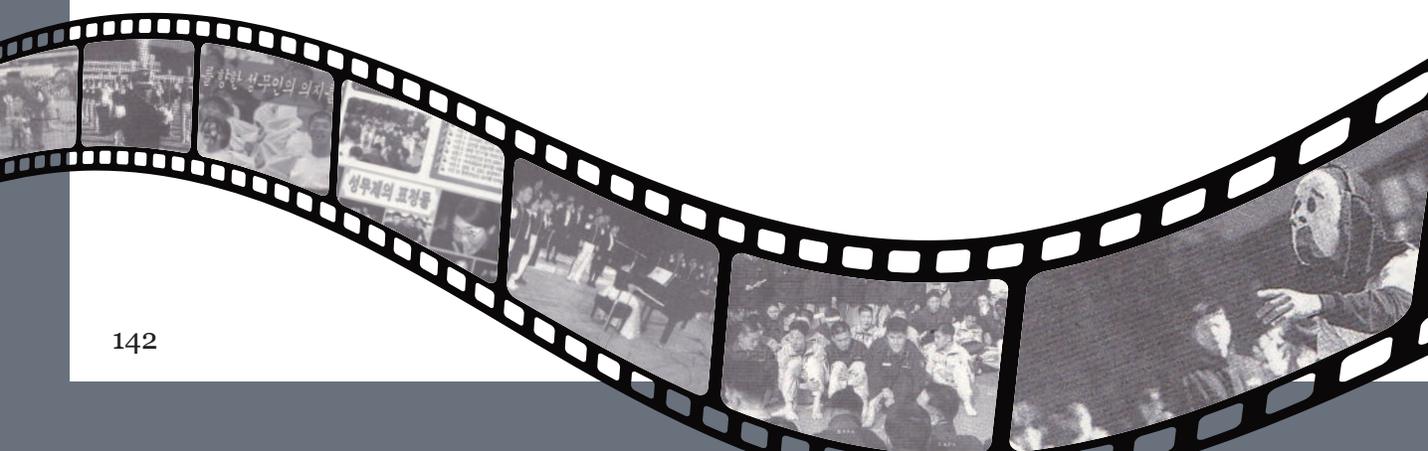
타임머신



공사신문으로 본 생도생활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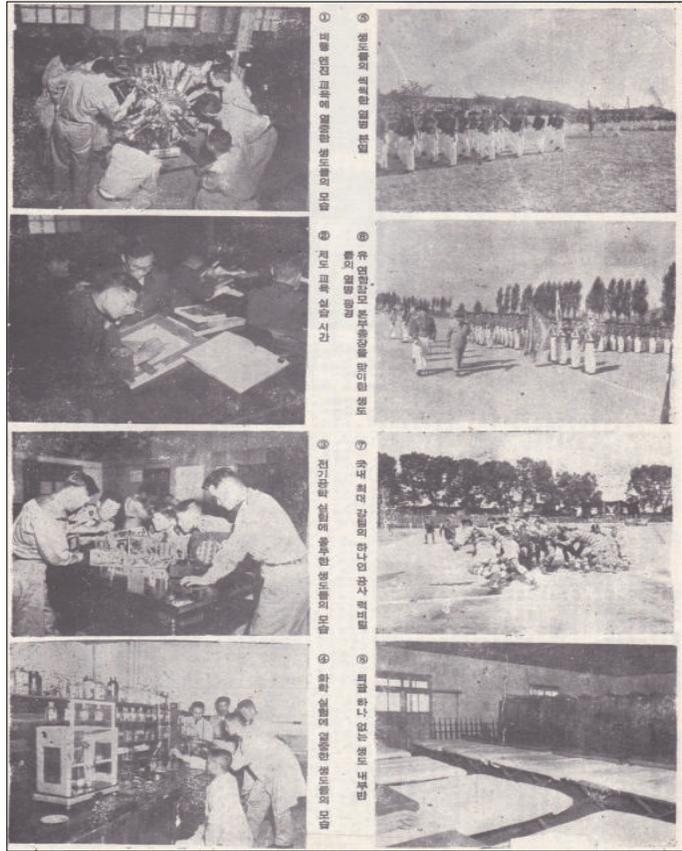


“뉴스는 역사의 창이라 할 수 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발행되는 「공사신문」은 그 시절의 공사의 주요 이슈와 뉴스를 담고 있으며 그 자체가 공사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957년에 창간되었으며 196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라 명명하고 친필휘호를 내리셨다는 기사 등 여러 가지 소식이 실려 있다.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사신문이지만 일부만 간추려서 게재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편집자 주>





▲ 공사신문 창간 기념 학교장 신상철 준장 기고문(1957.10.10.)



▲ 공사신문 2호에 실린 생도 생활 소개 사진기사(1958.1.10.)



▲ 공사신문 40호에 실린 박정희 대통령의 성무대 명명 관련 기사(1966.5.28.)



▲ 공사신문 28호에 실린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우승 관련 기사 (1963.11.11.)

一. 『머리서 발끝까지 찢어진 軍人이었다.』

각 소대별로 敎官, 助敎 各 한 명씩 敎育을 맡게 되었는데 매우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졌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오매도단 사귀어온 친근감이 감돌았다.

부여단장님의 특전부대 소개, 空軍과의 관계 등에 대해 說明을 듣는 동안 그렇게도 졸리던 學科 編은 남의 일같이 생각되었다. 夕食後에도 日程에 없는 PT세조가 계속되었고 食事問題에 있어선 작년의 「열천우우주」이란 말이 생겼다. 밥이 많이 흐르니 열분 섭취량이 그만큼 많아져서 소름을 그냥 먹어냈다.

〈陸軍特戰團 留營장에서 의절타기를 하고 있는 생도들〉



▲ 공사신문 94호에 실린 유격훈련 소감을 다룬 기고문(1976.8.27.)

그것에서도 질 수 없는 한 치의 빈틈이 보일 수 없었다.

「PT와 점프 속에 뱀처럼 戰友야……」하고 소리높여 부르는 敎官이 생긋이 웃으며 PT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아직 PT가 힘이 들지않는 모양이군요……」

목요일에 접어들면서 訓練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침 驅步에서 나타났다. 맨은 6km驅步인데 구보하다 트레킹, 포복 등이 수시로 계속되었다. 지르자 말라는 화이팅 口號를 크게 질렀다가 그만 제2포복으로 도랑을 건너 가는데 敎官이 「입 하수도로 해서 저쪽 구멍으로 나온 것」하며 指示를 내렸다. 그 하수도 구멍 쪽으로는

步를 생각해서 발을 높이 들고 갔었다. 우리의 行列이 지나간 곳은 도랑이 깨끗이 정리되고 있었다. 손에 미꾸라지가 잡히기도 했으나 심복한 기본에 얽문 부러웠다. 이글거리는 7월의 태양이 머리 위에 있었지만 더울리가 없었다. 앞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개구리가 죽어 반듯이 누워 있었다.

당초 軍靴를 적시지 않겠다는 생각은 安易한 착각(?)이었음은 곧 드러났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물 속에 담근채 지나갔다. 다시 칠푼이며 는쪽깎을 뛰어 空艇遊擊場에 도착했다. 그 霧圍氣가 더욱 몸을 시리게 했다. 수도가에서의 일이다. 대강 흙을 털어내라는 指示가 있자 너도 나도 그곳으로 뛰어갔다. 나는 조금 뒤에서 뛰어갔다. 너무 한꺼번에 물러가는 것이 처음부터 豫感이 이상했다. 급기야 助敎가 생도들에게 호수줄을 풀이대고 물러가는 가운데를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괜히 겁쟁은 助敎에게 뛰어 올라가 호수줄을 빼앗아 同期生들의 얼굴에 뿌리며 한 마디 내뱉었다.

「건망지게 -」
열국 내 얼굴의 흙은 닦지도 못하고 더러운 소매자락으로 문질러 버렸다. 어찌되었든 쉬운 訓練을 받고 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죽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뱉은 대답이었다. 대대장님께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계시리라는 생각 뿐. 制動裝置를 립없이 잡았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助敎의 動作과 비슷하게 되었다. 着地하자 助敎가 하는 말이 「잘 했습니다.」 타워를 오르는 계단에서부터 쓴 철모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助敎들의 몸통이 더욱 세차게 철모를 때려냈다. 「지옥 열라대왕이여!」 쓴 落書도 눈에 띄었다. 우리 이전에 陸軍의장대 訓練兵이 示範을 보였던 생각이 났다. 차마 스스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뒤에서 미는 힘에 떨어지는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다. 싫었다. 가르쳐 준 대로 힘차게 발을 차고 배리자. 무거운 힘으로 어깨를 당기자 발은 低空에서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은 시원했다. 그러나 한 번 더할 때는 두려움이 더했고 다른 생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단체트라이, 그것은 訓練이 재미있다고 자기 차대를 무시하고 나가는 생도들이 많았다. 나도 몇 번이고 하고 싶은 慾望을 抑制할 수 있는 그런 偉人은 아니었다. 夜間演習法 實習이 있었고 아무런 事故없이 全生徒는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

줄다리기 경기는 特殊한 技術을 必要로 하지 않으면서 大衆이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固有의 運動? 공사 무용기 쟁탈전에서 보는 줄다리기만은 特殊하다.

성자! 영자! 소리에 맞추어 힘의 분배는 물론 참여자 全員の 協同과 團結力의 調和가 이루어져야만 勝利의 幸福을 잡을 수 있는 경기이다. 물론 뜻먹은 힘까지 다내어 겨우 이기는 경기이지만……

4. 士官生徒의 特典

일단 士官生徒로 入校를 하면 敎育에 必要한 모든 費用을 國費로 충당해 줍니다. 授業料와 宿營은 물론이며, 각종 費, 敎料費, 심지어 노보와 필기구까지도 支給이 됩니다. 每月 약 3만원의 용급과 연간 400%의 상여금 정도 지급이 됩니다. 士官生徒는 일체의 경제적 憂念에 구애없이 오로지 學業과 心身연이에 全精力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피 줍니다. 四年間의 生徒生活이 끝나고 卒業과 동시에 轉校로 일관되면 大部分의 轉校生은 이제껏 갖고 닦은 그들의 기량을 늘고 푸른 하늘 위에 마음껏 나팔을 울려 볼 수 있는 조종사가 됩니다. 轉校生은 장차 個人의 能力과 精神에 따라 飛行기 및 砲台기 등 여러 가지의 자기 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空軍大學, 國防大學, 空軍大學, 國防大學 等 上級 敎育機關에서의 敎育과 아울러 國內 및 國外의 大學 및 研究機關에 派任되어 自己能力에 따라 上向의 經驗院을 할 수 있는 機會가

있을 한층에 반하여 하늘을 向한 飛翔의 意欲과 夢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全國 各地에서 모인 優秀한 人才들을 祖國과 民族을 守護하는 防壁으로 키우기 위하여 組織化된 敎育 訓練과 敎授院, 그리고 敎育施設을 갖추고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할 탄탄의 基礎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念頭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空軍 士官學校를 志願함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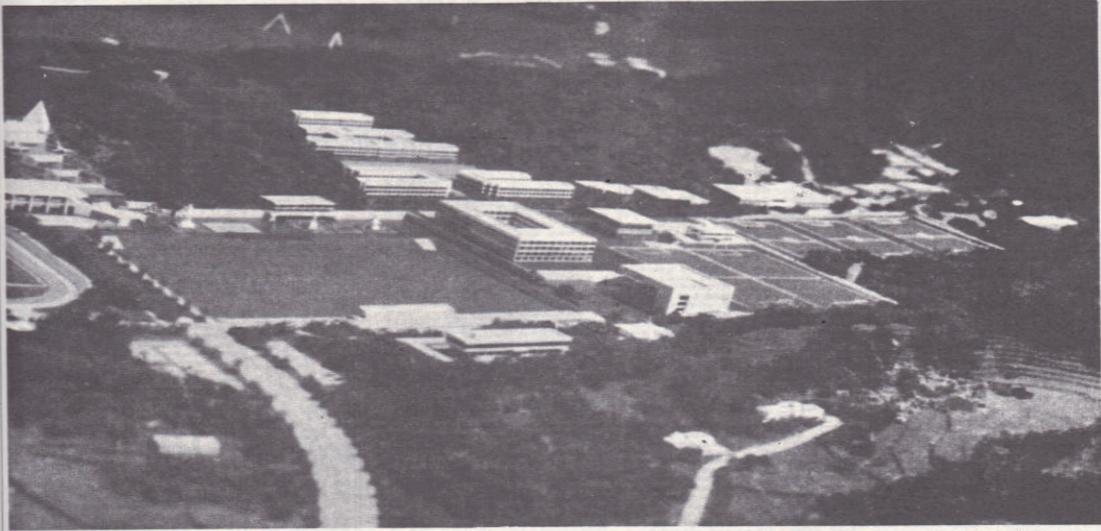
보였다는 一時的 衝動等에서 오는 뚜렷한 信念이 目的意識없이 나락으로 안락한 個人의 欲心을 充足시키려는 豪勢나 態度가 空軍士官生徒로서의 高尚한 目標과 깊은 使命感을 감당할 수 없다는 事實을 깊이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志願하려는 受檢生 여러분은 보다 穩固한 基礎를 築고 굳건하게 築아지

좋은 기계를 충분히 펼쳐 볼 수 있다는 豫言하는 바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理想을 갖고 두드려야 그려질 열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偉용을 내딛고 祖國의 榮光을 내 힘으로 지킨다는 國家와 民族의 守護者로서 神代의 使命을 부여하는 必經의 道의 大業에 다 함께 뛰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신문 113호에 실린 무용기 쟁탈전 중독 소개 기사(1979.7.14.)

▲ 공사신문 94호에 실린 '수험생들을 위한 공군사관학교 훈련 소개' 관련 기사(1978.7.31.)

공군사관학교 신기지 이전



21세기의 공군과 항공우주시대의 주역들을 육성·배출하기 위한 원대한 발전계획 아래, 공군사관학교는 이번엔 최신 설비와 시설을 갖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신기지로의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그 힘찬 응지의 날개를 힘껏 펼치게 되었다.

▲ 공사신문 156호에 실린 학교 청주기지 이전을 다룬 기사(1986.2.10)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한층 발전하고 성숙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

무대에 오르기 위한 설레임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 뿐인 것을
당연한 것인줄 알면서도
우리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백치 같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 공사신문 183호에 실린 성무제 준비 관련 기사 (1989.11.23.)

▷약혼녀 : 까다로하요.
▷기자 : 그래도 좋습니
까?
▷약혼녀 : 그래도 좋아
요. 성실하니깐...

▷기자 :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졸업장을 받을때 소감은?
▷졸업생 : 4년동안의 모
든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기자 : 부모님께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외쳐 보십시오.
▷졸업생 : 어머니! 해
내었습니다.

▷기자 : 졸업식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던 일은?
▷졸업생 : 글썽요. 졸업
식 연식이 아닐까요. 무언가
를 풀내고 간다는 기분으로
입했습니다.

▷기자 : 친구에게 축하말
씀을 드린다면?
▷친구 : 상당히 힘든 과
정을 겪은 친구에게 축하를
하며 입관해서도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
어요. 그리고... 하여튼 께
어냈다는 것이 대단스러워
요.

▷기자 : 연락이 잘 달
지 않아 친척간에 서로 만나
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이외
에는 괜찮았어요.

▷기자 : 아드님에게 입관
을 축하하며 한마디?
▷학부모 : 글썽요. 좀 더
훌륭한 공군이 되었으면 합
니다.

▷기자 : 4년 생활동안 평
소 성취은 어떠한지요?
▷학부모 :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평소는 활발해도
어떤 일을 할때면 침착하고

느끼시는 점은?
▷교관 : 나가서 골똘하게
살고 불의를 보고 대항할 수
있는 자세가 신입장교의 자
세가 아닐까요.

▷기자 : 작년, 재작년 플
일식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보이신다면 어떤 점입니
까?
▷교관 : 참 자유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국제적
분위기를 가미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이외는
학교 특성상 편함은 것 같습
니다.

▶편집
생도기자 정영수
강한태

▲ 공사신문 179호에 실린 「졸업식장 이모저모」 中(1989.4.19.)



▲ 공사신문 255호에 실린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출전 관련 기사(2001.10.6.)



공사신문 256호에 실린 성무제 사진기사(2001.12.10.) ▶

국내최초 항공우주 체력 단련장 ACE CENTER개관

지난 4월 14일(월), 황원동 공군사관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생도 항공체력단련장 'Ace Center' 개관식을 가졌다.

항공체력단련장은 사관생도의 항공 체력 증진을 위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립이 추진되었다.

항공체력은 전투 조종사가 공중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 체력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유산소성 운동능력, 근력·근지구력, 공간지각능력으로 구분된다.

이날 개관식을 통해 앞으로 생도들은 개인별 운동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체력 분석·치방 → 개인별 운동프로그램

황원동 공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참모가 Ace Center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를 케팅하고 있다.

체력단련장은 총 면적 3,917㎡(0.200평)의 공간에 웨이트트레이닝 훈련장, 공간지각 훈련장, 전자식 컴퓨터 체력 측정/분석실, 체력 data 자료실 등 생도들을 위한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날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랩 계곡 → 수준에 맞는 체력단련 → 평가 →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 맞는 맞춤형 항공 체력단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사 항공체육과장 김근수(39, 공사 39기) 소령은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체력조건은 매우 특성화되어 있어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개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오늘 개관식을 통해 앞으로 생도들은 조종사가 되는데 필요한 체력조건을 함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예 조종사 양성에 기초가 되는 만큼 공군의 역할을 키우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된 항공

▲ 공사신문 287호에 실린 ACE CENTER 개관식 홍보 기사(2008.6.3.)

생도 예복 40년 만에 개선 기능과 디자인 측면 중점 개선

약 40년 만에 공사생도 예복이 개선됐다. 1970년 대를 마지막으로 예복은 수십 년간 바뀌지 않고 전통이 되어 내려오다 올해 61기 생도들의 졸업식을 계기로 변신의 과정에 들어선 것.

지난 10월 예복을 개선하고자 4개의 안을 놓고 검토를 했으나 기존예복보다 호중도가 낮아 예복 깃털과 크로스 밴드 탈부착이 번거로운 점, 예복에 바래미가 보이지 않아 부끄러움은 어지럽고 하계 등재 혼용이나 여름엔 덮고 겨울엔 추운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현행 예복을 유지하면서 생도 분위에 맞는 기능성까지 디자인 측면을 중점으로 개선했다.

크로스밴드는 박음질 자국이 보이지 않게 하고 벨크로를 이용해 탈부착을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예복은 앞게 만들어서 동계 때는 팔까지 내리붙여 따뜻하게 갖춰 입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끈걸음을 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드랑이 및 어깨부분과 허리는 스프링스 소재를 첨가했다. 예복 또한 바래미가 잘 통하도록 뒷부분에 반사소재, 형기구멍 증가, 공사터리 자수를 적용했고, 바래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명 턱근으로 개선했다. 단추는 기존 원형디자인에서 권시마크를 적용하고 분상반지를 위해 암착 고정형으로 개선했다. 목깃 부위 특수리본으로 나사 조임식에서 고정형으로 보완했다.

예복 밴드는 상의 구김, 밴드와 상이 분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벨크로를 활용하여 상의 안감과 부착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수술후부분은 소재를 인건으로 변경, 무게감을 향상시켜 영립 방지와 바래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

예복의 디자인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개선됐다. 소매단장이 특수리 현상이 크게 부각되도록 보완했고 견장은 수술후를 풀리에서 인건으로 변경하여 고급스럽고 무게감을 향상시켰다. 또한 태극마크, 계급장, 태극무늬를 화려하고 일체감 있게 처리했다.

생도 예복은 수십 년간 변화지 않은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이며 생도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서 신상사 하고



▲ 기존예복



▲ 개선형 예모



▲ 개선형 소매단장



▲ 개선형 견장



▲ 개선형 단추

있다. 많은 생도들은 이번 예복 개선이 과도한 기능성이나 디자인 변화를 추구해서 예복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번 생도예복 개선에 관한 많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생도 예복의 전통적인 고유형상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을 계속 계승할 수 있게 됐다.

수습기자 64기 백선일

◀ 공사신문 313호에 실린 생도 예복 디자인 개선 관련 기사(2013. 11. 15.)

하늘로 우주로! 공사 천문대 설립

공군 우주작전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해 설립...생도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라

공군 최초의 천문대인 공사 천문대가 오는 3월 24일 개관할 예정이다. 공사 천문대의 탄생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공군과 한국천문연구원원이 내 번째 연례회의를 하던 중, 미래 우주천문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군에서 천문대를 짓는다면 천문연합이 망원경을 지원하겠다는 인연이 나오게 됐다. 중기계획을 거쳐 2013년 10월 10일에 공사천문대건선이 착공됐고 이듬해 3월, 공군대령 박봉규 교수가 천문대의 테마를 '우리민족의 하늘 알기'와 '공군우주작전' 두 가지로 설정하면서 천문대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1년 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24일 완공식을 가졌다.

자장 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1층에는 시민 해설사 사무실과 교육전시실, 천문자료 열람실 등이, 2층에는 천문대장실과 세미나실이 그리고 3층에는 관측실이 있다.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공군 출신 예비 우주인들, 대령계, 동사장의 천문학자들, 우주작전 등의 설명이 전시되어 있어 이층 층에 자연스럽게 공사 천문대의 두 가지 테마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공사 천문대에는 8미터의 돔으로 이루어진 주관측실

과 보조관측실이 있는데 모두 천정이 열리는 형태로 효과적인 관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관측실에 있는 망원경은 직경 60cm로 우리 눈의 만 배 능력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 있어 천체관측과 연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보조관측실에는 태양망원경 1대를 포함 한 총 6대의 망원경이 설치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별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까지 추적 할 수 있는 마운드가 장착되어 점차 공군에서 우주감시체계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우주작전'은 크게 우주감시체계, 우주공격·방어, 인공위성활용작전, 우주수송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주감시체계는 광학망과 레이저추적용을 통해 인공위성의 궤도정보를 추출하여 작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인공위성용 활용하여 기상예보, 위성통신, 조기경보, 국지항법, 감시정찰 등을 통해 공지에 작전을 지원한다. 공사 천문대는 '공군우주작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우주감시체계 구축과 '공군우주작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공사 천문대는 공군사관생도들의 수업, 동아리 활동과



공사 천문대 전경

더불어 시민들에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공사 천문대는 매년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하는 3만명의 청소년들에게 하늘을 넘어선 우주로 향한 꿈을 심어주고 공군우주작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게 할 것이다. 또한 천문대는 미래의 우주전문인력양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공사 천문대장 박봉규 소령은 "아직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우주분야에서 우리 공군이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문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시설이 세워져 전문적인 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생도들과 국민들의 뜨겁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생도기자 65± 송은지, 정진영

공사신문 ▶ 320호에 실린 천문대 설립 관련 기사 (2015.3.16.)

T-103 항공기, 13년 간 임무수행을 끝마치다

17일 고별을 마지막으로 KT-100과 임무교대

2005년 6월부터 공군의 입문 비행교육 과정용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운용되던 공군의 T-103 항공기가 4월 17일 고별비행을 끝으로 퇴역했다. T-103 항공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최초로 도입한 러시아제 고정익 항공기로, 2005년 6월부터 입문비행교육 과정 훈련용 항공기로 투입돼 지난 13년 동안 총 41개 차수에 걸쳐 2200여 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며 공군의 정예 조종사 양성의 산파역할을 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학생조종사들이 안전하게 T-103 항공기로 비행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교관·교수 조종사, 정비사가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비품

질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운용되는 기간 동안 총 5만 8,000여 시간을 비행했다.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마치고 퇴역하는 T-103 항공기와 이별하는 자리에는 학생진 공군사관학교교장을 비롯한 지휘관·참모, 비행교관 및 교수, 학생조종사, 정비사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별 비행을 마친 T-103 항공기에 대한 회고와 함께 프로펠러에 대해 화환을 걸어주며 항공기 퇴역의 의미를 되새겼다.

T-103 항공기 운용을 담당했던 심대설 제55비행교육전대장(대령·진)은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T-103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T-103과 KT-100 항공기가 고별 우상비행을 하고 있다.

고 퇴역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T-103을 대신하여 새롭게 임무에 투입되는 KT-100 항공기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관리로 정예 조종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생도기자 69± 선민수 7512075@kpa.ac.kr

▲ 공사신문 339호에 실린 T-103 항공기 고별비행 관련 기사(2018.5.18.)



그 때는 그랬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50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 남용우(29기)
- 155 용문산 대대장, '청와대 경호실'에 불려간 사연 / 김국창(7기)
- 158 통행금지와 메추리 / 이경달(29기)
- 159 기이한 인연 / 송기준(25기)
- 160 졸다가 고향이 바뀐 생도 / 이학주(30기)
- 161 니가 거기서 왜 나와 / 이용곤(30기)
- 162 자취방에서 쫓겨난 사연 / 김오현(30기)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1978년 여름을 기억하며



남웅우(29기)

오늘은 2022년 7월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 며칠 동안 불타는 여름 햇빛이 작렬했다.
오늘은 태풍 '송다'가 비를 몰고 올라오고 있다.
덕분에 뜨거운 햇빛이 없어 응접실에 앉을 수 있다.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비 오는 날 듣기에는 딱 좋은 노래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
가수의 절절한 목소리가 페이드 아웃되면서 그때가 떠오른다.

1978년 그 불타는 여름

생도 2학년.

육군 특전사의 여름 유격훈련은 생도 시절 겪어야 할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관문 중에 하나였다.

우리 29기 전원은 여름 비행단 견학을 다녀온 후 곧이어 육군 00 특전사에 위탁훈련을 받으러 갔다. 무려 유격훈련

뜨거운 태양, 땀에 찌든 훈련복,

붉은 연병장에서 쉬지 않고 이어지는 PT 체조,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틀리는 구령 소리와 이어지는 선착순,

염장 양배춧(추)국과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밥알,

지쳐 쓰러지는 땀내 짙은 야전침대,

불침번 교대를 알리는 낮은 목소리와 도저히 떠지지 않는 눈꺼풀.
44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거의 사라지고 퇴색된 그 시절의 기억이지만
지금도 또렷이 남아있는 기억들이 가끔, 아주 가끔 되살아나곤 한다.

햇볕이 몹시 뜨겁다.
가스버너 같은 햇살로 달궂어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찢그럭 찢그럭 단독군장의 대검이 허벅지를 치고
열기에 녹은 아스팔트는 뽕 걸음을 뽕 때마다 짹짹 소리를 내며 군화에 달라붙는다.
구보 초기에 정연했던 대열은 흐트러졌고
빨간 모자 조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더 빨리 뛰라고, 대열 맞추라고 소리 지른다.
길가에 시민들이 신기한 듯, 불쌍한 듯 바라보고
누군 손뼉 치고, 누군 야유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일부러 양동이의 물을 부려준다.
도로에 고인 물이 반가워 일부러 웅덩이에 첨벙거리며 뛰어가고 있다.
내가 뛰는 건지, 두 다리가 뛰는 건지 모르겠다.

한참을 달렸고 어느 버스 종점인 듯 몇 대의 버스가 넓은 주차장에 서 있다.
버스 안의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였고 그 버스 옆을 지나 다시 낮은 야산으로 오르막이다.
이제 마지막 구간인가 보다.

순간, 장면이 바뀐다.
유격훈련장 계곡을 가로지르는 외출타기 훈련이다.
외출로프 앞에 대열을 맞춰 꼼짝없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
눈을 뜨면 안 된다.
순서가 된 동기생들은 외출에 매달려 반대편 산으로 건너간다.
모두 팔을 뻗고 곧은 자세로 누워있어야 한다.
전혀 편하지 않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꿈틀거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목이 너무 말라 허리춤 수통을 잡으려 꿈지락거렸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간절히 물이 마시고 싶다.
온 힘을 다해 수통을 잡으려 했지만 웬일인지 팔이 꼼짝을 않는다.
외출타기 순서가 된 동기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일만, 이만, 삼만... 그리고 무슨 육설 같은 고탈도 들린다.
영원 같은 긴 대기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나 보다. 누가 나를 흔든다. 눈을 뜨라고...

눈을 뜨니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초점이 맞질 않는다.

서서히 초점을 조여 점점 얼굴이 보인다.

내 형이다!

형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왜 형이 여기에...

형이 왜 여기에 있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는다.

“혀~~혀~~형”이라고 목소리를 쥐어짜서 말을 해 보았다.

어, 그런데 아니다.

다시 보니 형이 아니고 어떤 병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병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뭐라고 뒤에다 말하며 일어나 간다.

여긴 어딘가? 왜 내가 여기 누워있는지 주위를 살펴본다.

그제야 내가 발가벗은 채 흰 린넨에 감싸여 누워있고 내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음을 안다.

그리고 여긴 병원의 나무반 같은 곳임을 알게 되었다.

어지러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둘러보니 내 옆과 건너편 마루 침상에 동기들이 몇 명 있다.

그 동기 중 두세 명은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다.

그제야 뛰다가 정신을 잃은 것이고

환각 속에서 외출타기와 누워있는 대기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시간이 흘렀다. 서서히 일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를 불러 물을 청했지만, 지금 물을 마시면 큰일 난다고 주질 않는다.

병사를 불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반바지를 입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눈이 부신 뜨거운 태양이 아직도 중천이다.

잠시 휘청거렸다.

조금 떨어진 화장실로 천천히 걸어간다.

멀리 특전사 정문이 보이고 주변에 민간인들이 서 있다.

아! 주말이구나(!) 저 사람들은 면회객들인가 보다.

화장실로 들어섰다. 어디에 선가 수도물 냄새가 난다.

수돗물 냄새가 이 세상 어떤 향기보다 좋았다.

도저히 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정신없이 마셨다.

아마 고래처럼 마신 것 같다.

아! 살 거 같다.

지척의 병실이 아득히 멀게 보인다.
 화장실 옆 플라타너스 밑 그늘이 나를 부른다.
 그곳에 몸을 누였다.
 한참 정신없이 잤다.
 눈을 떴을 때 해는 많이 기울어 있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동기들이 열댓 명은 되어 보인다.
 거의 모든 동기생들이 깨어 있었다.
 저녁시간이 되어 병원측에서 이제 훈련내무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열댓 명의 졸도 생도들은 천천히 걸어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다른 동기들도 상당히 지쳐있었지만, 그들은 훈련을 마쳤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속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몸에 힘은 없었지만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다.
 병실 신세를 진 동기들도 모두 괜찮아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 몇 명의 동기가 상태가 악화되어 급하게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
 두 명의 동기생은 먼 길을 가고 말았다.
 병명은 열사병이었다.
 그 후 열사병 졸도 생도들은 전원 공군 항공의학연구원으로 급송되었다.
 향의원 병실로 참으로 많은 분이 위문을 왔다.
 각 군 참모총장, 사관학교 교장, 교육사령관 등
 그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병실에 모여 침울한 표정으로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분들 모자에 있는 별을 세어 보았다.
 별 네 개, 별 세 개, 별 두 개……
 총 18개로 기억된다.
 며칠 후 가족들도 면회를 왔다.
 어머니, 형, 형수님……
 내가 졸도한 그 날 가족들은 천년 만에 가족 바캉스를 갔었던단다.
 동해 하조대로.
 어머니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질 않으신다.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바닷가 바캉스라니……. 이런 생각이셨단다.
 마치 죄인 같은 표정이었다.



아버진 일부러 오질 않으셨단다.

그리고 그날이 34도를 기록하며 35년 만의 가장 뜨거운 날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사관생도 2학년의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다.

뜨거움과 가쁜 호흡,

땀과 짠 내,

“00산 개구리”(훗날 우리 동기들은 졸도한 동기들을 그렇게 불렀다.)

열사병과 그 후유증으로 얼굴에 열꽃이 만개한 동기들,

그리고 구름 너머 아련히 떠오르는 먼저 간 동기들.

00산 개구리들은 먼저 그 이야길 하지 않는다.

쪽팔리기도 하거니와 먼저 간 동기를 기억하는 게 송구스럽다.

그냥, 동기들끼리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담담히 기억을 떠올려 보곤 했었다.

나는 오늘 비 오는 정원을 바라보며

낮게 드리운 구름을 스크린 삼아 1978년 그 여름을 소환해 보았다.

다들 수고 많았다.

그 여름을 겪은 나의 동기들,

우리를 인솔했던 민 중대장님, 훈육관님,

특전사의 흑독함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마 중대장님, 그리고 빨간 모자 조교님들.

모두 수고했고, 뜨겁게 그해 여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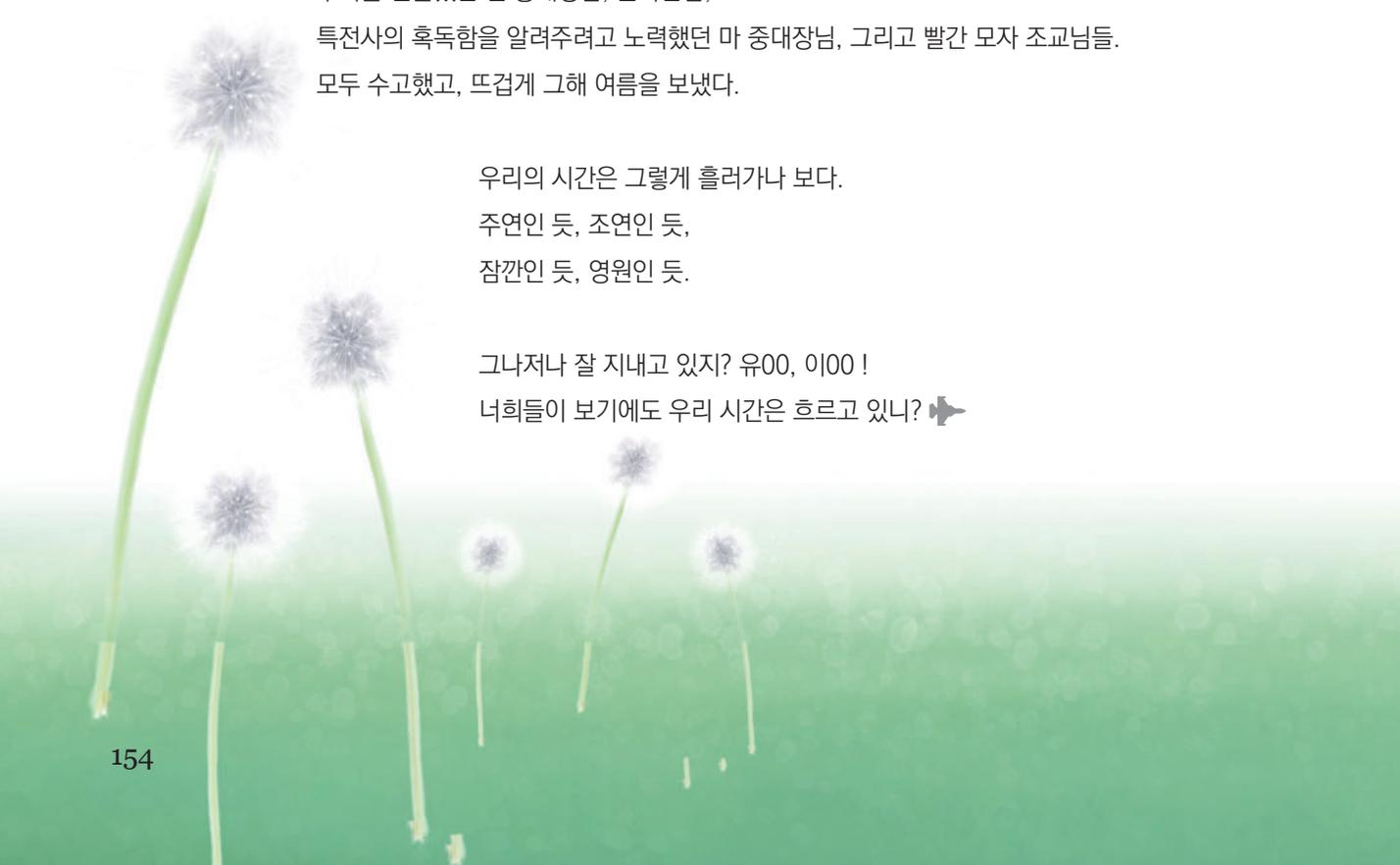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주연인 듯, 조연인 듯,

잠깐인 듯, 영원인 듯.

그나저나 잘 지내고 있지? 유00, 이00 !

너희들이 보기에도 우리 시간은 흐르고 있니? ➡





김국창(7기)

용문산 대대장, ‘청와대 경호실’에 불러간 사연

망구(望九)의 나이가 되다 보니 옛 일기장을 들춰 보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연히 1978년 봄, ‘한미합동 방공훈련(ADX)’ 중 일어났던 일의 기록이 눈에 띄었고, 당시에 공군본부가 들썩했던 사건이라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여 이를 되살려 보기로 한다.

미공군 전투기가 용문산 레이더 사이트의 관제를 받으며 최전방 철원 지역에서 근접지원작전(CAS)을 마치고 자체 항법으로 귀환하겠다는 용문산 주파수를 떠났다. 그러나 10여 분 후 이 전투기가 청와대(P-73)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관제사가 비상주파수로 3회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자 이 항공기는 급히 ‘P-73’를 이탈한 후 서해안을 따라 오산기지로 무사히 귀환 했다.

용문산 사이트 대대장인 나는 ‘이 전투기가 문제가 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방공훈련이 종료되자 후련한 마음으로 근무교대를 시키고 막 퇴근하려는데 공군본부 상황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17시경 미공군 전투기가 청와대 구역에 진입한 사

실을 알고 있느냐며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

우리 사이트에서 레이더 포착, 항공기가 ‘P-73’ 진입하기 직전에 경고 방송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니 이 항공기가 ‘청와대 권역’에 진입하다 갑자기 ‘애프터 버너’를 쓰며 이탈하는 바람에 청와대 고사포가 경고 사격을 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접한 ‘차모 경호실장’이 노발대발하며 ‘공군 책임자를 경호실로 불러 조사, 엄중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내용이 공군본부에 전달되어 총장님과 참모부장들이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다며 대대장이 ‘관제 경위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일 08시까지 경호실에 가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용문산 사이트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는데 왜 대대장이 경호실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성 반문을 하니 상부 지시라며 아무 소리 말고 내일 경호실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강조하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 때는 그랬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경호실장 ‘차 아무개’하면 장관들도 별
별 떠난다. ‘중령인 대대장’이 경호실에
갔을 때 경호실의 속성상 문제 해결은 커
녕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
을 우려하면서도 상부 지시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퇴근하려던 관계 요원들을 작전실로
불러 경위서 작성과 이에 첨부할 해당 항
공기의 항적도 작성과 비상방송 녹음테
이프 재생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야간근무 중이던 관제사 김 중위가 찾아
왔다.

“대대장님, 저의 부친이 경호실 차장
(정모 중장)과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아
버지를 통해 차장에게 ‘용문산 사이트는
비상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요” 한다.

마치 구세주를 만난 기분! 미군용 용산
전화를 이용, 김중위가 자기 아버지께 ‘자
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하니 알았다’며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해 달란다.

10분쯤 지나 김 중위가 아버지와 통화
한 결과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 상황설명
을 하니 알았다며 아무 걱정말고 근무나
잘하라’고 격려까지 하더라. 답이 왔다. 어
느 정도 안심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경
위서(차트)를 작성해 가지고 자정이 다
되어 퇴근을 했다.

다음 날 8시쯤 청와대 경호실 쪽으로
들어가려니 경찰 초소에서 군용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며 길옆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 들어가란다. 시간이 촉박, 뛰
다시피 하여 경호실에 도착하니 경호실
직원이 참모장실로 나를 안내한다. 전투
복 차림의 육군 소장(노모 소장. 후에 대
통령이 되신 분)이 나를 쬐려보더니 경위
를 설명해 보란다. 차트를 펴고 브리핑을
하니 “전투기가 청와대 상공으로 쳐들어
왔는데 겨우 경고 방송이나 하고 자빠졌
느냐”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공군 레이
다 부대는 장거리 포대를 가지고 있는 것
도 아니고 비상주파수로 ‘경고방송’를 하
는 이외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뭘- 이따위 군대가 있느냐”며 다시 화를
낸다.

당황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침
경호실 차장께서 출근하며 “어이 공군!
내 방으로 와 설명해 봐요”하는 바람에
겨우 참모장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차장께서 브리핑을 듣더니 “공군 레이
다 부대는 할 일을 다 했네. 레이다 부대
의 ‘경고 방송’을 듣고 미군 비행기가 줄
행량을 쳤구먼. 공군부대장을 포상해야
하겠어”하는 게 아닌가!

이때 그 무섭다는 경호실장이 출근, 전
직원들이 번쩍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한
다. 실장께서 나를 쳐다보며 “어이 공군!
하늘을 지키는 것이 공군 아냐?

청와대 하늘이 뚫렸는데 중령이 왔어!
‘공군 총장에게 연락해서 나한테 직접 사
과하라’고 해!”하고 화를 내며 실장실로

들어간다.

예상대로 사태가 엄중한데 ‘중령인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온다. 경호실 전화로 작전참모부장(천 소장)께 ‘참모총장이 나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해’라고 지시하며 경호실장이 화를 내고 있다고 보고하니 알았다며 잠시 기다리란다.

일개 중령이 ‘경호실장과 참모총장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잘못되면 ‘새우 등이 터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간다.

잠시 후 작참부장님의 전화 내용은 총장께서 ‘우리 공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느냐’며 반대하신다는 것이다.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 온다.

죽으나 사나 경호실 차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차장을 다시 뵈고 ‘공군본부 상황’을 말씀드리니 알았다며 경호실장실로 들어간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차장께서 나오더니 ‘내가 처리하도록 실장으로부터 위임’ 받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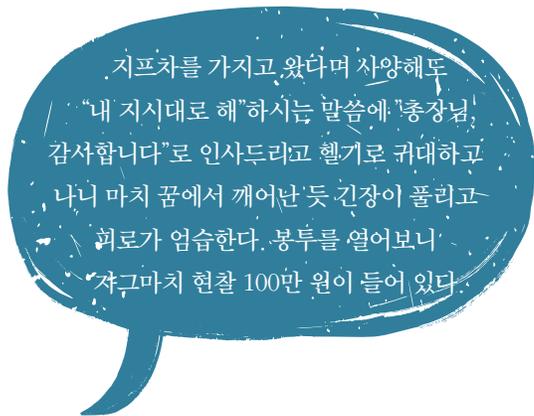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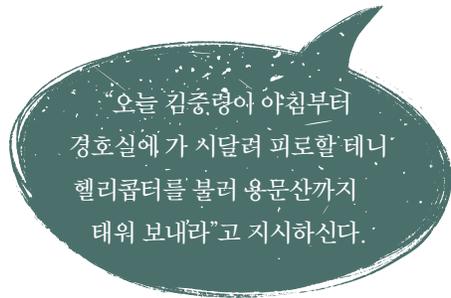
사지에서 생환한 기분으로 작참부장께 전화, ‘모든 문제가 잘 해결 됐다’고 보고하니 ‘수고 했다’고 반기시며 총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공군본부로 들어오란다.

참모 휴게실로 총장님을 찾아가니 몇몇 참모부장님들과 대화하다가 일어나시더니 “김중령,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하신다. 나는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총

장님과 악수를 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드는 감이 온다.

(김 중위 부친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쉽게 해결될 사건이 아니었다).

총장님께서 따라오란다, 총장실로 따라갔더니 수고했다며 두툽한 봉투 하나를 주시며 상황실장을 부르신다.



부대원(400여 명) 전체 회식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경호실장의 무법한 지시에 노(No)할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주신 주 총장님과 금의환향의 옛 추억을 되새기며 이글을 맺는다. ✈

통행금지와 메추리



이경달(29기)

1977년 겨울 생도 1학년 말쯤 이야기이다.

토요일 1박 2일 외박을 나와 은사님 상가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통행 금지 시간이 다 되어서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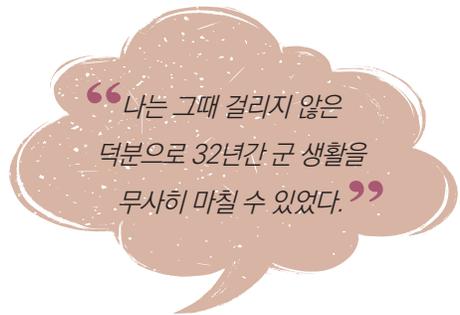
누나 집으로 갈려면 영등포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린다. 인근 파출소 앞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순경에게 붙잡혀 시골벽적이다.

‘아!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통행금지에 걸려 학교로 통보되면 난 퇴교 당할 것은 분명한데... 인도로 가면 분명히 순경에게 걸릴 게 뻔하다.

이 파출소만 무사히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 이판사판이다. 도로 중앙으로 가자! 붙잡힐 때 붙잡히더라도.’

나는 굳게 마음을 먹고 도로 중앙 노란 선을 밟으며 씩씩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인도 쪽에서는 도망가는 사람 잡으러 가는 호각소리가 요란하다. 공사 망토가 짙은 곤색이라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 누구도 이 어두운 밤에 도로 중앙으로 걸어간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아마 순경이 봤다 하더라도 경찰인 줄 알았을 거다. ➡



“ 나는 그때 걸리지 않은 덕분에 32년간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기이한 인연

딱 2주 15일만

주어지는 하기휴가가 끝나면 2-3일 후에 곧바로 산악 행군에 들어가는 일정이 생도들의 전통적인 교과 교육훈련과정이다. 그런데 1975년 생도훈련 과정이 무슨 이유에선가 산악행군대신 공수유격훈련으로 바뀌게 된다. 영문도 모르는 채 25기 생도 백 수십(여) 명은 버스를 타고 1공수 여단에서 입교식을 하고 곧바로 일주일 과정 훈련에 들어간다.

때는 8월 하순, 더위가 정점을 지났지만 아침부터 끓어오르는 햇살은 일주일 내내 염천을 만들어 생도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든다.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한 시간 동안 구보하고 또다시 한 시간 피티 체조를 하니 온몸의 근육이 몸살을 앓는다. 세 끼니 식사의 하이라이트는 소금물에 무를 썩썩 썰어 넣고 끓인 염적무국이다. 형편없는 부식에 염적무국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니 맹물에 밥을 말아 풀어 거친 보리밥을 몇 술 뜨고 만다.

조식 후, 개화산 유격훈련장에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전두환 여단장에게 적발된다. 여단장은 “사관생도가 어찌 차를 타고 훈련장에 간단 말인가?”라 하여, 이 시간 이후로 1공수에서 6km가 넘는 구간을 훈련기간 내내 구보로 다니게 된다. 평지에 우뚝 솟은 개화산,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는 땀이 비 오듯 하고 상당수의 생도가 대열에서 처지게 된다. 이때 같이 달리던 중. 상사 교관들이 자기들 끼리 서로 귓속말처럼 말하며 생도를 비웃는다.



송기준(25기)

“뭐! 공사생도가 저 따위야!”, “저런 것들이 사관생도라고!”

이 말을 들은 자존심 상한 생도들은 훈련 진행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고 훈련 거부 상황까지 가게 된다. 급기야 생도대대장이 공사에서 급파되어 일단락되었으나 훈련은 최고의 강도로 계속 진행된다. 한 과목이 끝나고 다음 과목을 진행할 때도 쉬지를 못하게 꼭 피티 체조나 쪼그려 뛰기 등을 시켜 완전히 녹초로 만들어버린다. 공수낙하훈련인지 염천에 체력훈련인지 구분이 안 간다. 식사조차 소모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니 기력은 점차 떨어져 힘이 부치기만 한다.

새벽부터 취침 전까지 쉬는 시간은 식사 후 남은 시간이며, 석식 이후에도 집체 이론교육을 한다. 끝나기 하루 전에는 야간 행군까지 강행하며 24시간 자지 않고 훈련을 받는다. 훈련이 끝나는 토요일 중식시간에 간단한 비어 콜에서 육사출신 훈련중대장이 말하기를 “사실 공사생도가 위탁교육을 온다고 하기에 150%의 강도로 훈련을 진행시켰다.”고 자백한다.

25기 사관들은 전두환 여단장이 지휘하는 1공수여단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인내심이란 무엇이고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도달하였을 때 버틸 수 있는 한계와 범주를 넓혀가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



이학주(30기)

졸다가 고향이 바뀐 생도

1978년 메추리 시절, 당시 중앙대 명예교수였던 민영복 교수님의 교양국어 수업 시간이었다. 민교수님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의 여교수님으로 키가 자그마하시면서 항상 예쁜 투피스 정장을 입고 다니셨다. 교양국어 과목처럼 교양이 넘치는 분이셨는데, 그날 오후 6교시 수업 중이었을 거다. 나른한 봄 날씨에 점심은 먹었겠다, 거의 절반의 메추리들이 약 먹은 닭 새끼 마냥 딱 실신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수업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수업 중에 부여 낙화암과 고란사 얘기가 나오면서 민교수님께서 “혹시 집이 부여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시길래 오른쪽 옆줄을 보니 아예 엎드려서 취침중인 이용규 생도가 눈에 들어왔다. 용규는 같은 축구부 대표선수로서 항상 6교시만 되면 오후 운동에 대비 수업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친구였다.

나는 엎드려 자는 용규를 깨우면서 “용규야! 손들어!” 하니까 용규가 자다가 고개만 왼쪽 옆으로 살짝 돌리면서 “뭐라고?” 묻길래 재차 “용규야! 손들어!” 하니까 용규가 몸은 반쯤 엎드린 채로 오른손을 살짝 들었다. 그러자 민교수님께서 “집이 부여예요?” 하고 물으니 자다가 일어난 용규가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학주야! 뭐라고 하나?”고 물었다.

나는 용규에게 “송문고등학교 나왔다고 해!” 그러자 용규는 큰소리로 “네! 송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학과장 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집이 부여냐고 물었는데 출신 고등학교를 말했으니 민교수님도 웃으시고 즐지 않았던 생도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졸던 메추리들은 놀라 잠에서 깨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러자 용규는 나를 보고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나중에 죽인다고 했었는데...

그 인물 잘 생기고, 멋있고,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좋아하고, 운동에 만능이었던 친구가 1983년도 김해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 순직하고 말았다.

몇 해 전 고인이 된 용규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동기생들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아버지의 사관학교 동기로서 축하를 해주고 온 기억이 있다.

“용규야~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있는 너를 깨워서 미안해~” ➡



이용곤(30기)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사관생도 시절 첫 후배가 생기는 날은 매우 흥분도 되고 기대되고 부듯해지는 날이었음을 우리 사관학교 동문들은 모두가 경험했을 것이다. 이날은 메추리 신분으로 부터 벗어나기도 하는 기념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후배가 우리와 같이 생활할건가 하는 기대도 엄청 큰 날이었다.

드디어 후배 메추리가 들어오고 식당에서 식사 중 자기 소개하는 전통에 따라 메추리 생도들이 식탁을 이동하면서 개인소개를 하던 중 어떤 메추리 생도가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였다.

나는 군인이었던 부친을 따라 여러 지역을 전학을 다녔었고 춘천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다녔고 졸업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춘천을 아는 마음에 그 후배 메추리에게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왔냐고 무심코 질문을 하였다. 답변은 놀라웠다.

“네! 선배님 나온 학교를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명찰을 보니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다.

“식사 후 내 내무실로 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반 친구를 재회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2학년이 후배들에게 했던 그 흔한 푸싱 한번 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가끔은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1년을 거슬러 내가 가입교 훈련을 끝내고 며칠 지난 어느 날 전대점호장에서 집합대열에서 있는데 내 뒤 동기가 나에게 어디서 본 얼굴이라고 하였다. 알고 봤더니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동기생이 중1, 1학기 시절 우리 반 친구였던 것이다.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때만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사관생도 시절에 추억이다.

이제는 환갑을 넘겨 인생 후반기에 그때 그 시절이 그림기도 하다. ➡





김오현(30기)

1983년 중위시절, 대전에 위치한 교육사령부 항공병학교에서 구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기본군사훈련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그 당시 항공병학교의 장교, 부사관, 신병 구대장은 모두 다양한 신분의 교육장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예공군인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공군본부에서 항공병학교 구대장 신분을 임관 2년차 사관출신으로 모두 교체한다는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조종특기를 제외한 전특기의 동기생 30여 명이 한꺼번에 교육사 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갑자기 보직명령을 받고 대전으로 몰려들 동기생들을 생각하여 마땅히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동기생은 우리집으로 와도 좋다고 동기생회보에 주인집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탄방동 한옥집에 방 한 칸 세 들어 살고 있었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유일한 연락처는 주인집 안방에 놓여 있는 전화기뿐이었다.

3~4명이 누우면 적당한 크기의 방에 초저녁부터 몰려든 동기생으로 밤 10시경이 되니 10여 명이 넘어서 좁은 방이 무척 시끄러웠다.

자취방에서 쫓겨난 사연

동기생들이 올 때 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김중위 광주에서 동기생이 올라왔다고 하니 전화 받아”라는 친절한 안내를 받고 동기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원이 늘어갈수록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딱딱해 졌다.

올 사람은 다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칸방에서 칼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경에 주인집 전화벨 소리가 또 울렸고, 이번에는 주인아저씨가 딱딱한 목소리로 “김중위 마산에서 동기생이 올라왔다니 전화 받아”라고 하여 주인집의 곤한 잠을 깨우고 말았다.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주인집으로부터 방을 빼주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입주한 지 6개월 정도 만에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폰 시대인 지금에는 감히 생각하기도 힘든, 까마득한 시절에 동기생 덕분에 월세방을 옮기게 된 우스운 추억담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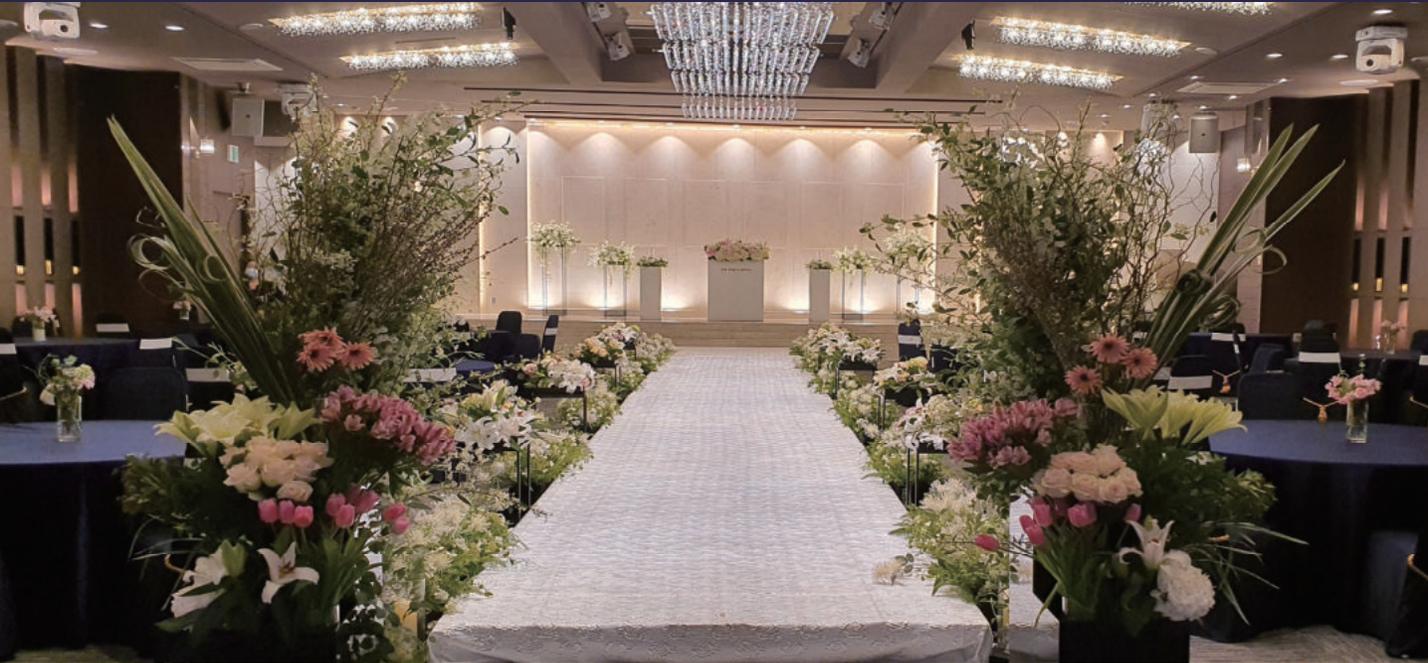
존경 하옵는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회원님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신지요?

공군호텔은 그동안 시설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새롭게 편성된 우수한 셰프들이 한식, 중식, 양식, 뷔페 메뉴를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예식·연회·각종 모임을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공군호텔 이구목 사장, 임직원 일동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님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 ▶ 넓고 쾌적한 시설환경
- ▶ 한정식/중국식/양식/뷔페 등 다양한 메뉴
- ▶ 시중 호텔 대비 30~50% 가격
- ▶ 전용 예식홀/호텔 예식홀과 대/중/소 연회장 운영
- ▶ 예식 하객을 위한 객실 및 스카이라운지 이용 가능

예약문의 02-844-0336

www.airforcehotel.co.kr



동문기고



Diamond Forever

166 임관 50주년 단상 / 이달호(19기)

175 디지로그 임관40주년 맞이 / 김광희(30기)

하늘, 바람 그리고 비행기

178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 이윤우(6기)

179 제한도 앞의 사내 / 강임구(24기)

180 바람은 길동무 / 이영하(22기)

182 비호(飛虎) / 김상훈(33기)

어쩌다 공군

183 보라매의 꿈 / 최문강(11기)

186 T-50 회고(回顧)와 감사(感謝) / 박병구(28기)

189 어쩌다 한의사 2 / 차종환(29기)

192 기후위기 시대의 공군 / 이일수(29기)

197 따르릉! 사무총장입니다! / 이경달(29기)

200 공짜에 익숙한 나의 모습 / 김오현(30기)

203 성무대를 떠난 보라매 / 김나우(70기)

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박영후(70기)

인생 2막 3장

- 208 상담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문정주(32기)
- 210 은퇴지식인으로서의 소명 / 박성보(26기)
- 212 미생(未生) / 이형걸(32기)
- 217 전원생활 / 한광성(20기)
- 221 베트남 생도 후원인이 되다 / 최정근(29기)

우정기고

- 224 나의 생도생활 / 변성금(28기 김학수 부인)

특별 인터뷰

- 228 공군스타가 낳은 뮤지컬계의 스타 / 뮤지컬 배우 최재림(25기 최미락 자제)



임관 50주년 단상



이달호(19기)

작년 2021년은 필자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는데 필자가 속한 19기 태성회의 임관 50주년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볼 심사로 공군에 몸담았던 시절을 포함하여 생애에 걸쳐 공군과 얽혔던 사연들을 찬찬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짧게나마 정리해 본다.

사연 #1. 필자가 공군과 처음 만난 인연은 뜻밖에도 6·25 당시 공군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나 싶다. 6·25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진저리를 치던 어머니였지만 유일하게 깔깔대며 재미있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재가 비행기 소리만 나면 정신없이 이불 속으로 숨기 바뻐단다.” 하시며 웃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지칭한 재가 바로 두살을 갓 넘긴 필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비행기는 무스탕으로 불리던 F-51이거나 썩썩이로 불리던 T-33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래봐도 필자가 온몸으로 전쟁을 겪어낸 전쟁세대라고 한다면 너무 ‘뺱’을 친 헛소리라고 웃겠지만 비행기 소리에 혼비백산했던 두 살배기가 20년 후에는 그 소리를 직접 토해내는 전투기 조종사가 된 것이다.

사연 #2. 필자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실물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여섯 살 때 서대전역 부근이었다. 그 당시 서대전역에는 석탄을 쌓아놓는 야적장이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흡사 잠자리처럼 생긴 헬리콥터가 석탄야적장 인근에 앉아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있었는데 필자도 그중 하나로 잠자리비행기를 바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헬리콥터 옆에는 미군 조종사가 있었는데 피부색이 석탄색깔과 구별되지 않아 신기하였고 간간이 내보이는 치아 색깔이 어찌나 하얗게 반짝이든지 흑과 백의 대비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연 #3.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는 봄과 가을에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소풍을 가곤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가을소풍을 학교에서 멀지 않은 유성 근방으로 갔었다.

그때 경비행기 여러 대가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던 것을 목격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대전 기술교육단에서 L-19로 이착륙훈련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1956년이었으니까 아마도 5기생의 초등비행훈련과정을 본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조종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신경이 예민해진 교관조종사로부터 견디기 힘든 담금질을 받느라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학생조종사의 심정을 알리가 없었을 ‘초딩’ 2학년생이 그로부터 14년 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싶다. 다만 기종이 L-19에서 T-28로 바뀌었고 또 훈련지역이 대전이 아니고 사천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연 #4. 앞에서 언급했던 초등학교에서 필자는 3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갔고, 그로부터 시골 초등학교의 일은 까맣게 잊고 살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 초등학교 출신 동기생이 두 명이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동기생으로 인연을 맺은 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공군을 떠나 초야에 묻혀 살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다니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반갑기 이룰데 없었고 이를 굳이 비교하자면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의 감동에 버금갈 만 하리라.

세 명 가운데 필자는 3학년에, 또 한 친구는 4학년에 전학을 갔고 온전히 졸업한 친구는 단 한 명이었지만 ‘초딩’의 추억을 공유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온전히 졸업한 친구가 당연직 종신회장으로 추대되어 몇 년째 소규모 ‘초딩’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어느 모임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튼 초등학교 한 곳에서 세 명의 동기생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공군사관학교 70년 역사에서 매우 희귀한 기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걸출한(?) 인재를 공사 19기 태성회에 세 명씩이나 배출한 그 초등학교를 세 명 모두 제대로 거동할 수 있을 때 한번 찾아보고 싶다.

사연 #5.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또한 ‘공군의 날’이기도 하다. 공군의 날을 맞이하여 실무장 투하 시범행사가 한강 백사장에서 여러 해 개최되다가 안전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자는 실무장 투하 장면을 실제로 지켜보았다.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니까 필자가 중학생이었을 때다. 그 당시에는 볼거리나 구경거리가 별로 많지 않을 때라 시월 초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F-86 세이버 편대가 펼치는 묘기를 본다는 건 그야말로 행운이었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네이팜



탄을 투하하였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불기둥이 치솟는 광경은 중학생 어린 가슴에도 뜨거운 화염을 안겨주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한강변에서 관람한 게 아니고 인왕산 봉우리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네이팜탄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까지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서울에는 고층건물이 없었고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왕산에서도 한강 백사장에서 펼쳐지는 공군 실무장 투하광경을 관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다.

사연 #6. 앞서 언급한 사연들은 사실 필자가 공군에 발을 들여놓는데 전혀 기여(?)를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공군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인데 좀 '웃픈'(웃기지만 슬픈)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초·중·고 학창생활을 통해 장래 희망을 꿈꿔본 적이 별로 없었다. 장차 무엇이 돼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직업군이 있어야 진로를 결정할 텐데 그게 없으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드디어 그 직업군을 찾아냈으니 하늘에서 별을 딴 기분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서울시청 인근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 별을 딴 것이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육군 해군이 지나가고 뒤를 이어 공군의 차례다. 먼저 공사생도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뒤이어 파란 색깔의 공군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대열을 갖추어 지나가는데 지프차에 탑승한 채 목석처럼 앉아 있는 인원에 유독 필자의 눈길이 꽂혔다. 주황색 조종복에 빨간 마후라가 선명하게 눈에 띄는데 검정색 라이방(Ray Ban 社에서 제작한 선글라스)을 쓰고 오른손으로는 흰색 조종사 헬멧을 움켜진 모습으로 지나갔는데 말로만 들었던 공군 파일럿 실물을 처음 목격한 것이다.

이 장면에 영혼을 빼앗긴 17세 소년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렇게 갈망하던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는데 몇 년 후 국군의 날 행사 실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혼비백산 허탈한 심정을 맛보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가행진에 참여해 소년의 영혼을 빼앗았던 조종사가 진짜 조종사가 아닌 대역 역할을 했던 '짜퉁'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끝까지 몰랐어야 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아뿔사! 이때의 황당함과 배신감 그리고 연이어 터져 나온 실소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웃픈' 이야기라 하는 것이다.

사연 #7. 공군 조종사에게 있어 사고는 늘 따라다니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결정적으로 파멸로 내모는 악령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라면 누구나 사고의 악령과 부디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 누구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조종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나 남편 또는 아빠를 떠나보내

야 하는 유가족들의 애통함을 지켜보기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필자는 어쩌다 사고의 악령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두 번은 초보 조종사 시절이었던 데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연이어 만났고 악령의 등급 또한 최고 악질 등급이었다. 세 번째 악령은 공중에서가 아니고 지상에서 만났는데 이것 또한 만만찮았던 악질 등급이었다.

최초의 악령은 소위시절 ‘왕초보’ 조종사에게 찾아왔다. 필자가 조종하는 F-5A가 활주로에서 이륙하자마자 오른쪽 엔진에서 폭발소리를 내며 기능을 멈춰버린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멘붕’에 빠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필자를 구해준 건 이륙허가를 받느라 잠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한 가닥의 생각이었다. “오늘 이륙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속도를 유지한다.”라는 뜬금없이 스쳐지나간 한 가닥의 생각이 모든 악조건 상황을 일사불란한 비상처치 절차로 인도해주었다.

같은 편조의 편대장은 물론 그 시각 활주로 통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대장조차 한 마디의 조언을 해주지 못했는데 순전히 ‘왕초보’ 조종사가 순수자력만으로 최고 난이도의 비상착륙을 성공시킨 것이다. 어디 한 군데 흠 잡을 수 없이 그야말로 완전무결하게 모든 비상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륙 직후의 최대중량에다 단발 엔진 착륙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속으로 착륙을 하고 감속을 위한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온몸에 전해지는 강력한 충격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환희를 만끽하였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짜릿한 전율이 느껴진다.(그러나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건만 그렇게 큰일을 겪어낸 필자를 대하는 대대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무덤덤하고 ‘쿨’했던 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 혼한 맥주파티조차 없이 지나쳤으니 할 말이 없고 아무리 상남자들의 세계라 하더라도 너무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삭막했던 1971년 비행대대의 한 모습이었다.)

두 번째 악령은 중위시절이었으니 ‘왕초보’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던 때였다. 공대지 사격훈련 중에 폭탄투하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바로 옆의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아뿔사! 바로 옆의 버튼은 우천 시 빗물이 제거되도록 기름성분의 액체를 분사시키는 버튼이었다. 그날따라 중국에서 날아온 짙은 황사와 사격장에 붙어 닥친 모래바람이 끈적끈적한 기름성분으로 범벅이 된 조종석 앞면을 덮쳤으니 순식간에 비행불가능 상태가 되고 말았다. 두 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님이 된 꼴인데 비행 중에 그 꼴을 당했으니 청천하늘에 날벼락도 그런 날



벼락이 없다. 그나마 다행으로 좌·우 양쪽의 시야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천신만고로 편대장과 합류에 성공하여 비행장 상공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였지만 문제는 착륙이었다. 그날따라 훈련중단 수준의 측풍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항공기로 착륙을 시도한다는 건 초보조종사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무모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착륙시도마저 실패하자 불안과 초조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부족을 알리는 경고등까지 들어왔으니 이관사관의 심정으로 마지막 착륙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던가? 生則死 死則生이 강림(?)하셨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도한 착륙은 가까스로 성공하였다. 다만 활주로가 아니고 우당탕탕 풀밭에 착륙하였으니 절반의 성공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큰 부상도 없이 고약한 악령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으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초보시절에 더구나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난다는 게 그리 흔치 않은 일인데 두 번 모두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흔치 않은 일이다.

세 번째 악령은 중령 고참일 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경부고속도로 청원 인근에서 만났다.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17비행단으로 출장을 간다고 수송대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비교적 새 차(그래봤자 1300cc 소형차)와 숙련된 운전병을 배차해 주었는데 운전병 최 상병이 줄음운전을 했는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승용차가 펍 소리와 함께 전복되더니 차량의 위와 아래가 완전히 뒤집힌 채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미끄러지며 용접불뚝 같은 불뚝이 미친 듯이 튀는데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마침내 상황이 멈췄다.

천만다행으로 사고 발생지점이 오르막인데다 마침 장대비가 퍼붓는 바람에 후속 차량들이 서행하였고 그 덕분에 추돌로 인한 2차사고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9월 중순경 마침 대령진급심사 중에 이런 일을 겪어 액땀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운명의 여신은 목숨을 살려주는 데까지만 허락하셨다. 운전병 최 상병도 영창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목숨을 건진 대가치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나중에 확인했는데 숙련급 운전병이라던 최 상병은 군에 입대하여 면허를 취득했다 함.)

필자가 공군과 사고로 엮어진 사연이었는데 세 번씩이나 언급하고 보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세 번 모두 생명을 건졌으니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남은 생을 살고자 한다.

사연 #8. 70년대 중반부터인가 공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내 또는 해외 대학으로 학위과정 교육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도 그 프로그램 덕분에 80년대 초반에 국내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사관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데다 책을 놓은 지 십년이 지난 터라 중학생이 대학교 수업을 받는 기분이었다.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과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고 일명 ‘공부의 神’이라 불리는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모든 가사 일을 포기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했건만 돌아오는 건 초라한 성적뿐이었을 때 그때 맛보는 좌절감과 자존감 상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 그 당시 국내 대학은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는지라 군위탁생을 대하는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고 학위과정이 끝날 때까지 쌓이기만 하는 스트레스의 늪에서 허우적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제왕적 지도교수의 과도한 열정 때문에 얻게 된 악성 트라우마까지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그런 악조건을 견딜 수 있었던 기저에는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갖추어진 불굴의 의지와 장교로서의 명예심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되어 사관학교 교육에 깊이 감사한다.

사연 #9. 공군과 골프와는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군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찍 골프에 입문할 수 있었고 또한 누구보다 용이하게 골프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골프예약이 전쟁수준으로 돌변하는 경우에는 공군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필자는 일명 ‘골프 8학군’이라고 불리는 청주에 살고 있어 17비 체력단련장을 가끔 찾는데 17비행단은 한국 공군이 자랑하고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부대이다. 귀청을 때리는 폭음을 뒤로 하고 공중으로 치솟는 F-35의 위용을 보고 있노라면 감회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생을 시작하였는데 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골프장에서 노년의 여유를 즐기며 국민소득 3만 5천불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니 이야말로 경천동지요,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두 살배기 어린애가 무스탕 비행기소리에 놀라 이불속으로 숨는 첫 번째 장면으로



시작하여 70대 초로가 된 예비역이 F-35의 폭음소리를 들으며 감회에 젖는 아홉 번째 장면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별 일 아닌 사연들일 수 있겠으나 두 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니 필자로서는 영끝(영혼을 끌어 모아)로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관 50주년을 보내며 그동안 공군과 얽혔던 희로애락의 추억과 애증의 사연들 그리고 생사의 기로를 세 번씩이나 겪었던 기억들까지 모두를 공군에 반납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공군이 너무 아프게 했을 때 떠올랐던 사람은 순진무구했던 17세 소년을 공군으로 빨아들인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본 그 '짜퉁' 조종사였고 공군이 고맙게 여겨질 때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새로 장만한 드라이버를 공군골프장에서 휘두르며 희희낙락할 때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무래도 '닥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로 축구단 전북의 모토인 '닥치고 공격'(닥공)처럼 '닥치고 공군'으로 말이다.

그동안 공군의 구성원이었음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왔기에 공군에 감사하고 아울러 후배 공군인들의 무운장구를 빈다. ✈

디지로그 임관40주년 맞이



김광희(30기)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진다.”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시간에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성무대 가입교 군사훈련 초밀도적 기간과 패기, 신념, 정열, 극복을 모토로 보냈던 뜨거웠던 생도생활 4개성상은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기까지 일각 여삼추(一刻如三秋)였다.

60대 중반이 되어 지난날을 회고하니 흡사 아름다운 연인과 보낸 40년이 옛그제와 같다는 착각이 들게되는 것은 시간의 상대성 원리를 새삼 알게 된다.

공군과 모교와 그리고 수많은 선후배님들과 동기생들이 한결같이 아름다운 연인이기에, 코로나19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공감을 불러올 특별한 기획을 마련하였다. 임관 40주년은 디지로그

(digilog)로 맞이하기로 결행하였다. 디지로그(digilog)는 (고)이어령 선생께서 생전에 만드신 용어이다.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 정서를 융합하여 문화를 선도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몫은 영상편집을 제공하는 디지털 영역이고 동참한 동기생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고 동기생들의 지나온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움, 반가움, 즐거움, 소통, 공감과 같은 아날로그 정서를 발현해 내는 것이다.

디지털의 외피에 아날로그의 속살인 정서를 마음껏 담아냄으로서 여전히 창로 30기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사실에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확인하는 디지로그 임관 40주년 맞이의 직접적 동인은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19이다.

30기 창로 동기생 회장단 기획능력과 자발적 재능기부를 맡아준 동기생 여러분 덕분에 임관 당일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차원에서 약3분의 견본영상을 SNS를 통하여 올

렸다. 모바일 미디어 시대에 부합되는 디지털로 임관40주년 맞이 자축의 신호탄이다.

짧은 런닝타임 라인내에 지난 40년을 담는게 그리 간단치는 않았으나 졸업앨범 속에서 찾아낸 생도생활 모습과 동기생들이 보내준 임관 10, 20, 30주년 간극간 시계열별 전후방 각 병과별 주요 작전 및 임무현장 사진이 속속 도착되었다. 동참의 분위기는 이미 디지털로 임관 40주년 맞이의 절반 이상의 성공이 예감되고 있었다.



모아진 사진은 콘텐츠별로 공군3대 명문가, 국내외 교수, 정부 주요 공직자 및 언론인, 목회자 등 인물, 해외 거주 동기생, 국립묘지 참배, 귀요미 손주 사진, 취미생활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반신반의하며 너튜브에 창로30기 졸업행사를 검색하였다. 와우 대박!!! 익명의 너튜버가 올려놓은 졸업 및 임관식 동영상 파일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게 아닌가.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초연결 시대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셰프에게는 풍부한 식자재가 음식의 질과 맛을 보장되듯이 필자에게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추억을 깊고 넓게 해주는 보물 그 자체였다. 미디어는 시

각적인 요소에 청각적인 요소(음악과 나레이션, 기타 특수음향 포함)가 가미될 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결과론적인 얘기로, 삽입곡에 K본부 ○○○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을 넣은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였으며, 공감도가 한층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애석하게도 12명의 동기생들은 호국의 재단에 바쳐져 (중략) 자랑스러운 창로30기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파일럿 견본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관 당일 오전에 드러낸 아날로그 감성, 열정이 예상외로 뜨거웠다.

『아름다운 시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뜻 깊은 영상을 가슴 뭉클하게 보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힐 우리 동기생과 나의 역사를 다시 일깨워 준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훌쩍 지났음을 새삼 느끼고 추억이 소환되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네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성무대 연병장에서 마지막 퍼레이드를 하였던 그 시절을 상기하는데 시각과 청각을 자극할 또 하나의 디지털로 만들어 냈다. 최영훈 동기생 작사, 김규태 동기생 작곡의 창로가 뮤직비디오는 그런 연유로 탄생하였다. 공군군악대 연주에 중창단 합창을 포함하여 음원을 먼저 제작하였으며, 동기생들에게서 받아둔 오랜

추억, 현장감이 생생한 값진 사진과 우리 공군의 다양한 홍보영상을 사용하고 가사 작곡 및 작곡까지 마무리하여 마침내 창로가 뮤직비디오를 완성하였다. 정훈병과 최영훈 동기생의 헌신적 노력과 봉사로 만들어진 창로가는 이 또한 많은 동기생들에게 감동의 물결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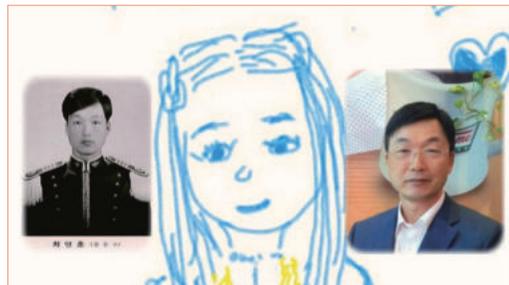
돌이켜 보면 '82년 3월28일 임관이후 10주년까지는 약동의 시기, 20주년에는 전후방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시기, 30주년 당시는 선의의 경쟁이 마무리 되고, 서서히 인생 2막을 준비해가고 있었다.

필자가 '12년 6월 4일자 국방일보에 기고했던 『동기들아 행복 찾으며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칼럼을 살펴보니..... “ 먼 길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소망, 꿈, 도전, 화해, 감사와

같은 것으로 배낭을 정리정돈 해야겠다. 오직 그동안 앞만 바라다보니 삶의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으니 ~(중략)”

그 후 쏠살같이 10년이 지나 이제는 60대 중반의 연령대에 진입하여 맞이한 임관 40주년은 바둑의 세계에 6단을 지칭한다는 통유(通幽) 단계에 도래한 것이 아닐까, 통유란 채우는 단계를 지나 비움으로써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지라고 한다.

메추리 시절에 매일 세 차례씩 빠짐없이 들었던 “내 나라 내 겨레”와 팝송 “The Yellow Rose of Texas”를 우연히 듣게 되면 단순한 곡으로 들리지 않음은 우리 창로 30기 모두가 동감 일 것이다. 직각식사로 밥을 먹던 그 시절이 소환되면서 한해 윗기수 선배님들이 하늘같이 보였었던 기억이 떠





이 영상을 통해 60평생의 인생을 돌아보았고 앞으로의 70, 80세 인생도 그려 보았네. 내 후손이 이 영상을 보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남길 수 있네 그려!!



멀리서 혼자 지내다 보니 영상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고 티슈가 필요 하더군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변한 모습을 보니 모두가 세월을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른다. 감히 범접할수 없었던 위대하신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님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최영훈 동기생이 완성한 창로가의 음원이 디지털로 임관 40주년 맞이해 방점을 찍고 있다. 창로가 전주가 잔잔히 울리며 지난 40년의 세월을 반추할 8장의 섬네일(thumbnail)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영상 앨범이 4개월여의 기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파일럿 영상의 제한된 시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해소하였다.

도화지로 비유하여 동참하여준 131명의 동기생 일인에게는 좌우 한 면씩 두 폭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였다. 왼쪽에는 졸업 당시의 예복 입은 명함판 사진과 지금 현재

의 모습을 대비시켰다. 어느새 주름살이 자연스러운 중년 노신사의 모습과 흥안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울컥한 감정이 떠올랐다. 이어서 가족의 단체 사진, 자녀와 손주 사진 그리고 본인만의 시그니처 사진이 펼쳐지면서 오늘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영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 나라 내 겨레”와 팝송 “The Yellow Rose of Texas”이 두 번째 세 번째 삽입곡으로 첨가되면서 동기생 한사람 한사람 앨범이 펼쳐지고 있다. 가, 나, 다, 라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 나오는 주인공 강구영 동기생은 입교 선서문을 낭독한 흑백사진이 인상적이다. 본인의 사진뿐만 아니라 성당에서 단체로 영세 받던 이미지도 보내준 동기



우리의 삶을 34분 42초에
집약해서 보여주는 대단한
영상입니다. 모두들 보고
싶네요.



지난 40년의 추억을 되새기
면서 동기생 한사람 한사람
삶의 여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네요. 78년 입교한 이
후 모두들 훌륭하게 참 잘
살아왔네요.

생,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의 중
책을 수행하였던 정경두 동기생과 기상청
장의 영예를 누렸던 김종석 동기생의 모습
이 우리 창로는 물론 모교와 공군을 빛나게
해준다.

공군 3대 가족 명문가 또한 아들과 사위
까지 공군 장교로서 뒤를 이어 주는 모습,
민항 동기생들이 지구촌을 넘나드는 장면,
국내의 우수 대학교수, 성직자 등 정말 다
양한 삶의 모습은 편집하는 내내 많은 영감
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그 어떤 명작에서
도 얻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졸업 및 임관식을 주관하여 주셨던 모교
3기 선배님이신 백낙승 교장님의 축사 말
씀을 영상앨범의 맺음 부분에 포함시킴으
로서 소중한 의미를 배가하여주었다.

사랑하는 모동기생이 전해준 결정적 한
마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그 어떤 영
화 보다 몽클하다.』는 짧지 않은 4개월여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을 말끔히 씻겨주는
청량제가 되었다.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족하였던
메추리가 높고 멀리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성장시켜준 줄탁동시 공군사관 학교와 공
군 그리고 함께 먼 길 걸어와 준 창로 30기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영상앨범의 에필로그를 장식해준 눈에 띄
는 몇몇 분의 감상문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이윤우(6기)

하늘에서 펼치는
한국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대한 남아의
승고한 기상

파란 하늘에
환상적인 수를 놓는
독수리 형제들의
뿔내는 날갯짓
조종사의 열정과
땀의 결정으로
아로새긴
황홀한 곡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하늘에서도
뜨거운 감탄과
환호를 자아내는

블랙이글스의
불멸의 곡예비행 ▶



세한도 앞의 사내



강임구(24기)



외딴 집 문풍지에 찬바람 들락이고
칭술의 매운 연기 뒤결을 싸고돌면
목메어 흐르는 눈물 고향 하늘 어딘가

세상을 덮을 듯한 폭설은 끝이 없고
썩인 눈 이고 있는 술가지 눈물 보며
한세상 가슴에 남은 아린 짐을 부린다

욕심의 눈송이가 어깨에 내려앉아
세밀의 한기 되어 뺏속에 스며들면
후회는 옷고름 여며 봄바람을 기다린다

별들의 소곤거림 귓가에 들려오면
눈발의 고요함을 선지에 옮겨놓고
붓 끝에 그리움 찍어 한 점 희을 긋는다

시린 눈 손을 잡은 잣나무 푸른 기상
절개를 품에 안고 칠후의 밤을 새면
절망은 희망이 되어 꿈길 찾아 나선다 ➡



바람은 길동무



이영하(22기)

열린 창문으로 슬며시 찾아들어와
무더기로 쏟아지는 세상사들과 함께
바람의 길동무가 되어 볼까나

새벽을 깨우는 까치들의 희망찬 수다가
싱그러운 아침을 열고 있을 때,
그대의 머릿결을 살포시 스치었던 그 바람이
길동무 되어 가슴에 아름다운 향기를 적시네

햇살 몹시 좋은 날,
행인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질 때,
나는 바람의 길동무가 되어서
눈을 감아도 훤히 그려지는 좁은 골목길을 돌고 돌아
어느 집 빨랫줄에 조용히 머물면서
노스텔지어에 젖어 있는 대도시 어머니의
아들사랑을 진하게 느껴보고 싶네

세상을 사랑살랑 어루만지다가도
 어느 새 몹시 화가 난 듯이
 주변의 모든 것을 미친 듯 흔들어대는구나
 때로는 도심의 가로수에 매달려 거친 소리도 내고
 광고판에 매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며
 시골 신작로에서는 흙먼지를 휘몰아 쳐서
 시야를 흐리게도 하고
 종잇조각을 어지럽게 흩날리게 하며
 시골 장터의 할머니 좌판을 뒤집어엎는
 행패를 부리더라도
 나는 변덕쟁이 바람의 길동무가 되어
 선한 친구가 되길 설득해 가면서
 집시 같은 삶을 살고 싶네

좋은 친구 한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세상에
 생각이 다르고 소통이 잘 안되어도
 모든 것을 다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선량아,
 나의 열정으로 흘린 땀을 식혀주려고
 나의 참지 못하는 줄음을 깨워주려고
 바쁘게 달려오는 바람아! 내 친구여!
 오늘도 너는 나의 길동무가 분명하구나. ➡





비호(飛虎)



김상훈(33기)

푸르른 청춘이 서려
우리의 꿈이 되고

붉은 열정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되었네

창공을 벗 삼아
비호와 함께한지
어언 사십년

번개 치듯 순식간에
충성을 하늘에 묻고

오늘은 나 여기
비호와 함께 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던
나의 동기생들이여

이제는 내가 그대가 되고
그대는 이미 내가 되었다

청춘의 조각들로 어우러져
태산의 큰 바위로 자리 잡은
우리의 이름 비호

억겁의 시공 속에 순간의 기적이
이루어낸 찰나의 인연은 지나갈지라도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리
우리들의 비호여! ➡





최문강(11기)

개나리 진달래 따라 벚꽃들도 다투어 피기 시작하던 4월 어느 봄날, 우연히 서울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어디선가 ‘메추리!’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옛 공군사관학교 캠퍼스였던 보라매공원.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소같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우리 비행기” (윤석중 작사/외국 곡)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풍금소리에 맞춰 즐겨 부르던 동요다.

내가 비행기를 처음 만난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6·25 덕분(?)이다. 내가 살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하루가 멀다 하고 폭음을 쏟아내며 푸른 하늘을 가르던 썩썩이(제트기). 노인들은 귀를 틀어막았지만 아이들은 집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던 그 비행기. 아마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이미 비행기에 대한 꿈과 호기심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모른다.

사관학교는 절도와 규범과 표준과 명예가 생명이며 절대적인 인내가 요구되는 조직이었다. ‘메추리’라는 어색하고 생소한 호칭으로 사관학교의 긴장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직 어려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볼품이 없는 새’라는 의미인 ‘메추리’라는 호칭으로 시작된 생도생활은 새로운 환경과 생활관습에 적응하는 아주 낮설고 힘든 도전이었다.

전반적으로 절도를 요구하는 일상의 생활은 ‘직각’으로 시작되었다. 관념상 ‘직각’은 대체로 딱딱함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실내·외를 막론하고 보행시 방향을 바꿀 때는 ‘직각’으로 돌아야 하는 ‘직각보행’으로, 절제되지 못했던 민간인 걸음걸이는 절도 있고 생동감 넘치는 보행방식으로 훈련되었다. 다리가 꼬이고 어설피 처음에는 피식 웃음까지 나왔다. 생도다운 절도와 당당함이 드러나는 걸음걸이로 단련하는



과정이었으나 오리 새끼의 뒤뚱거리는 걸음마냥 너무나 어색하였다. 내가 직각으로 방향을 바꾸면 동행하던 민간인들은 멍칫 황당해 하는 눈치였다.

식사관습 역시 놀라움 그 자체였다. 듣도 보도 못했던 ‘직각식사’였다. 식탁에서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가락은 수직으로 입 높이까지 올려 수평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머리를 숙여 식판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직각식사’의 핵심이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욱 어려운 것은 국물이 있는 음식과 기다란 국수류, 미역국 등은 흘리면 제복을 버리고 그냥 먹자니 조심스러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한창 먹을 나이에 배는 고프는데 맘대로 먹을 수 없었다. 시내에서 식사라도 하게 되면 마치 외계인을 구경하듯 신기하게 쳐다보기가 일쑤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다행스럽게도 1년이 지나니 ‘직각 식사’ 훈련은 자유스러워졌고, ‘메추리’라는 호칭은 ‘생도’로 바뀌었다.

‘직선’은 생도생활의 필수였다. 선(線)은 제복의 생명과 같다.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나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움이 드러나는 멋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매일 입는 제복은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고 반듯하게 줄이 서 있어야 했다. 특히나 예복을 입고 행진을 할 때는 옆줄과 뒷줄, 심지어 대각선까지 자로 잰 듯 직선이어야 하며, 어깨에 멘 총도 동일한 각도에 있어야 했다.

생도의 일상생활에서 ‘선과 직각’은 잘 맞는 짝꿍이 되어야 여유로웠다.

내무반에서 침구를 정리할 때도 ‘선과 직각’이 반듯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두리몽실하게 정리가 되면 영락없이 공간이 뒤집혀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곤 했었다. 관물함 정돈도 침구정돈과 마찬가지로 ‘직각과 선’으로 깔끔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뒤탈이 없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뀐다.’는 말과 같이 바깥 세상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보라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밀한 훈련이 4년이란 세월동안 부단하게 이루어졌다.

‘직각의 메추리’와 ‘선(線)의 생도생활’을 거친 후에는 ‘곡선의 조종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3차원 공간에서 펼치는 비행훈련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곡선의 예술’ 같으나, 조종사들에게는 생사를 건 피말리는 생존 훈련이다.

‘직선’과 ‘곡선’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힘이 조화를 이루는 고난도의 기동 중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내 몸무게의 몇 배가 넘는 힘이 나를 찍어 누를 때마다 얼굴은 찌그러지고 눈앞은 가물거리 어금니가 부러지도록 악다물고 이겨내야만 했다. 등줄기에서는 쉬지 않고 땀이 흘러내렸다.

공중에서의 격렬한 시간들이 지나고 활주로라는 땅을 다시 만나려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마치 백조가 물 위에 사뿐하게 내려앉는 모습으로 착륙하여야 안전하게 그날의 비행훈련이 마무리된다. 안전은 비행의 꽃이요 자랑스러운 공군비행문화의 씨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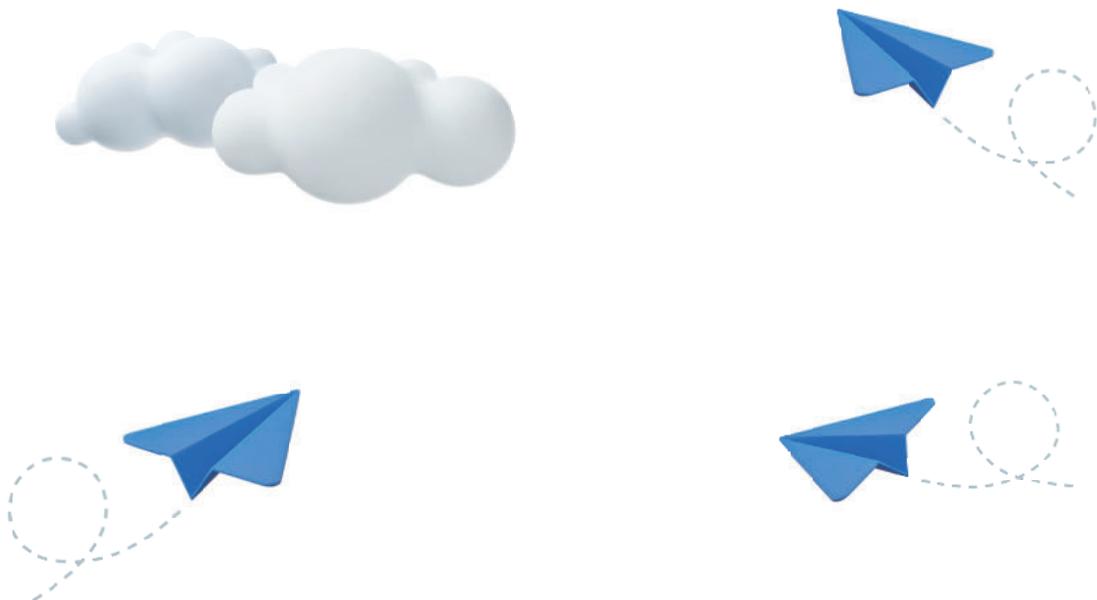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처럼 교육이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직각’과 ‘선’과 ‘곡선’의 세계에 내 반평생을 바쳤다. 동기생을 잃은 슬픔, 이륙 직후 엔진이 정지되어 넓은 들판의 보리밭에 비상착륙하여 살아난 기적, 대간첩작전에 비상 출동하여 교전 중 피격되어 긴급귀환을 해야만 했던 아슬아슬한 비행과 공중사격대회에서 우승한 기쁨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흔적들도 오래도록 훈장처럼 남아 있다.

지금도 간간이 들리는 날쌌 전투기의 굉음에 내 젊음을 바친 저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땀으로 흠뻑 젖은 조종복에 하얗게 소금꽃이 피었던 때가 새삼 그리워진다.

내 ‘보라매’의 꿈이 영글었던 옛 교정을 나오면서 다시 생각한다.

나는 ‘대한민국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키는 힘’인 ‘보라매’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언제나 큰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싶다.

이제 나는 보라매공원의 ‘에어 파크(Air park)’에 전시되어 있는 역전의 용사들의 체온이 남아 있는 전투기들처럼 조용하고 담담하게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



T-50 회고(回顧)와 감사(感謝)



박병구(28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약 8조원을 들여 한국 최초의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말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7년째가 되는 현재까지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시제작을 거쳐 지상시험을 완료한 시제1호기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후 약 4년에 걸쳐 2200여 소트의 비행시험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2년간 통합시험단장으로서의 책임을 담당하였던 경험 때문인지 보라매의 비행시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의 두근거림을 부인할 수 없다.

개발비행시험의 과정은 매 비행이 해당 시제기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최초의 비행이 된다. 따라서 개발비행시험 과정을 영역확장(Envelope Expansion)의 과정이라고도 한다.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되는 영역부터 최대성능의 영역까지 개발항공기의 요구된 성능을 확증해나가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항공기의 설계성능과 운용요구도에 대한 충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가능한 시험을 통해 데이터로 입증되어야만 한다. 지상에서 각종 계통들의 통합시험이 완료된 후부터 드디어 항공기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비행시험이 진행된다. 비행시험을 통해 획득된 실 계측자료들을 설계해석결과와 정밀 비교분석한 후 다음 영역으로의 확장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비상상황에 대비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여 관리하지만 100% 완전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시험비행과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역확장 과정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최대성능을 비롯해 비정상상태에서의 회복능력 등을 검증해야하는 임무들은 일반 조종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비행들이 많다. 당시 이러한 고난이도의 비행시험을 위한 특수목적용 시제기를 제작하여 운영하였는데 바로 꼬리부분에



Spin-Chute를 장착한 시제2호기였다. 회복불능의 상태에서 최후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정상작동 여부를 비행 중 확인해야 하기도 했다. 비행장 상공에서 의도적인 고영각(High Angle of Attack) 상승비행으로 조종불능 상황을 만든 후 항공기의 회복성능을 시험하는 비행시험은 모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최대하중 시험 중 실핏줄이 터지는 하중을 지속적으로 견디며 토해내는 시험비행요원들의 신음소리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T-50 개발비행시험 중 발생한 여러 비상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저고도 초음속하에서의 최대 마이너스 G를 시험하는 비행이었다. 저고도에서의 초음속 비행은 육지상공에서는 금지된 비행이다. 충격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임무는 남해바다 상공의 방공식별구역(KADIZ)의 경계를 따라 해상항적이 드문 해역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5000ft 상공, 마하1.05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1G, -2G, -3G를 순차적으로 가해야 하는 비행시험이었다. 망망대해 상에서 시행된 이 비행 중 마지막 단계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듯 급강하하면서 -3G를 확인하며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 뻑하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하나밖에 없는 엔진이 꺼져버린 것이다. 기수를 들어 속도를 고도로 전환시키는 중 10,000ft에 이르면서 감속이 되어 활공속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추력이 없어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강하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엔진의 자동조치로 비행 중 엔진 재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계기는 추력이 최저인 Idle 상태에 고정된 Hung Stall 상황을 지시하고 있었다. 비행장을 향하여 기수를 고정시킨 상태로 활공속도를 유지하는 강하자세에서 여러 계기들을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Throttle을 조작해 보았으나 연료의 흐름이나 추력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시제기의 각종 계통 상태를 관찰하고 있던 지상통제소에서도 아무런 조연도 없이 망망대해 상에서 바다로 점차 가라앉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아! 큰일이다. 이 항공기는 Spin-Chute를 장착한 유일한 시제기인데…… 이 시제기를 잃으면 T-50 시험을 완료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난망한 상황이었다. 바다의 수면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항공기를 포기하고 비상탈출을 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전방석 조



종사로부터 인터폰이 들려왔다. 최후수단으로써 수동으로 엔진을 껐다가 재시동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다. 즉시 수용하여 재시동하는 순간 엔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Throttle을 움직임에 따라 추력이 반응함을 보게 되었다. 곧바로 서서히 증속과 함께 2800ft에서 다시금 고도를 취하여 성공적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의 원인조사를 위해 거의 한 달 동안 비행시험이 중단되었으나 문제해결을 통해 남은 T-50의 비행시험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이 모두가 은혜요 감사다.

T-50 개발사업이 사고 없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 참여자 모두의 열망과 열정이 모여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였던 것에 대한 하늘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 당시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다. 제대로 된 경험도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개발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 특히 직접 시험비행을 담당한 시험비행조종사 및 기술사들에게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무거운 짐들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도중에 내려놓고 군을 떠나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었겠는가? 비행시험 중 때때로 비상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조치하여 안전하게 귀환해 주었던 그들이 자랑스럽고스럽다.

시험비행 중 발생한 모든 비상상황들은 T-50을 더욱 완전한 항공기로 다듬게 하였으며, 항공기 개발관련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오늘날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블랙이글의 활약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T-50의 경험이 KF-21 보라매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의 비행시험과정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견실한 보라매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어쩌다 한의사 2



차종환(29기)

비행장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수 없이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며 조종사를 꿈꾸어 오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나는 정원에 심어진 나무가 되었다.

우리는 디자인에 따라 다듬어지고, 잘려 나가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주어진 환경을 견디며 꽤 모양 나는 사람, 국제 신사로 만들어졌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복이 커버해 주었다.

새삼 돌이켜보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했던 젊은 군시절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얼마 전 탑건2가 개봉됐을 때 아내와 함께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다시 한번 매버릭과 함께 비행에 몰입해 볼 수 있었던 가슴 벅찬 순간은 순전히 젊은 날의 가슴 뛰게 했던 비행의 소중한 기억들을 소환하였다. 지금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추억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었던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기로 했다.

이러한 젊은 날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용기가 있었다.

내 나이 60이 되어 방학 없는 3년의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는 마치 해변의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막막했다. 주변에서는 그냥 졸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가고시를 볼 필요 없다고 말리기도 했다. 한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한의학 과정 때문에 졸업을 하고도 정작 한의사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나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힘을 얻었다. 기적처럼 첫 도전에 네 과목 모두 패스해서 미국 50개 주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코스였다.

이 코스를 돌아 나는 드디어 세 번째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젊은 시절 내가 사랑했던 공군 조종사로서, 또 사업가로서 10년, 지금은 생똥(?)맞은 한의사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시의적

절하게 잘 선택한 길이었던 것 같다.

사업하면서도 아주 재미있고 다이내믹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엔 한의사로서 미국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려 한다.



조여름이라 아침 5시만 되어도 벌써 환하다. 근처에 사는 작은 아들 부부가 장기출장을 떠나면서 맡겨 놓고 간 개(Border Collie)가 오줌이 마렵다고, 밖에 나가겠다고 계속 짖어댄다.

아들네가 맡겨 놓고 간 것들과 합쳐진 닭은 20마리나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엔 닭장이 3개나 된다. 아침이라고 수탉이 계속 울어댄다. 시끄러워서 잠을 더 잘 수가 없다.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지자 이웃들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던 터라 더 버티며 잠을 잔다는 것은 보통 뻔뻔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어나 애들 시중을 들어야 한다.

개집에서 꺼내 밖에도 다시 매어주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나서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텃밭에 물을 준다. 그리곤 아침 운동 삼아 겨우살이 준비를 위해 장작을 몇 개 쾅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클리닉에 출근하면 은근히 기대가 된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늘 숙제를 받는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보면서 측은하고 안타까워 어떤 사명감 같은 열정이 솟는다.

통증 클리닉이라 다른 의사들(정형외과, 마취과,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통증이지만, 때로는 고질병 환자들이 한의학을 마지막 보루처럼 생각하고 찾는 경우도 있다.

하루는 입이 비뚤어져 다물어지지 않고 한쪽 눈이 감기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진 구완와사 환자가 왔다.

시침한 후 마음을 안정시키고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병원이 시끌벅적했다.

그녀가 다시 왔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녀는 흥분하면서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울면서 나를 덥석 껴안았다. 모두가 놀라고 나 역시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가슴 벅찬 기쁨과 보람이었다.

또 한번은 아주 오래된 불면증 환자였는데 흑시나 하는 바람으로 왔다.

그동안의 증상과 몸의 상태를 보고 시침과 자석을 사용했다.

일주일 후 그가 왔다. 그는 대뜸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돌처럼 잠을 잘 잤다고, 그 이후 환자들은 거의 불면증 치료를 부가해 달라고 했다. 정말 그들에게 감사했다.

어느 날은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들어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점점 더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는 축산일을 하고 있는데, 쉬임없이 일만 하는 자칭 ‘일벌레’였

다. 뼈 구성과 근육조직을 생각하며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침을 사용해 시침하고 전기치료와 함께 부항치료를 곁들였다.

지금까지 치료 후 이렇게 아프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다음 날 또 방문하여 침대에 누웠다. 치료 후 그는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러곤 그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나아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농장의 일이 산적해 이제부터 일해야 한다고...

그 대신 한 할머니를 보내 주었다. 말초신경이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가 소개했다고... 치료 후 치료비에 톱까지 주고 가셨다.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4년 동안 오른쪽 다리에 작은 부스럼부터 시작해 무릎 아래 종아리 발등 발가락까지 심한 습진에 너무 많이 긁어 대어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변해 있는 60대의 습진 환자였다.

3일 동안 온갖 종류의 서적과 자료를 뒤

지며 숙제를 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했다.

소나무껍질처럼 변한 발등 안엔 물침대처럼 물렁물렁했는데 다음날 왼쪽 발처럼 물이 쫓 빠지고 가렵지 않아 한 번도 긁지 않았다고 했다. 한번 손을 대면 피가 나도록 긁어 대도 시원하지 않았는데 손으로 만지는데도 전혀 가렵지 않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연신 고맙다며 그녀의 꾸들꾸들하고 가벼워진 다리와 발을 만지며 기뻐했다.

나도 정말 신기했다. 어떻게 한두 번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 3주 정도 되었는데 혹시 모른다고 더 치료해 달라고 해 몇 번 더 치료했는데 아직 종아리 부분의 피부 색깔이 약간 어두울 뿐 완치가 되었다. 그녀의 하얀 두 발을 보며 나는 그녀와 함께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들 사례처럼 금방 다 낫지는 않는다. 여러 사례 중에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성공사례들을 나열한 것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어쩌다 한의사가 되어 나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가? 머나먼 미국에서,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금은 어떤 명예도 돈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내 인생을 점점 풍요하고 여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이런 소중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다. ➡



기후위기 시대의 공군



이일수(29기)

기후가 세상의 관심사다. 2019년에 영국 언론 가디언이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신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나 ‘기후위기(crisis)’, ‘기후붕괴(breakdown)’ 등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그 이유로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독자들과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기후위기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기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기후는 인권의 문제이다. 기후의 심각한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이다. 전지구적으로 가뭄이 닥치면서 세계의 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다. 그 외에도 지금도 계속되는 시리아 난민 문제는 기후난민으로 규정지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생존과 관련되는 인권의 문제이다.

둘째, 경제적인 문제이다. 기후 경제학 이론으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급작스레 기후 균형이 깨지는 ‘티핑포인트’가 문제이면서 기온이 5도 정도 오르거나 내리면 기후의 레짐(체제)이 바뀐다고 주장하면서 “인류 운명을 놓고 룰렛게임 같은 도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탄소제로를 선언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과 생산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무역장벽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하는 문제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남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의 국가 존폐위기, 생물다양성의 절대적 파멸로 인한 대멸종 시기의 도래, 세계 문화유산의 파괴,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공간의 사라짐과 농

경지의 절대적 감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들이 우리의 바로 주변에 와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면 항상 거론되는 화제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완화하기 위한 공군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기후위기 전망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의 행성으로 탄생하였으며, 지구 내부가 핵, 맨틀, 지각으로 나누어지면서 해양과 원시 대기가 형성되었다. 원시 대기와 바다의 상호 작용으로 약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기후위기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농도가 280ppm에서 415ppm으로 높아졌으며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할 때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온실가스의 발생이 증가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

IPCC¹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CO₂ 농도가 2100년 538ppm에 도달할 경우) 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47cm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면의 상승과 이상기상현상 빈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고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1990년대에 처음으로 빙상을 인공위성으로 감시하기 시작한 이래, 남극 대륙 해빙은 현재까지 전 세계 해수면을 7.2mm 끌어올렸고, 그린란드 해빙은 해수면을 10.6mm나 상승시켰다. 최근 측정에 따르

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UN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그 산하기관인 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서, 인간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 영향 및 실현가능한 대응전략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단, IPCC는 연구수행이나 기상관측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 IPCC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 세계 학계, 정부 및 산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표준 참고자료로 평가받는다.

면 전 세계 해수면은 해마다 4mm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란드 빙하의 얼음 질량은 평균 매년 278 ± 11 Gt(전 세계 해수면 상승은 매년 0.77 ± 0.03 mm에 해당)의 속도로 줄어들었다. 한편, 남극 대륙 빙하의 얼음 질량은 평균 매년 155 ± 19 Gt(매년 0.43 ± 0.05 mm)의 속도로 줄어들어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해수면 높이는 1993년보다 74.8mm 상승했다. 2100년에는 1990년보다 0.75~1.9m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평균 지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또한, 극한적인 강수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 또한 증가하여 계절 간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지난 106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237.4mm이며, 10년마다 약 16mm씩 증가하였다. 특히, 여름 강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해를 가져오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30년(1912~1941년) 평균 연 강수량이 1181.4mm이며 최근 30년(1988~2017) 평균은 1305.5mm로 124.1mm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2000년대의 연평균 강수량은 1970년대보다 144m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0년 동안 기온상승으로 우리나라의 계절이 변화하였다. 봄은 13일, 여름은 10일 빨라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각각 9일, 5일이 늦어졌으며, 계절 지속 일은 여름은 98일에서 117일로 19일 길어졌으나, 겨울은 109일에서 91일로 18일 짧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공군

일반적으로 군사분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배출량은 모른다. 2015년에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에서도 각국 정부가 자국 군대 및 국방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군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약 388만톤이라고 밝혔다. 이는 3021년 국방부가 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정책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수치다. 한국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 등 전국 공공기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능가했다. 2021 환경백서를 보면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783개 공공기관의 전체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톤이었다.

우리 공군기지도 위험기상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기지의 존립 가능성이라든가 폭염, 폭설,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얼마나 수립되어 있는지도 관심이 필요하다. 기후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관한 센터'를 조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04년 발표된 미국의 '펜타곤 보고서'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처럼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다툼이라기보다는 급변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것이라고 본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자연재해가 핵 위기나 테러보다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미국 정부로 하여금 군사전략 개념은 물론 국가안보 개념을 기후변화에 맞춰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다.

자연재해, 식량과 물 부족, 감염병, 난민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작게는 일선 부대 병사부터 크게는 국가의 대외 정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매우 넓다.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는 장비 건강을 위협하고 장비 운용에 제약을 초래한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1978년 김포 제1공수부대에서 공수훈련을 받던 공군사관생도 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상청 기상자료를 살펴보면 그해 7월 20일부터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훈련을 지속하였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지속했다는 것은 무식을 근거로하는 죽음을 담보로 한 훈련의 결과이다. 이런 실수를 지금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펓 공군 기지의 활주로가 홍수로 물에 잠김 모습



기후 위력이 날로 강해지는 태풍은 군사시설과 고가의 첨단 무기 안전을 위협한다. 2018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은 플로리다주 틴들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 17대가 크게 파손돼 20억달러(약2조 256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미 공군 F-22 숫자는 186대. 전체 보유 대수의 10분의1이 허리케인으로 부서진 셈이다.

기후변화는 국제정치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거듭되면,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이는 국가의 내부 사정을 악화시켜 정국 불안정을 초래한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인접국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과 국방부 등에서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한반도는 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군 차원에서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폭염이나 한파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장병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 차원의 재해 피해 지원과 구조 체계를 확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태풍이 해안이나 격오지에 있는 군사시설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고민하고, 취약점을 보강해 인명 재산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북한 핵 미사일처럼 국가안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책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

따르릉! 사무총장입니다!



이경달(29기)

“따르릉”

“총동창회 사무총장입니다.”

수화기를 통해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 아버님이 공사 1기신데요, 곧 임종하실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항이 지원되나요?”

“네, 동문들께 공지해 드리고, 총동창회의 조기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운구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답변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서 친한 동기생 몇 명을 불러서 그분을 돕고도 싶었지만, 혹시 다른 기수에게 불편한 선례가 될지도 몰라 사과의 말만 반복하였다.

“따르릉”

“총동창회 사무총장입니다.”

이번엔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제가요, 대방동에 공군본부가 있었을 때 어떤 장교와 딱 한 번 미팅을 했는데요. 그분을 찾아 줄 수 있나요?”

“그분의 성함은요?”

“몰라요.”

할머니는 요즘도 가끔 똑같은 일로 전화를 하신다. 아마 할머니에겐 그 장교가 첫 사랑이었나 보다. 찰나에 불과한 만남의 시간이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그분의 삶이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두어 번 똑같은 전화를 받은 후, 안타까운 마음에 ‘서울 김 서방 찾기’와 같은 그분을 찾아보려고 비슷한 나이의 선배님들을 떠올려보았지만, 설령 그분을 찾는다고 해도 그분은 이미 그 할머니가 찾는 그분이 아닐 테니.

“따르릉”

“총동창회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필승” 경례부터 시작되는 옛된 여성의 목소리다.



“필승! 70기 동기회장 ○○○생도입니
다. 이번 총동창회 설명회 때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총동창회 활
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생 회의 결과 동기생 전원이 총동창
회 평생 회비를 내겠다고 동의하였습니
다. 혹시 다음 달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
여 입금해도 되겠습니까?”

동기회를 이끄는 임원진의 리더십과 동
기회의 단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전화 통화만으로도 그들의 활기차고 멋진
모습이 그려졌다.

더불어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 경향
이 강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정말 어려
울 것이라는 나의 편견이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다. 더구나 아직 임관도 하지 않은 생
도 4학년의 쥐꼬리만한 월급이 아닌가?

그날은 그 후배의 목소리가 온종일 귓가
에 남아 있었으며, 내가 그 젊은이들의 선
배라는 것이 가슴 뿌듯했다.

이후 3월 4일 70기 178명 전원의 평생회
비 3,560만 원이 완납되었다.



“따르릉”

“총동창회 사무총장입니다.”

굵고 낮은 남성의 음성으로 ‘수고가 많
다’라는 격려의 말씀부터 들려왔다.

“사무총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번
○○기 동기회 모임에서는 입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무장학금 1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장학회 운영
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
어요.”

각 기수별로 임관 기념일은 챙기지만,
입교 기념일은 사실 잊혀지기 쉬운 기념일
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입교기념모임
을 통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
니 아직도 청년 장교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해 동기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멋진 기념일을 만
들어 뜨거운 동기애를 이어나가시는 선배
님들을 보며, 5년 후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
보기도 했다.

“따르릉! 앞에서 보낸 사무총장의 시간들!”
총동창회 사무총장의 일일 업무는 주로
전화 주고받기로부터 시작된다.

공사 1기부터 70기까지의 70개 동기회
임원진과 외부인사는 물론, 1만여 명의 회
원들과 회원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이
다 보니 전화가 일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 계획과 집행, 장학
회 운영 관련 업무도 있지만, 그것 또한 전

화나 이메일, SNS로 처리된다.

한 달에 10~20여 건에 이르는 부고와 심심찮게 걸려오는 동기생과 선후배의 연락처를 묻는 전화를 받다 보면 때로는 내가 너무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는 건 아닌가 하고 반성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전화를 받고 나면, 한동안 멍멍한 감동으로 활력을 되찾고 내 삶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그래서 사무총장이란 역할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낸다.

얼마 전 100세를 바라보시는 어느 왕고 참 선배님께서 총동창회 홈페이지의 장학금 기부금 실적을 보고 미안해하시며, 동기회 명의로 금일봉을 보내 주셨다.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찾지 못한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초심의 자긍심과 동기회를 너무도 사랑하는 열의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뿐이다.

또한 딸의 혼사를 잘 치렀다며 감사와 함

께 기부금을 보내주신 선배님도 계시고, 총동창회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금전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총동창회 사무실은 지치거나 따분할 틈이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회원들의 따스한 미담과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묻히고 마는 경우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알고도 어찌할 방법을 몰라 모른척해야만 하는 경우이다.

사람 사는 동네에서 어찌 좋은 일과 감사한 일만 있을 수 있을까마는 막상 안타까운 일 앞에서는 개인의 생각과 공적인 업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야 총동창회 업무를 조금 알려고 하니 벌써 임기의 전반부가 훌쩍 지나갔다.

후반부에도 많은 중요한 행사와 업무들이 남아 있어 기대와 걱정이 앞서지만, '따르릉' 전화기 앞에 서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다. ➡

공짜에 익숙한 나의 모습



김오현(30기)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많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반면에, 아이로부터 전 달받는 행복감과 사랑의 느낌은 주는 것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한다. 첫 아이를 출산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며 품에 안았던 아이의 따뜻한 느낌은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것 같았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주고받고의 관계는 동기생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동기생 일을 하니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시간이 바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을 세상의 다양한 부분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 같다. 세상 일이란 주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도 같은 크기로 있 기에 일방적 희생이란 한쪽 측면만 보아서 생긴 편견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한번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덕분에 군인봉급을 받아 2명의 아이들을 대학과 대학원 등록 금을 내고 졸업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지를 실감하였다. 오늘날보다도 대학등록금이 더욱 부담이 되던 시절에 나는 대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번도 등록 금을 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께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렸지만 그만큼 군 과 국가에는 많은 빚을 지고 산 셈이다. 졸업 후 40년이 지나면서 마음에서 감사함을 갖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감사함을 보답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다.

동기생 일을 시작하면서 임관 50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수별로 공사발전기금을 최 소한 1억 원 이상씩 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공사 교육진 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 납부자 명단을 보았다. 3기 이종학 선배님은 사재를 정리하여 2억 6천만 원이라는 기부금을 내셨고, 가깝게는 27기 최동환 선배님도 1 억 6천만 원, 까마득한 후배인 66기 강성규 대위도 7천 4백만 원을 냈다. 액수의 많 고 적음을 떠나 매달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우리 동기생인 공사 30기에서도 40여 명의 동기생이 참여하여 많게는 1천만 원부터 적게는 10만 원까지 기부하여 동기생 전체로 보면 5천만 원 넘는 기부금을 이미 내고 있었다.

이런 현황을 보며 발전기금 한 푼 내지 않고 살아온 나 자신이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사관학교를 통한 학부과정은 물론이고 군 위탁교육을 통해 취득한 석사, 박사학위,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는 적지 않은 연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회생활 등을 하면서 나 잘난 덕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난 모습보다 군과 국가에 신세진 부분에 대해 감사함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동기생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황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감사함에 보답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년 5월부터 연금 수령액 중 십만 원을 공사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주변의 몇몇 동기생들,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66기 후배기수부터는 매월 일정액을 긴 시간 동안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07년 쯤 국방대학교 리더십학과에 근무하면서 숙명여자대학교 이경숙 총장을 방문하여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을 벌였다는 사례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기부금을 졸업한 동문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졸업 후 대부분 가정주부로 돌아가는 여자대학교의 실정상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였다. 94년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전에 가장 많은 모금실적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하면서, 개교 100주년을 맞는 2006년도까지 기부금 목표액을 1천억 원으로 제시하니 모두 불가능한 목표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하였다.

결혼 후 주부로 지내느라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던 동문들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니 누적 졸업생이 4만 3천 명 정도였고, 기부금을 받기위해 졸업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학교발전의 꿈과 비전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당시 등록금이 1백 50만 원 수준이었고, 졸업생 1명이 한 달에 5만 원씩 30개월만 보내주면 6백억 원을 모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진행된 운동이 10년 만에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실적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덕분에 숙명여대는 캠퍼스 부지가 2배로 늘었고, 건물 20동이 새로 지어지는 등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등록금 한 번 내지 않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내 입장에서는 당시 들었던 이경숙 총장의 사례는 많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다” 미국에 일찍이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심인태 동기생은 고국에 방문하면 군의 각종 단체에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공사발 전기금 납부실적도 1천만 원을 약정하고 현재 8백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부문화가 일반화되다 보니 본인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짜란 우리 삶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등록금을 내지 않고 수업을 받았던 사관학교 강의장에서의 모습들이 그리 열심히지 않았던 것 같고, 학기가 끝나고 내무반 이동을 할 때 공짜로 받았던 교과서가 쓰레기장에 많이 버려졌던 사실도 기억이 난다.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의 수고가 투입되지 않았기에 그 결과도 큰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녔던 민간대학 졸업생들의 기부문화와 비교되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기부문화, 그 원인이 공짜에 익숙한 우리들의 습관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행하기에 제일 빠른 시간이라고 한다. 자기 처지에 맞게 적은 금액이지만 모교인 사관학교를 위해 보답할 때라고 생각되어 글을 적어 본다. ➡



성무대를 떠난 보라매



소위 김나우(70기)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인고의 4년 동안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생도 정복에서 반짝이는 다이아 계급장이 달린 어엿한 장교 정복으로 탈바꿈을 한 183명의 공군 신임 소위가 기쁨의 독수리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선창하는 동기회장으로서 동기들 한 가운데에 서 있던 저는, 짧고도 굵던 우리의 목소리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1,507일간 치열한 삶을 살았던 183명의 눈물과 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희열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각오한 한 명, 한 명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70기는 그때의 전율과 감동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품고 각자의 임지에서 새로운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초등 비행 과정에 입과하여 조종사의 길을 향해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틱과 레버, 모든 계기와 용어들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인지, 비행기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모르는 것 투성입니

다. 그렇지만 조종사라는 이 소명이 저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서툰 발걸음일지라도 공군에 이바지하는 조종사가 되려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존경하는 형제 기수와 사랑하는 동기가 맞이한 비운의 사고를 보고 들으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질풍 6중대의 중대장 생도로서 능름하게 중대원들을 진두지휘하던 한 선배님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주고받던 메시지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더 이상 그분의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더불어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과일렛이란 직업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조종사 생활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위협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고,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던 조종의 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거치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이런저런 생각에 방황 아닌 방황을 하던 와중, 졸업 후 오랜만에 보라매문을 지나던 저는 벽면에 적힌 저 문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문득 저는 지금 걷는 이 길이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닌, 나의 동기들, 선·후배 그리고 국가가 함께 걷는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고 줄곧 바라왔던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성무대는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창군 이래로 대한민국 공군은 경중을 따

질 수 없는 안타까운 비행 사고에서부터 고인 피와 눈물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웠던 최근의 사고들이 모여, 저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비행하는 발판이 돼 줄 것입니다.

보라매 문을 나서며 저는 다음과 같은 시를 떠올렸습니다.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저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제 그림자를 보고 도망치는 짐승과 달리, 저의 그림자와 두려움을 당당히 마주하기에 저는 인간이며 공군의 장교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공군 조종사라는 길에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나 걸을 수 없는 힘든 길이기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 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제가 걸어온 발자국을 되돌아봤을 때는 선·후배에게, 국민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소위 박영후(70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가 임관 이후 재정처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뇌리에 남는 것이다. 국가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아마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재정인'이라면 당연히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익숙한 법률이다. 이것이 가장 뇌리에 남는 이유는 나 역시 여러 가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을 많이 살펴보기도 했지만, 아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이라는 문구에서 내가 하는 일이 국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무게감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불꽃같던 4년간의 생도생활을 마치고 맞이한 졸업의 기쁨도 잠시, 졸업과 동시에 임관한 사람으로서 바뀐 것은 생도에서 소위라는 호칭뿐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성무대에서 교육받는 생도가 아니라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에서 근무하는 장교로서 제 몫을 다해야 했다. 여러 규정과 지침을 살피며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크고 작은 액수의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것까지, 임관 후 맞이한 장교의 삶은 낮은 업무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다. 저마다 많은 고민거리와 힘든 점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미래계획에 관련한 이야기였다. 군 복무를 언제 마치고 대학을 언제 졸업할지, 어떤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격증을 따고 취업준비를 할지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와중 나도 그 사이에서 임관 후 아직 익숙하지 않고 계속 밀려드는 업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그 힘들음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는 하였다.



“그래도 좋겠다.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맞는 말이었다. 나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정해진대로 모두 이수하여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했다. 그리고 지금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급여와 수당을 규칙적으로 받고 있었다. 웬만해서는 실직할 걱정 없이 앞으로도 이런 일상이 반복되리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고, 제법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수많은 인생의 선택지 중에서 ‘쉽지 않은’ 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일이 바쁘고 힘들지언정, ‘직업군인’은 확실히 다른 삶에 비해 걱정할만한 변수가 적은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렇게 나는 바쁘고 힘들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휴일의 연속에 동화되며, ‘안정적인 직장’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어느 날이었다. 내일 출근해서 처리해야 계약 건수를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작대고 있었는데, 우연히 눈앞에 ‘공군사관학교 70기 졸업 및 임관식’ 동영상이 띄워졌다. 그 동영상을 클릭한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날의 행사를 다시 돌려보며, 불과 몇 개월 전 성무연병장에 서있던 그때의 감정을 되새기며 묘한 감상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행사 식순 중 ‘임관 선서’를 하는 장면이 지나갔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순간,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슬하에 살피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무심코 떠올랐다. 임관 선서의 내용이 마치 계약서류의 일부인 것처럼 다가온 것이다. ‘선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다짐과 맹세를 하는 행위라면, ‘약속’을 한다는 큰 틀에서 계약을 맺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사회의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업을 상대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 그렇다면 나는, 임관 선서를 통해 일종의 계약을, 그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 내가 성무연병장에서 한 임관 선서는 장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국가와 국민 앞에,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그럼 장교로서 삶을 그저 '안정적인 직장'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군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는 이미 사관학교에서 충분히 배웠다. 군인은 살상 무기를 다루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전쟁법에 따라 전시에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합법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는 재정처 사무실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든, 어느 특기에서 어느 임무를 수행하든 변하지 않는다. 생사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직장을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임관한 지 수개월 만에 '안정적인 직장'에 길들여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무게를 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린다고 해도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변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만일 위기가 정말로 닥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후에 '계약'의 무게를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반복되는 하루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에 매몰되어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는 것은 '계약'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임관 선서를 한 장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맺은 군인으로서 그 무게와 책임감을 인식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한다면,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계약'을 조금 더 성실히 이행하는 장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상담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정주(32기)

필자는 정훈장교로 28년간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정훈교육, 문화활동, 상담활동을 지원하였다. 근무 중 힘든 장병들을 위로하고 면담하면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2008년(방공포병사령부 정훈참모 근무)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여 2010년에 졸업하였다. 공군에서 학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다. 이후, 심도있는 상담을 위해 동 대학원 1기로 입학하여 상담심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였고 보람있게 졸업하였다.

이후 리더십센터에 근무하면서(상담심리대학원 재학 중) 리더십센터 및 공사 장병들을 상담하였다. 장병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전역 이후에도 청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민간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가족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7월 1일 부로 공군19전투비행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임용되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한 즐겁고 행복한 병영 문화 조성'의 병영상담관 활동비전을 세우고 상담활동에 전념하였다. 주 업무로 사고 우려

자, 도움·배려 장병들에 대한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상담과 복무부적응 장병 관리를 위해 지휘관 및 주임원사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장병 사고 예방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부대 간부와 또래 상담병사에게 지속적인 '병영생활상담기법'을 교육하였다. 리더십센터 정신교육팀장(당연직 교관)을 하면서 강의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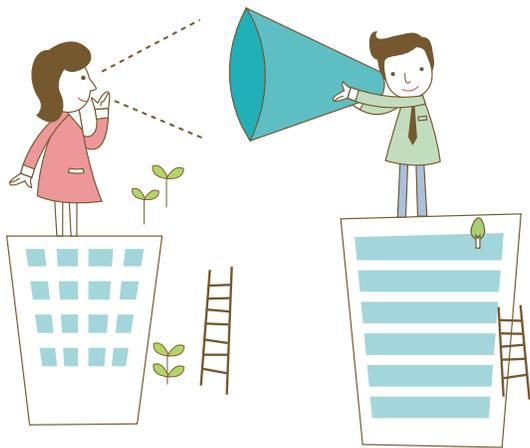
그간 비행단 및 파입부대 자살사고 징후자 위기상담과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 장병을 상담하여 다수를 위기로부터 구하였고, 대대 간부와 병사간 갈등이 심할 경우 '부서 안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런 노력이 인정되어 91공병전대장 표창(2018. 11) 등 5회 단장 및 전대장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부대 전입 3개월 이내 장병에 대한 집중 상담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일조하였다.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

아울러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교육 외에도, 지속적인 신병부대적응교육, 초입간부

인성교육, 장병 인권교육(올바른 언어생활 등) 아싸캠프(전역병 교육) ‘행복한 인생설계’, 상병진급캠프 국가관 교육(국가안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을 교육하면서 장병들의 인성함양과 정신전력 증진에도 일조하였다.

또한 또래상담병사 활동관련 하여 ‘또래상담(솔리언)병사 운영실천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공군에이스리더십 제 10호 <2019년 1월 발행/공군리더십센터>)를 게재하여 창의적인 상담활동을 지속 하였다.

필자는 5년 6개월간 19전투비행단 병영생활상담관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상담 및 교육에 충실하였고, 2020년 12월 말 60세 정년으로 일단 퇴직하게 되었다. 그간 힘든 병사들이 상담을 받고 변화되어, 만기전역을 할 때는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 지휘관 및 주임원사와 업무 협조를 통해 큰 대과없이 무탈하게 장병심리 안정화와 병영생활 명랑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국방부 병영상담관 채용 응시에 합격하여 재임용되었다. 근래에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군에 부적응하는 장병들이 많이 입대하고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장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소망이 지금도 여전하다.

앞으로도 그간 상담 및 교육 경험에 창의적인 생각과 기법을 더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상담 활동으로 ‘한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전역 병사에게 군생활 중 상담 받고 무탈하게 만기전역 했다고 전화 왔을 때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비행단 인도를 걸을 때 마주치는 병사들이 필승!! 경례할 때 기쁘고 행복하다. 아 영원한 공군!! 필승공군!!

대인관계 의사소통(상담 · 면담 ·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팁 하나. 영어 LISTEN(듣다, 경청하다) 영문자 해석해서 활용하면 된다. **L** : listen(경청) lean(기울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몸을 기울인다), **I** : ing(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말하도록 하는 것), **S** : smile(웃으면서 화답해 주기) **T** : touch(상대방의 말을 부드럽게 들어준다. 곧 공감해주는 것), **E** : eye(아이컨택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 **N** : nodding(고개 끄덕이기, 내가 당신 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의사소통의 달인이 될 것이다. 공군 선·후배님 건강하고 다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은퇴지식인으로서의 소명



박성보(26기)

정년퇴임한지 13년차, 창설부터 관여하고 사무총장을 거쳐 수석부회장(겸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직접 주창하고 창출한 사업이 “취약 청소년 사회적응 멘토링”이다. 취약청소년들이란 보호유자녀를 비롯한 보육원생(고아), 다문화/탈북민 청소년, 미혼모, 범죄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며, 고급의 사회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지닌 중후한 어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소외계층이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저출산 풍조’이기에, 낳아놓은 아이들만이라도 동량(棟梁)으로 키우자는 소명의식으로써, 절박한 여건의 아이들에게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고 자력갱생의 의지를 북돋아 능력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자는 뜻은, 여생이 완전하게 연봉혜택 수혜자이기에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따라서 전문서적을 독파하여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자료를 집대성하여 “진로비전 정립 및 직업탐색, 사회성기술, 생애설계, 인성순화(폭력예방, 인권의식, 인격수양), 생활안전, 금융상식, 리더십&활로워십”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정부/지자체 및 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몇몇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얼굴에는 온통 상처자국이 선명하고 아무에게나 적대감을 보이고 말투는 거칠기 짝이 없는 고2의 보육원생에게, 튼튼하고 날래서 싸움 잘하고 의리도 강하니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경호원이 되도록 안내했다. 특전사나 해병대, UDT에서 일정기간 직업군인이 되어 특수훈련을 통해 경력을 쌓으면 경호원이 될 수 있다고 했더니, 그 아이는 기어코 특전사에 입대했다.

또 보육원 탈출을 일삼는 중2 학생이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 하기에 직업만화가를 소개해 주었더니, 그림공부와 이야기꺼리를 만들기 위해 독서에 빠져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책값으로는 용돈이 모자라자 책을 사달라고 원장을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탈북민 엄마가 중국에서 낳고 한국으로 오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으나, 언어장벽으로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좌절하여 “누구라도 찌르고 차라리 감방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자, 중국어에 능통하니 통역사나 외교관을 도전하라 조언 했더니 검정고시로 대학생이 되었다.

매스컴의 사회면을 채우는 끔직한 사건에는 많은 취약청소년 출신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일깨워 확신시키는 순간부터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성공의 길로 내달을 능력이 있다. 그들을 불우한 환경에서 건져내면 우범가능성도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젊은 인재가 부족함을 그들을 선도하여 메워보는 것도 실효적인 대응책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령자로서 여생을 이런 일에 보탬이 되는 역할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보람된 은퇴자로서의 길이 아닌가 싶다. ➡

미생(未生)



이형걸(32기)

프롤로그 : 2015년 말에 전역하였다. 2년 동안 항공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했다. 그 후 인생 2모작을 시작했다. 취업 유목인이 되어 이일 저일 하던 중 2020년 봄 인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정착했다. 기대를 안고 창대하게 출발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022년 봄 퇴직하기까지 군대가 아닌 사회 첫 직장생활을 파노라마처럼 엮어보았다.

#1. 시니어 인턴, 강남으로 출근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다. 50대 이후 중년 퇴직자에게 놀이터, 쉼터, 일터, 교육터를 제공한다. 나는 그중 일터를 선택했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 모집 회사 리스트를 봤다. ABC(가명)라는 시니어 패션모델 양성 공연기획 회사가 눈에 번쩍 들어왔다. 세상이 전역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도 강남이다. 이거다 싶어 원서를 냈고,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면접을 봤고, 합격했다. 오른팔로 어깨뿔을 올리며 소리쳤다. “그래, 나는 강남으로 출근하는 중년 남자다. 새 인생을 펼쳐보자~”.

회사는 삼성역 인근이고, 삼성역은 코엑스가 있다. 강남의 심장부다. 출근하면 시니어 패션모델들이 연습하는 음악 소리가 나를 먼저 반긴다. 음악의 강한 비트에 맞춰 모델들이 워킹을 연습한다. 모던 워킹, 파워 워킹, 클래식 워킹. 늘씬한 모델 강사들은 마이크를 들고 교관처럼 구령한다. 나는 귀가 즐겁고 눈이 호강한다. 점심은 고급적 코엑스 지하 쇼핑몰에서 즐겼다.



회사 소속 시니어모델 공연 모습

#2. 코로나, 너는 누구냐?

세상이 이리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거리는 텅 비고, 전철 안은 한가했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가게가, 식당이 죽었다고 말한다. 코비드-19. 그놈은 남녀노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았다.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면 죽는 줄 알았다. 무지(無知)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시니어 모델이 회원으로 운영되는 우리 회사도 잠시 문을 닫았다. 거리두기 시행으로 시니어 모델들이 연습을 중단한 것이다. 회사 내에는 100평 규모의 플로어와 무대가 있고 30평의 사무공간이 있다. 그 넓은 공간에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직원들은 출근했다. 체온 측정을 교범보다 더 강조하고 마스크를 꼭 조인 채 출근했다. 회원모델들이 나오지 않아 넓은 모델 워킹 연습공간이 사막처럼 황량해지니, 직원들은 출근했다. 그러다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 시니어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다시 나오지 않기를 수차 반복했다. 손자가 있는 집안은 자식들이 절대 외출을 금지한다고 전해 들었다. 매출은 줄어들어 회사 운영 유지비(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등)가 압박을 받았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델 강습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시니어들이라 디지털 마인드가 부족하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렸다. 새해부터 들이닥친 코로나의 공습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겨울에는 더 극심했다. 2020년은 끔찍했다.

#3. 공군 신병 1, 2, 3지망 모두 백령도 지원

나는 공사 32기, 회사 면접관이었던 상임고문님은 병 179기, 재무행정을 맡았던



김 이사님도 병사 출신. 내가 합격한 이유가 이건가 했다. 회의 때 회사 업무보다 각자 공군 시절 이야기가 더 많았던 적도 있었다. 고문님은 시인이다.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약간의 기인적 기질도 있다. 당연히 술을 좋아한다. 70대 중반인데도 회사 제안서와 외부 업무 공문을 직접 작성한다. 의자에 앉으면 남다른 집중력을 발휘한다. 간혹, 나에게 “이팀장, 저녁에 시간 있슈~”라고 은근히 말을 걸면, 나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술을 잘못하는 나는 그런 저녁 시간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고문님은 지나가는 말투로 “드으럽게 비싸네……”라면서 포기한다.

고문님의 공군 신병 시절 이야기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화개장터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고문님 고향이다. 20대가 되어 병역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군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 겁이 났다는 것이다. 어느날, 교회 목사 사모님 동생이 공군 백령도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희망의 끈을 잡은 고문님은 공군을 지원했고, 관제 특기를 받았고, 배치 희망 부대를 작성할 때 1, 2, 3지망 모두 백령도를 써냈다. 그날 주임원사는 고문님을 호출했다. “조이병, 친인척 중에 북한에 사시는 분 있나?”. 면담이 아닌 심문이 이어졌다. 백령도 높은 분(?)에 대해서는 숨겼다. 혹시 못 가게 될까 봐. 어찌 됐건 우여곡절 끝에 백령도에 배치받고 기분이 좋아진 고문님은 교회에서 그분(목사 사모님 동생)이 아는 척해 주길 원했으나, 끝까지 눈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줄병이 감히 간부님을 먼저 나설 수 없어, 오랫동안 바라만 보았단다. 그 간부님은 그 줄병을 외면했는지, 정말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얘길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이 짠했다.

#4. 지피지기 백전불태에도 회사 이전(移轉)작전 수행

손자병법에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고문님은 나에게 지시를 내렸다. “상대방을 정찰하고 오시오!” 즉, 코로나 시국에 다른 모델아카데미 분위기가 어떠한지, 회원들은 잘 나오는지,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으로 하는지, 수강료는 얼마인지. 나는 “그게 좀..., 들통나면, 어떡하죠, 쉬운 일이 아닌데”라고 했더니, “특명입니다.” 강조했다. 회원 가입하는 척하면서 이곳 저곳 전화를 했다. 상시 모집하는 곳이 있고, 기수별로 모집하는 곳도 있었다. 직접 면접을 보기도 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우 어색한 표정으로 방문했다. 염탐했던 정보를 모아 지휘부에 보고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보다 체계적이고 세련되고 네트워크가 다양했다.



회사에서 모델 가발을 쓰고, 코엑스에서
점심 후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필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결국 교육장을 이전하게 됐다. 제2의 특명이 하달됐다. 교육장 조건은 교통접근성, 100평 규모의 연습장, 강남구였다. 인터넷을 뒤져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3배수로 선정, 보고했다. 현장 답사 끝내고, 역시 전철 역세권이 선택됐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 올 수 있는 위치다. 삼성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구석구석 쌓아놓았던 물건이 나오더니 눈으로 본 물품의 2배 이상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런웨이 철거 이동이다. 런웨이는 모텔들의 공연무대이다.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철거해서 가는 것이 신설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재활용인 셈이다. 새로 이전한 곳은 참신했으나, 좁고 추웠다.

#5. 정부기관 감사 수감

우리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아동, 노인, 여성,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고용복지부에서 5년 계약으로 #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의 핵심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 최초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의 연간 고용, 유지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21년도가 계약연



도 마지막 해이다. 마지막 연도는 속칭 가장 ‘빡센’ 감사라고들 한다. 이 또한 내가 팀장이 되어 준비했다. 과거 군에서 받았던 감사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준비 서류가 책상 가득하고 이사 박스에 꽂 찼다. 특히 출근부 정리가 가장 시간이 걸렸다. 일일이 서명받고, 일명 ‘가라 싸인’도 서슴치 않았다. 고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일괄 급여에 따른 근무시간과 출근부에 작성한 근무시간 총량이 맞지 않아 애를 먹었다. 개인별 출근 요일이 달라 한 달 근무시간 총량이 5주 차에 각기 다른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감소 됐는데, 사전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여감소는 계약 위반이고, 이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후 소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다.

에필로그 : 정부기관 감사를 끝으로 금년 봄 퇴직했다. 다수의 패션쇼와 사진 촬영, 영상편집, SNS 홍보, 119소방관/발달장애인 콜라보 패션공연 추진,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모델들과 친분을 쌓는 등 에피소드가 많았다.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어 50+ 재단에서 인턴 생활 소개도 했고, KBS를 비롯한 미디어에 취재 지원을 했으며, 서초구 ‘서리풀예술제’에 참여도 했다. 반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새롭게 취업한 곳은 우리 회사가 감사를 받았던 그 기관의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장이었다. 수감 기간동안 감사기관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다 보니 정보에 눈을 뜨게 되어 수월하게 이직에 성공했다. 아이러니하다. 인생은 실패와 좌절과 우연과 역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울고 웃는가 보다. 그래서 나의 2모작은 완생(完生)으로 가는 미생(未生)인가. ➡



한광성(20기)



올해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꽃은 매실, 산수유, 왕벚, 백목련, 진달래 등이다.

자목련의 자태는 너무나 고귀하다. 요즈음은 단풍나무를 개량한 닷인지 봄부터 아름다움을 뽐낸다. 빨간색 흑갈색 황갈색 모든 색이 아름답고 볼수록 신비스럽다.

그래도 나는 진달래가 좋다. 어린시절 가까이 했던 추억 때문인 것 같다.

꽃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끊임없이 피고 진다. 자연의 신비로움이다. 사람들이 보고 즐기라고 기획한 것 같다.

전원생활 한지도 어느덧 17년이 되었다. 도시와 매우 가까운 농촌지역이다. 우연한 기회에 전경이 좋아 보여 정착하게 되었다.

매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내 나름의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모두 다르지만 제각기 특징이 있다. 온갖 꽃으로 덮여 있는 집 전경, 멀리 보이는 산,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새소리, 저녁노을, 산책길, 각종 열매와 진기한 약초 채취는 도심 아파트 생활에서는 찾기 힘든 혜택이다.

둘째, 계절별로 과일과 채소를 직접 재배해 맛볼 수 있다.

약간의 수고는 하지만 자라나는 과정을 보노라면 보람을 느낀다.

과일 채소와 정원 가꾸기는 소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힐링이 된다.

욕심 안부리고 적은 양을 재배한다.



셋째, 스윙 연습을 할 수 있어 좋다.

매일 몇 번을 조금씩 한다. 스윙 연습전 스트레칭을 먼저 충분히 한다. 손자 오는 날이면 배드민턴도 한다.

넷째로 친한 사람들과 더불어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다.

한겨울 고구마를 구워 호호 불며 나눠 먹는 즐거움이 무척 크다. 펜션이나 캠핑장이 따로 필요없다.

다섯째, 나무를 재배·판매하여 경제적 도움을 얻는다.

종전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수가 잘 팔렸으나 요즘은 꽃나무가 대세이다. 꽃나무는 없어서 못 판다. 반송이나 조선소나무에 비해 관리하기 쉽고 공간도 적게든다. 중·장기적으로 갖가지 꽃나무를 심고 관리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맛 볼 수 있다. 힐링도 하고 주머니도 채우고...

관리 방법은 인터넷에서 배운다. 판매는 중고나라와 네이버마켓을 활용한다.

여섯째, 사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악기를 다루도 이웃집에 전달이 안되니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전원생활은 일단 아파트에서 유발되는 갈등은 없다. 아래층에서 갑자기 뛰어 올라와 씩씩거리는 모습을 볼 이유가 없다. 막말로 불이 나도 바로 뛰어 나가면 그만이다.

일곱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당하다.

의료보험 감액이 매우 크다. 농자재비와 영농대출 등 저렴하게 지원되는 분야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만족한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인 만큼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꿈을 펼칠 수가 있다.

그러나,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농촌지역에 들어 왔다가 생각과는 달리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아 도시로 다시 되돌아 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교통 불편

자가용이란 기동력 없이는 원하는 목적지에 접근이 어렵다.

나는 대중교통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

걸어서 5분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로 5분거리에 버스 종합터미널이 있다.



2. 음식 배달

대부분 오지에 위치해 배달이 어렵다.

이곳은 배달은 물론 집 주위에 음식점이 10곳이나 모여 있다.

3. 벌레

한여름 바깥에선 긴 옷을 안 입으면 모기들이 물어 뜯는다.

바깥 출입 때는 차단제를 사용하고 연중 세 번 살충제로 방역 한다.

다른 벌레는 들고양이들이 해결하여 주니 친구처럼 진중하게 대한다.

4.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조그만 마을이지만 같이 모여 살고 있다.

CCTV를 설치한 때문인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119구급차 출동 요구시 10분 이내 온다.

5. 난방비

기름보일러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한다.

심야전기 사용으로 비용이 크지 않았고 지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6. 잡초제거 및 정원관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좋은 잡초 제거제가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큰 어려움 없이 관리한다.



7. 아이들 보호시설 및 학교

주위에 육아보호시설이 있고 학교버스가 마을까지 진입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없다.

손자가 주말에 왔다 갔다 할 뿐이다.

8. 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이용

도시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전혀 불편하지 않다.

병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정부기관 등을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9. 야밤 활동

야밤 활동할 일이 별로 없다.

간혹 활동 시는 버스, 자가용, 택시를 이용함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다.

10. 개 짖는 소리

유독 개 짖는 소리가 많은 마을이 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다행히 우리 마을은 조용하다.

11. 마을 사람과의 대인관계

항상 겸손하고 말수를 줄이며 종종 주머니 돈을 털어 대접하니 아무탈이 없다.

12. 모든 일을 직접 스스로

막상 닥치고 보니 해결이 된다.

수도물 누수 막음과 샤워기 부품교체 등,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

혹간 못하는 것은 수리공이 출장 와서 하지만 그리 많지 않다.

결론은 생활하는데 불편 함이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도시와 매우 근접한 곳이 좋다.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을 동시에 맞볼 수 있는 지역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장래성이 있는 지역이면 금상첨화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적성이 다르듯, 판단은 각자의 성향에 기준한다. ➔



베트남 생도 후원인이 되다



최정근(29기)

올해 공사의 어버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6월 17일에야 개최되었다. 딸과 아들이 모두 출가하여 손자·손녀까지 두었는데 뒤늦게 어린 생도의 부모로 초청되어 청주 사관학교에 갔다. 멀리 베트남에 있는 친부모를 대신하여 내가 베트남에서 온 우원 동 주영생도로부터 카네이션을 받게 되었다. 수탁생도 후원인 대표로 단상에 자리를 하니 10여 년 전의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생각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생도시절의 생각으로 가슴이 떨렸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의 기억은 45년 전으로 돌아가 그들 속에 있었다. 행진곡에 따라 저절로 내딛는 발걸음과 팔의 동작, 오른 쪽 어깨에 느껴지는 묵직한 총의 무게, 오와 열과 대각선을 쉴 새 없이 넘나들며 살피야 하는 재빠른 눈동자들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참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는 의욕으로 모두들 신나고 힘찬 분위기였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에 감동어린 모습이었다.

먼 외국에서 온 어린 생도의 후원인이

되어 부모처럼 그를 보살피는 일이 처음엔 너무 무겁게 느껴져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을 내어 실행에 옮기고 보니 스스로도 잘 했다는 생각으로 가슴 뿌듯하다. 내가 베트남에서 온 주영생도와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정말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전역 후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군 전상중 제독(해사27기)의 글을 읽었다. 그분은 베트남에서 한국 해군사관학교로 온 수탁교육생도들을 후원하는 일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공사에도 그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현재 공사에는 베트남을 비롯해서 태국, 필리핀, 페루, 몽골, 터키, 파라과이,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일본 등 10여 개 나라에서 온 수탁생도가 있다. 각 나라의 사관학교 1학년 재학 중 선발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파견되면, 다음해 기본군사훈련(가입교)이 시작될 때까지 국군정보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뒤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진다. 금년에는 16명의 외국 수탁생도들 중 6명이 공사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문득 먼 타국에 와서 낯선 문화와 사관 학교에서 엄한 규율에 적응하려 발버둥치고 있을 그들의 생도생활이 그려졌다. 나도 전상중 제독처럼 그들에게 조그만 힘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곧바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공사 대외협력 담당 주무관과 연락이 닿았고 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알려 주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의아하게 만든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29년차 성년기의 역사를 쌓아온 수탁교육이지만 공사출신 선배로서는 내가 첫 후원인 지원자라는 것이었다. 늦었지만 사랑스런 후배를 돕는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나에게 큰 활력을 주었고 꼭 해야 할 책임처럼 다가왔다. 나에겐 이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중 외국군장교 후견인 경험이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적극적인 공감도 자신감을 더해 주었다.

몇 차례 전화 상담과 검토를 거쳐 드디어 베트남 생도의 후원인으로 지정되었고, 간단한 이력을 보내왔다. 순간, 45년 전의 생도생활이 순차적으로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다. 생도 시절 연애편지를 쓰듯 설레는 마음으로 기본군사훈련 중인 예비생도에게 격려의 편지를 몇 차례 보냈다. 그러



는 동안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조금씩 정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심각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교식이 자체 내부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미뤄지게 되었다. 그나마 영상통화를 가끔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5월이 되어서야 첫 면회가 이루어졌다. 옛날 메추리훈련을 무사히 끝내고 입교식 날 부모님을 만나던 때와 베트남에 계시는 친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며 그들을 만났다.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생도가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외출, 외박 제도의 시행이 중단된 상태로 함께 학교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제일 저학년인 1학년으로서 겪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영생도는 체구는 약간 작고 마했지만 강한 모습으로, 순수한 눈매에 잘 웃는 아직한 어린티를 가진 청년이었다.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내 말뜻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안심

되었다. 훈련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미소를 띠면서도 힘들었지만 견딜만했고, 앞으로도 잘 해내겠다고 말하는데, 마치 자신과의 약속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나라에서 온 만큼 추위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가족의 달 5월이 깊어갈 때쯤 8박 9일간의 긴 특박이 있다고 해서 1학년 주영생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온 2학년 바오중생도, 3학년 황득빈생도, 4학년 탕만청생도, 그리고 올해 졸업하여 아주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70기 팻 중위까지 한꺼번에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모두들 젊은 혈기와 열의로 타국의 생도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더구나 한국의 대학원에도 진학하여 더 많이 배워서 베트남에 돌아가 유망한 장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영생도도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선배 수탁생도와 같이 해서 그런지 훨씬 더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탁생도 제도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국위선양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체계와 정신문화적 기반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위탁교육을 신청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국가로 되었음을 실감하였다. 또한 먼 타국에서 의지할 곳 없이 힘든 생도생활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미력하나마 마음을 내고 돕게 된 것은 모교사랑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생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은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나 자신의 젊었던 생도시절을 떠올리며 동행할 수 있어서 삶의 활력뿐만 아니라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수탁생도 모두가 4년간의 생도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영광스런 졸업장을 받아들이고 귀국하여 모두 훌륭한 간부가 되고, 평생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



나의 생도생활



변성금(28기 김학수 부인)
한양대학교 교수

Take-off

1976년 12월 19일, 그이와 처음 만난 날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막 시작했던 때였다.

나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국악특화 학교였던 우리 모교는 동급생 대부분이 국립S대 국악과를 택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H대 국악과에 전학년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때 S대 국악과로 진학한 친한 친구는 공사 생도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생도와 친구가 공사후배를 나에게 소개 해 준 것이다.

처음 만나는 날 나는 빨강 코트를 입고 종로의 고려당으로 나갔는데 곤색 정복에 망토를 입은 멋진 사관생도가 내 앞에 나타났다. 토요일이라 고려당은 만원이었고, 2층까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무작정 종로를 건다가 어느 다방(그때는 카페가 아니고 다방이었다)에 들어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공사 1학년 생도로서 나랑은 76학번으로 같은 동급생이었다. 그때부터 나에게겐 갑자기 사관생도 생활이 ‘혹’하고 들어 왔다.

#1 제한된 데이트

설레이던 대학교 1학년 시절이 꿈같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어 2학년이 되자 내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 둘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캠퍼스 커플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음대생들은 공대생이나 법대생들과 많이 사귀는 분위기였다. 음대가 법대, 공대와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보기엔 그 커플들의 경우는 매일 만나는 듯 했다. 그이와의 본격적인 데이트는 2학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생도생활 중 데이트 횟수를 생각해 보면 일반 대학생들 데이트 횟수의 한달치 정도나 될까?

주말에만 외출을 나오는 사관생도와 제한된 데이트를 이어가면서 일반대학생들과 다른 점

을 하나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다. 항상 모든 언행에 있어서 정직하고 당당하다는 것과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부 대학생들은 입시에서 해방되어 자유분방(自由奔放)하고 나태한 시간을 보내곤 하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아온 나로서는 사관생도의 절제된 생활태도가 경이롭게 보였다.

지금도 떠오르는 가장 생생한 기억은 “사관생도는 데이트 시 여성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오해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관생도가 데이트 시 여성과 손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걸을 때도 일정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 친구들은 사귀기 시작하면 손부터 잡던데…

‘못 잡게 되어있는 손’ 때문에 더 애뜻했던 것 같다.

“공군사관학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ㅎ”

#2. 금족(禁足)

“이번 주 금족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말에 그이를 만날 기대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외출금지란다. 사실 금족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게 된 것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처음에는 뭐 일본말인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금족이란 단어는 뭐가? 혼란스러웠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의 통신체계였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이다. 내 자취방에는 전화가 없었고 그이가 갑자기 금족령을 받으면 주인 집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바꾸어 줄 때의 그 위세는 대단했다.

전화를 자주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일반적인 통신방법은 편지였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면 꼭 편지가 왔다. 주말 데이트 계획이었다. 항상 이때쯤 편지가 오는 것은 나중에 듣고 알게 된 이야기지만 주말 데이트 다음날인 월요일에 부쳐도 그때 도착한다는 것이다.

편지는 군사우편이어서 우표가 필요 없단다. 그리고 보니 그때까지 나는 우표가 없는 편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그 어려운 주인집 전화를 통해 “이번 주 금족입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럼 면회는 되나요?”

면회가 되면 대방동 사관학교로 달려갔었다.

더 신기한 일도 있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금족령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외출나오기로 한, 토요일 점심식사 시간에 갑자기 금족 명령이 떨어진 때도 있었다. 조금만 더 일찍 금족 시켰어도 그 혼란은 없었을텐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금족령이



내리면 사관학교 내 공중전화 박스에는 긴 줄이 생긴다고 한다)

그 많은 사관생도들이 많은 약속과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너무 심했던 것 아닌가요?

#3. 하계훈련

여름이 되면 일반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계절이고 자유활동시간이 된다. 내가 본 생도들은 그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 무더운 한여름에 그동안 부족했던 각종 훈련을 떠난단다. 교내에서도 훈련이 있지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멀리 강원도 등 지방으로 가기도 한다. 훈련을 다녀와서 여름휴가를 나왔는데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나타났다. 애치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춘음을 아껴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관생도들을 보면서 숙연해지기도 하는 마음이었다.

#4. 삼사체전

10월이 되면 하늘색 바탕에 성무탑이 새겨진 초대장이 집으로 날아왔다. 삼사체전이 열린다는 소식이다. 삼사체전이 있다는 것은 지난 몇 주간 금족령이 떨어져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다.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하면 많은 인파들로 인산인해였고 운동장에는 각 군 군악대들이 연주하는 군가, 응원가들이 고막을 찢을 듯 크게 들린다.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운동장에 들어서면 큰북소리에 가슴이 쿵쿵거릴 정도였다.

생도들은 본부석 맞은편에 질서있게 정렬해 앉아 춤을 추고 마스게임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합성을 지른다. [공사·해사·육사]가 서로 소리를 크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합성을 올린다. 축구와 럭비경기가 있었는데 이기고 지고가 아주 중요해 보였다. 골이 들어가거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생도들이 그야말로 미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그 이를 찾았다. 응원석이라 누가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었음에도...

그 날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재빨리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동대문 운동장 옆 공터로 갔다. 응원단 생도들이 귀교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내려 올 때 잠시나마 멀리서 볼 수 있을까 해서이다. 그러나 생도들은 버스 안에서도 신나게 응원을 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처럼 그이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열정이 넘치는 생도들의 응원 소리에 벅찬 마음과 그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쓸쓸한 마음이 교차하였다.

#5. 성무제

생도들은 여름휴가가 막 끝나고 학교로 복귀하면 ‘국군의 날’ 행사와 ‘삼사체전’ 준비를 하

느라 정신이 없다가 잠시 한숨 돌리고 나면 그 동안 준비했던 과외활동 실력으로 성무제라는 축제를 연다. 생도생활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속에서 각종 과외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행사이다. 그 당시 나는 국악반 행사에 도움도 주고 전공하는 친구들을 소개하여 지도와 함께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때 성무제 국악공연에 함께 해주었던 친구가 서울 대학교수와 국립국악원장이 되었다. 그 날 같이 연주했던 생도들이 이 사실을 알까?

그 외에도 그림을 그리는 생도, 사진을 찍는 생도, 도자기를 굽는 생도, 시를 쓰는 생도, 붓글씨를 쓰는 생도, 활을 쏘는 생도 등등 참으로 많은 재주를 가진 생도들이 있었었고 멋진 작품이 많아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Landing

처음 남편으로부터 이 글을 써 볼 것을 제안 받았을 때 조금은 주저하였다. 왜냐하면 약간은 쑥스러운 생각과 “너무나도 오래전의 일들을 기억해 내는 것이 가능할까?” 해서였다. 하지만 글을 써 내려가면서 잠시나마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사관생도의 정직함, 성실성, 투철한 국가관 등으로 무장한 이를 나의 배우자로 택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나 또한 대학기간동안 옆에서 보고 배워왔던 ‘사관생도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대학시절에는 자유롭게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인내한 나도 참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1984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직을 마친다. 그이나 나나 시골에서 올라와 허튼 일에 허비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젠 두 손 잡고 산에도 다니고 생도 때처럼 데이트 하며 살고 싶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력을 일깨워준 공군사관학교에 감사한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를 키워주신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된것도 이 글을 쓰는 중요한 의미이다.

감사합니다!

공군사관학교!! ➡





공군스타가 낳은 뮤지컬계의 스타

뮤지컬 배우 **최재림** (25기 최미락 자제)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별★ 배우 최재림은 자랑스러운 공사 동문가족으로 최미락장군(공사25기, 소장)의 차남이다. 뮤지컬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배우로서 성무지 지면에서는 공군가족이고 공군 군악대 출신으로서 공군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배우 최재림은 2005년 1월 공군에 입대하여 2007년 4월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군악대 성악파트에 근무하였다. 병장 만기 전역 후에는 2009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 후 KBS 「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2015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2019년 아이다 등 50여 편의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드라마, 콘서트 등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2018 제6회 대한민국 예술 문화인상(뮤지컬 부문)

2019 제3회 한국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마틸다)

2022년 제6회 한국뮤지컬 어워즈 남우조연상(시카고)



Q 한국 뮤지컬계의 대세 배우 최재림씨를 공군사관학교 동문회잡지인 『성무지』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문회원과 독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필승! 예비역 공군 병장 최재림,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동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성원, 그리고 과분한 찬사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Q 공군 가족이며 또 공군군악대 출신으로서 공군에 대한 생각 또는 공군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투기의 굉음과 진동을 매일 느끼면서 수원과 오산, 청주 비행장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아버지께서 근무하던 공군본부가 위치한 계



룡사에서 다녔으니 공군은 저에게 마치 고향처럼 든든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나아가 공군에서 군악병으로 근무하며 체득한 모든 경험이 오늘날 제가 뮤지컬 배우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은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나라의 방패이자 항상 신사다움을 갖춘 멋있는 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병 621기)뿐만 아니라 형(예비역 중위, 학사 119기)과 큰아버지(예비역 중사, 병 93기)가 공군 출신이니 저희 집안은 영원한 공군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Q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여 공군군악대 시절에 중창단 활동을 했는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는지요?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군악대 시절 후임병으로 뮤지컬 배우가 한 명 입대하였습니다. 같은 내무반에서 그와 함께 지내며 음악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뮤지컬이란 장르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뮤지컬을 꼭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 ‘렌트’ 오디션 마지막 날 참가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 공군군악대 시절에는 어떤 임무를 주로 수행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 주시지요.

저는 공군본부 군악대에서 중창단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국군의 날 등 군의 중요 행사 때 군악 연주, 매년 공군 정기연주회, 제주도 및 울릉도 등 벽지 시민들을 위로하는 군악 연주회, 각급 부대창설 기념일 장병 위문 연주회 등에서 군가와 동서양의 가곡을 부르며 장병과 시민들의 흥과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현장에 함께 계셨던 행사 같네요. 한번은 10전투비행단 창설기념 위문 행사 때 제가 무대 안과 밖을 오가며 분주하게 공연하였는데 현직 비행단장인 아버지와 군악병인 나의 관계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경우는 공군본부 송년 위로연 행사에서 여흥으로 아버지와 듀엣으로 ‘베싸메우초’(아버지의 애창곡)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긴장하신 아버지가 박자를 못 맞춰서 반주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 한 적이 있었어요. 하하하~

Q 과거 공군군악대 간부들은 “(당시 최재림 병사가) 공군중창단에서 본인 전공인 성악은 물론이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장르와 춤 그리고 연기까지 소화해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스로 마다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 이었고 행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평소 음악적 센스(재치)가 남달랐던 최재림 병사가 공연을 위한 안무를 스스로 개발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다. 현재 당시 군대생활을 회고하며 현재의 후배들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다고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했던 중창단 병사들 전부 각자 주어진 임무를 100%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선임병들이 그동안 쌓아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새로 들어온 후임병들의 아이디어와 관객분들의 요구(니즈)에 맞추어 중창단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그 수준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후임병으로 뮤지컬 배우가 들어와서 그 친구를 필두로 모두가 진지하게 안무와 노래를 연습하였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짜집기하여 공연을 만들어갔습니다.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임무를 수행하든 의무복무하는 병에겐 군 생활이란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규율, 무리 안에서 개인의 특성을 지우고 집단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갈수록 개인의 생활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후배들에게 군 생활이 더 힘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말은, 어차피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그 안에서의 경험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든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하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에서 배운 기술이건, 자기 규율이건, 혹은 임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규칙이건 간에 철저히 익히고 갈고 닦아서 제대 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Q 공군에서 행사 할때는 어떤 곡을 주로 공연을 하셨는지요? Louis Armstrong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를 남성중창단의 중저음과 파워 있는 목소리로 공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 그 외에 곡목은? 레퍼토리가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중창단 막내였을 때는 아카펠라 위주의 레퍼토리를 많이 연주하였습니다. 국제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타국의 명곡들도 많이 습득하였고요. 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점차 정적인 무대보다는 동적인 무대 위주로 레퍼토리가 변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Saints go marching in'부터 뮤지컬 'West side story'의 수록곡인 'America, tonight' 등의 뮤지컬 곡들을 추가하며 다양하게 공연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공군에서는 부모초청행사라는 장병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복무중인 병사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대 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대 임무와 운영 등을 소개하는 등의 행사였는데, 당시 최재림병사의 아버지는 제10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재직 중이셨는데 부대와 선·후임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만 초대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언급을 해주시니 언뜻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마 짙





어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당시 군악대장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부대에 찾아 오게 되면 전 부대가 긴장하기 마련이니까요. 아버지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부대 부모초청행사에 참석을 안 하는 게 서로 편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후에 넉넉하게 사주신 치킨을 들고 내무반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맛있게 먹던 일도 생각나는군요.

Q 당시 공군군악대에서 함께 공연했던 전우들도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보컬 병으로 활동했던 후임 병사 중에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신동화)>이 있고, 마크툼의 'Marry me'를 커버하여 인터넷을 한창 달군 <구윤회>가 있습니다. 둘 다 실력로나 인격적으로나 활발하고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Q 병장이 된 최재림 병사는 중창단의 이끄는 리더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명실상부하게 공군군악대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공군군악대 생활이 혹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면이었을까요?

앞서 후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데, 어찌 되었건 저는 현재 무대에서 뮤지컬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의 경험이 웬만한 고난은 충분히 이겨내는 힘을 주었다고 생각되고, 군악대 생활을 하며 수없이 공연한 행사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주눅 들지 않고 자신 있게 무대에 익숙한 것이 제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태어난 곳이 수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 최미락장군께서 위관장교시절 전투조종사로서 수원비행단에 근무하실 때 그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지요? 폭음도 우렁찬 전투기소리를 자장이 삼아서 잠이 들곤 한 것 때문에 목소리의 성량이 풍부해진 것은 아닐까요?(ㅎ)

네, 맞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기 때 잠들면 아무리 전투기 폭음이 우렁차도 중간에 좀체 잠을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비행장에 방문하여 아버지가 전투기에 오르시는 걸 직접 보기도 하였고, 드넓은 활주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성량에 대해서는, 하하, 글썬요? 어릴 때 한번 울면 동네가 떠나가도록 우렁찼다는 말도 들었고, 워낙 장난꾸러기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때를 쓰느라 소리를 많이 질러서 성량이 커진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동기회 동정

❖❖ 5기 신성회

신성회는 매주 목요일 산행 행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호국의 달 6월 현충일 전날 순직 및 작고 동기생 추모행사를 현충원 공군장교 17묘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 7기 칠성회

지난 6월 6일 현충일 전 참모총장 한주석 장군을 비롯하여 7기 동기생들은 현충원 충훈당 참배행사를 하였다.

❖❖ 10기 십철회

십철회 산우회 회원 12명은 매주 산행 모임 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여 '20년도부터 공사 총동창회에 장학사업이 시행되면서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21년 12월 6일 2차로 100만 원을 추가 기부하였다.



❖❖❖ 17기 봉우회

- '21. 12. 23. 전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동기가 17대 성우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국방컨벤션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이한호 회장은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성우회는 정관에 명시된대로 국가보위와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결의를 선도하기위해 연구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뜻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지난 5월11일 송대성 동기는 한미연합회(AKUS, America Korea united society) 창설준비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한미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양국의 번영과 평화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2020년 12월 뉴욕지부를 창설을 시작으로 14개 지역을 창설하였으며, 내년 5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연합회를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 봉우회는 양평에서 물고기를 잡는 천렵 행사를 시작으로 12년 째 초복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초복은 북한산 등산 후 오리와 닭백숙을 안주삼아 막거리를 나누면서 전우애를 다졌다. 우리 동기생은 2011년 공사총동창회 운영기수를 기점으로 하여 바둑, 골프, 등산을 매월 1~2회 실시하면서 동기애를 다지고 있다.



☺☺ 28기 애채회

동호회 활동

■ 애채 등산동호회 (회원 33명)

등산동호회는 지난 2005년 결성되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하고 그간 서울 근교산은 거의 섭렵했고, 가끔 원거리 원정 등산도 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궁 해설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종화 동기의 안내로 수도권 소재 조선왕릉 탐방도 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양주소재 불곡산과 서울 내곡동소재 현인릉, 입교 46주년과 메추리 관악산 돌파를 기념하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둘레길을 탐방하였다.



■ 애채 골프동호회 (회원 28명)

골프동호회는 매월 2회의 라운딩을 통해 동기간의 친목과 건강유지 활동을 하고 있다.



■ 애채 자전거 동호회

(회원 11명)

자전거동호회는 가장 늦게 출범하였으나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주로 한강주변에서 주말라이딩을 즐기고 있으며 작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전국종주를 위해 정서진에서 낙동강하구까지 한강~낙동강 종주를 진행중에 있다.



동기생 동정

- 윤 우 : 항공우주력연구원 원장 취임 ('22.4.1.)
- 김주연 : (사)성무안보연구소 연구소장 취임 ('21.7.1.~'22.6.30)
- 홍순협 : 2022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 및 청주서예대전 대상 입상

❖❖❖ 29기 회조회

회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연말행사를 금년 10월말 1박 2일로 강마루 콘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 30기 창로회

지난 9월 6일 강구영 동기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초 KAI 내부행사로 취임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태풍의 피해가 예상되어 별도의 행사없이 취임하였으며, 공군출신 KAI 사장의 염원이 강구영 동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반가운 인사이다.



❖❖❖ 33기 비호회

김동욱 동문이 '21년 10월 12일 강원지방 병무총장에 취임하였다.



48기 회두리

48기 동기회는 5월 가족의 달을 기념하여 순직한 동기생들 유가족(총 3가족 8명)에게 격려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당초 가족들을 모두 초대하려 했으나 불참한 2가족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었고, 임원진 서동우, 이태승 동기와 이무강 동기가 지난 5월 대구에서 박정수 동기생 가족들(미망인 임00, 자녀 박00)을 초대하여 정수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과 가족들의 생활 전반적인 이야기꽃을 피우며 든든하게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48기 동기생들의 안부를 전달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동기회는 매년 1회씩 유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든든하게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박정수 동기생 가족들에게 48기 동기생들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은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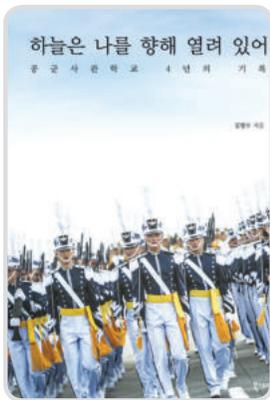
박정수 동기생은 기억하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 48기 동기생 임동
드림 -



69기 난새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김범수 중위(학생조종사)가 지난 5월 25일 신간도서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_공군사관학교 4년의 기록'(북스토리)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성무대에 첫 걸음을 내딛은 순간부터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졸업한 순간까지, 4년간 김 중위가 산 경험과 품은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동문 본인의 생도생활을 떠올린다면, 옛 생도대의 향수와 달라진 생도대의 문화에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지난 4월 1일 KT-1 훈련기 공중충돌사고로 순직한 두 동기생, 故 정종혁 대위와 故 차재영 대위를 기리며, 초판 인쇄 수익금 전액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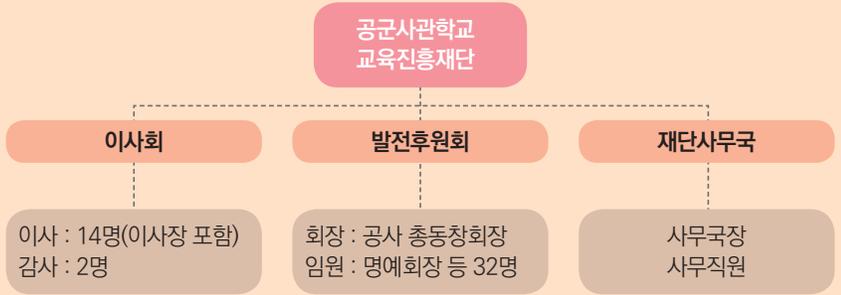


교육진흥재단

- **재단 명칭** :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1996. 06. 재단설립(충청북도교육청 허가 제12-376)]

- **설립 목적** : 공군사관학교 생도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진흥사업에 기여함
- **조직 편성**



■ 발전기금 기부 및 집행 현황

(21. 12. 31. 기준)

| 발전기금 기부현황 (출연자별) | | | 발전기금 집행현황(누적현황) | | |
|------------------|----------|---|----------------------|---|----------|
| 구 분 | 금액 (억 원) | 비 고 | 구 분 | 세 부 내 용 | 금액 (억 원) |
| 기업 및 단체 | 5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삼성테크윈 • 삼양화학공업(주) • 부영(주) 등 96개 단체 | 생도 국내·외 견문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항법훈련 • 안보·문화·역사유적지 견학 (한민족 역사탐방) • 외국 사관학교 방문(5 ~ 12개국) | 32.4 |
| | | | 생도 학술·문화·체육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대회출전(축구, 드론 등) 및 성무제 지원 • 공사를 빛낸 생도 격려 • 교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등 (모의 UN대회 등) • 생도강의 초빙 강사료 | 68 |
| 동문 | 4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동문 1,738여 명 68개 단체 (동기회 등) | 지정 기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석 군사학연구 기금 • 로스트웍스 항공학술 기금 | 4.1 |
| 학부모 및 후원자 | 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후원자 등 546여 명 | 교수/생도 학술연구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국외 학술교류 및 세미나 | 0.8 |
| | | | 생도대 생활관,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휴게실 리모델링 • 생도대 명예광장 전광판 교체 • 생활관 냉장고, 의류건조기 교체 • 생도대 테니스장 펜스 교체 | 2.8 |
| 합계 | 103.8 | 총 2,284여 명 158개 단체 | 합계 | - | 46.9 |

■ 교육진흥재단 안내

-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afaf.or.kr>
- ▶ 출연 문의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무국 (전화) 043-290-6123

2022학년도 제75기 공군사관생도 모집요강

■ 모집정원 : 235명

| 계 | 남자 (199명 내외) | | 여자 (36명 내외) | |
|------|--------------|---------|-------------|--------|
|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 235명 | 70명 내외 | 129명 내외 | 16명 내외 | 20명 내외 |

■ 전형일정

| 구분 | | 일정 | 비고 |
|---------------|----------------|---|------------------|
| 원서 접수 | | 6. 17.(금) 09:00 ~ 6. 27.(월) 18:00 | 11일간(인터넷 접수) |
| 1차시험 | 시험일 | 7. 30.(토) | 전국 16개 시험장 |
| | 성적확인 및 지원확정/포기 | 8. 5.(금) 09:00 ~ 8. 9.(화) 12:00 | 원서접수 사이트 |
| | 합격자 발표 | 8. 16.(화) 09: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 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 | | 8. 16.(화) ~ 8. 18.(금) | 1차시험 합격자 대상 |
| AI 면접 | | 8. 16.(화) ~ 8. 28.(일) | 개별 실시 원칙 |
|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 1차 | 8. 23.(화) 09:00 * 등록서류 제출 : 8. 23.(화) ~ 25.(목)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 | 2차 | 8. 30.(화) 09:00 * 등록서류 제출 : 8. 30.(화) ~ 9. 1.(목) | |
| 2차시험 | | 8. 29.(월) ~ 10. 14.(금) | 개인별 1박 2일 소요 |
|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 11. 11.(금) 09: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 종합선발 합격자 발표 | | 12. 16.(금) 09:00 | |
| 종합선발 추가합격자 발표 | 1차 | 12. 23.(금) 09:00 | |
| | 2차 | 12. 30.(금) 09:00 | |

■ 입시문의

- 입시 관련 자료는 공군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 홈페이지 : www.afa.ac.kr → 입학안내
 - ▶ 입시 자료 신청 가능(우편 발송) : 공사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입시 자료 신청
- 입시상담은 전화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 ▶ 전화번호 : 043-290-5504, 043-290-6067
 - ▶ 홈페이지 : www.afa.ac.kr → 입학안내 → 입시전형 Q&A
- 공군사관학교(평가관리실)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우편주소 :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호
 - ▶ 팩스번호 : 043-290-6068



총동창회·연구소 알림

>> 총동창회 운영 현황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10,507명
- 현재 인원 : 9,594명
- 예비역 인원 : 5,352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2021. 12. 31 기준

| 구분 | 수입 | 지출 | 비고 |
|--------|---------------|------------|--------------------|
| 인수 기금 | 1,187,589,394 | | 27차년도 |
| 28차 증식 | | | |
| 회비 | 8,000,000 | 3,000,000 | 법인설립 준비금 |
| 예금 이자 | 12,049,756 | 12,049,756 | 장학기금 이관 |
| 적립 총액 | 1,207,639,150 | 15,049,756 | 잔액 : 1,192,589,394 |

성무 장학기금 현황

2021. 12. 31 기준

| 구분 | 수입 | 지출 | 비고 |
|----------|-------------|------------|-----------------|
| 인수 기금 | 40,400,000 | | 27차년도 |
| 28차 증식 | | | |
| 모금 | 51,250,000 | | |
| 예금 이자 | 12,049,756 | | |
| 장학기금 지급액 | | 18,700,000 | 총 20명 지급 |
| 적립 총액 | 103,699,756 | 18,700,000 | 잔액 : 84,999,756 |

2021년 주요 추진사업

1. 69기 졸업 축하 및 격려 간담회 : 최용덕상 수여
2. 졸업 및 임관기념 행사 : 18, 28, 38, 48, 58기
3. (사)성무안보연구소 창립 총회('21.4.16.) 및 안보세미나 개최('21.11.25)
4. 성무 장학금 전달



5.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 : 청운보육원 후원
 - 미연고 영아 첫돌잔치 ('20.12.1.)
 - 김장 담그기 봉사 ('21.11.16.)
6. 성무지(50호) 발간 ('21.7.)
7. 순조회 초청행사(12.4) : 공군전우회 공동주관 오찬 및 전회원 선물 증정

제29차연도 총동창회 운영 임원

- 회장 : 박재복
- 감사 : 권오봉, 김광수
- 부회장 : 김정식(선임), 김정근, 김철우, 남응우, 이일수, 한봉규, 김용환, 배정기, 백용호, 이병일, 조병호, 남승우, 구자병, 이경남, 조봉현, 한봉완, 김규진, 강명흥, 오한두, 이두희, 정덕용, 이동우, 노종호, 윤한두, 이인섭, 홍재욱, 김순노, 김경환, 박장경, 안준기, 이규연, 진호영, 김만수, 김홍온, 이남건, 하광호, 김덕중, 강명근, 박종민, 양철환, 홍완표
- 사무총장 : 이경달
- 후원 : 공사 29기 사관 일동



>> 평생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국민은행 485501-01-34342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평생 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기금으로써,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 당 20만 원입니다.

납입하신 회비는 총동창회 연간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기금의 연간 이자는 성무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금은 은행에 계속 적립하여 향후 총동창회관 등의 건립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납 회원들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현황

평생회비 완납기수 1~35기, 57기, 59기, 61기, 63기, 65기, 70기

29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1. 07. 01~'22. 09. 30

| 기수 | 현재 인원 | 납부 인원 | 미납 인원 | 납부자 명단 |
|----|-------|-------|-------|--|
| 36 | 256 | 90 | 166 | 김규용, 김기봉, 김기원, 김남근, 김대현, 김동균, 김영태, 김익현, 김일기, 김재영, 김재홍, 김정일, 김현주, 김현영, 문경진, 박상욱, 박종록, 백현영, 서광열, 신옥철, 신중익, 안덕신, 안재건, 양경모, 오춘연, 유재섭, 이경근, 이경혁, 이명희, 이민선, 이병석, 이상무, 이상탁, 이승춘, 이영재, 이용원, 이재성, 이태순, 임우섭, 장일기, 장한식, 장홍석, 전상윤, 정금수, 정석운, 정하봉, 정호진, 조영관, 조준학, 주재관, 최남수, 최윤규, 한신구, 황용연 |
| 37 | 255 | 91 | 164 | |
| 38 | 231 | 77 | 154 | |
| 39 | 220 | 18 | 202 | |
| 40 | 241 | 23 | 218 | |
| 41 | 238 | 18 | 220 | |

| | | | | | | | | | | | | | | |
|----|--------------|-----|-----|--|----|-----|--------------|-----|--|--|--|--|--|--|
| 42 | 275 | 29 | 246 | | | | | | | | | | | |
| 43 | 271 | 27 | 244 | | | | | | | | | | | |
| 44 | 221 | 25 | 196 | 곽병창, 김봉성 | | | | | | | | | | |
| 45 | 220 | 21 | 199 | | | | | | | | | | | |
| 46 | 226 | 4 | 222 | | 47 | 201 | 6 | 115 | | | | | | |
| 48 | 192 | 109 | 83 | 서동우, 김준경, 신상훈, 채현철 | | | | | | | | | | |
| 49 | 200 | 4 | 196 | 이승민 | 50 | 193 | 4 | 189 | | | | | | |
| 51 | 203 | 2 | 201 | | | | | | | | | | | |
| 52 | 202 | 5 | 217 | | | | | | | | | | | |
| 53 | 211 | 4 | 207 | | | | | | | | | | | |
| 54 | 192 | 0 | 192 | | 55 | 186 | 2 | 184 | | | | | | |
| 56 | 155 | 1 | 154 | | 57 | 157 | 157 | 0 | | | | | | |
| 58 | 134 | 0 | 134 | | 60 | 148 | 1 | 147 | | | | | | |
| 62 | 145 | 0 | 145 | | 64 | 160 | 50 | 110 | | | | | | |
| 66 | 137 | 0 | 137 | | 67 | 148 | 0 | 148 | | | | | | |
| 68 | 158 | 0 | 158 | | 69 | 167 | 0 | 167 | | | | | | |
| 70 | 178 | 178 | 0 | 강 건, 고병훈, 고준석, 고희준, 공재욱, 곽선호, 구본준, 권도환, 권해윤, 길만재, 김건희, 김관우, 김기열, 김기혁, 김나연, 김나우, 김동화, 김명환, 김민서, 김민욱, 김민형, 김민호, 김범수, 김병현, 김상민, 김새봄, 김서연, 김성민, 김성수, 김성종, 김수연, 김수영, 김승우, 김영준, 김유안, 김의준, 김이범, 김재동, 김주형, 김지훈, 김진원, 김태건, 김태주, 김한결, 김현범, 김현오, 김현대, 김형윤, 남재영, 노내영, 노수환, 노준호, 노태윤, 노해찬, 노형준, 모예진, 문 령, 문지훈, 민경식, 민병민, 박건희, 박경국, 박관우, 박동연, 박민호, 박선욱, 박성근, 박성민, 박시훈, 박영규, 박영후, 박재하, 박종훈, 박주성, 박준서, 박준수, 박준현, 박지원, 박지훈, 박찬정, 박희웅, 백상우, 사범진, 서수연, 서준원, 성태현, 손민욱, 송인표, 신윤하, 신재준, 신준호, 안상규, 양원규, 양재모, 양태권, 양희국, 오경식, 오바다, 오완성, 오초열, 우인범, 우제오, 유주원, 윤도경, 윤상웅, 윤석준, 윤성진, 윤형석, 이거창, 이기훈, 이도연, 이동민, 이민재, 이민재, 이상지, 이세화, 이승영, 이승준, 이영주, 이원준, 이재선, 이재원, 이재준, 이재형, 이재희, 이정민, 이정훈, 이종원, 이주영, 이주한, 이준태, 이준혁, 이찬희, 이창주, 이태오, 이태호, 이현우, 이현준, 이혜린, 임서윤, 임성수, 임재연, 임지관, 임한나, 장인표, 장재희, 장지욱, 장지웅, 장현승, 정대권, 정상민, 정성원, 정성훈, 정우진, 정지수, 정진기, 정진호, 정대상, 정태훈, 조만휘, 조성래, 조원영, 조창현, 주현진, 최대한, 최상현, 최 선, 최우혁, 최윤원, 최제원, 최중욱, 최중혁, 최태현, 최형락, 하동균, 한민호, 홍석경, 홍재홍 | | | | | | | | | | |
| 합 | 현재인원 : 9,878 | | | 납부인원 : 4,806 | | | 미납인원 : 5,072 | | | | | | | |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 ('12. 7. 27.) 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무 장학사업 안내

목 적 회원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부모님 추모 및 성무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학업에 전념 지원

대 상 공사 총동창회 회원 자녀 (초, 중, 고, 대학생) ※ 공본 '하늘사랑 장학재단' 수혜자 제외

금 액 대학생(200만 원), 고등학생(100만 원), 중학생(70만 원), 초등학생(50만 원)

기금 적립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후원금 (평생회비 기금 이자 및 사업비 잔액)
- 성무지 발간 광고비 중 제비용을 제한 잔액
- 동문 개인 및 기업 등 단체에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기부금 등

성무 장학금 신청 방법

- 관련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afaaa.or.kr) > 성무장학기금
- 보낼 곳
 - 우편 :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태성관 3층 공사총동창회
 - 이메일 : 04airfa@hanmail.net (추후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각 기생회장/총무는 해당인원 여부 파악 및 안내 요망

각 기수별 성무 장학기금 기탁 하신 분

(개인 : 130명, 단체 : 6, 총계 : 6,450만원)

| 기수 | 인원 | 성명 (금액) |
|----|----|----------|
| 1 | | |
| 2 | 1 | 박재성(100) |
| 3 | 1 | 백낙승(100) |
| 4 | | |
| 5 | | |
| 6 | | |
| 7 | 1 | 한주석(100) |
| 8 | | |
| 9 | | |
| 10 | | |
| 11 | 1 | 이광학(100) |

| |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2 | 김덕훈(100), 김주식(10) |
| 16 | 3 | 김익래(100), 김희동(20), 임정빈(10) |
| 17 | 5 | 강희간(10), 고영섭(30), 김익창(10), 이문호(10), 이한호(100) |
| 18 | | |
| 19 | 2 | 민주동(20), 정성진(20) |
| 20 | 5 | 김성일(100), 김정기(30), 손준영(30), 이재명(100), 한광성(30) |
| 21 | 5 | 배민섭(10), 배창식(30), 신문식(30), 유근국(10), 이광영(30) |
| 22 | 5 | 김은기(80), 민형기(10), 오원용(20), 이영하(20), 정 양(20) |
| 23 | 4 | 이계훈(50), 류연도(10), 이정욱(20), 장창연(10) |
| 24 | 6 | 김득환(50), 이준우(20), 임호순(30), 최재희(30), 최종용(30), 황원동(30) |
| 25 | 15 | 김용전(10), 김찬환(30), 김홍진(30), 류홍규(10), 손명환(10), 송명진(20), 윤상주(10), 윤학수(20), 이귀형(10), 이성재(50), 임종호(20), 장희태(20), 최미락(10), 하왕규(10), 이승규(100) |
| 26 | 6 | 권영한(20), 박기순(20), 배충영(50), 송길수(10), 오중기(30), 하대용(20) |
| 27 | 4 | 김수은(10), 백흥종(50), 이희명(20), 황태익(50) |
| 28 | 14 | 강영철(5), 김도호(100), 김주언(30), 김학수(20), 안재모(30), 유길형(24), 윤 우(20), 이상욱(10), 이석원(30), 임종춘(20), 지윤규(10), 최병주(30), 최차규(50), 홍성표(40) |
| 29 | 14 | 김철우(30), 남승우(30), 박성기(30), 박재복(50), 서부종(30), 안준기(30), 양철환(150), 이경달(40), 조병호(100), 조평현(50), 차종환(50), 최용준(50), 한봉완(50), 문병규(30) |
| 30 | 7 | 강구영(50), 김광희(50), 이용곤(3), 정경두(160), 최영훈(20), 심인태(65), 조보근(60) |
| 31 | 3 | 고종봉(21), 박양기(100), 이왕근(50) |
| 32 | 3 | 남동우(20), 박승룡(10), 허창희(40) |
| 33 | 4 | 박광필(10), 이병권(10), 정영철(10), 최현국(30) |
| 34 | | |
| 35 | | |
| 36 | 2 | 박영준(10), 박문덕(30) |
| 37 | 1 | 정장용(20) |
| 38 | 2 | 김정한(30), 최재혁(30) |
| 39 | 1 | 김재권(3) |
| 40 | 1 | 오제정(10) |
| 41 | | |
| 42 | 2 | 김태우(7), 백도석(25) |
| 43 | 1 | 정재식(10) |
| 44 | 3 | 고준기(24), 곽병창(10), 최영호(10) |
| 45 | 1 | 이형섭(10) |
| 46 | 3 | 고휘석(40), 서정민(10), 한천희(10) |
| 단체 | 6 | 6기 동기회(200), 10기 산우회(200), 23기 동기회(200), 24기 동기회(1,000), 록히드마틴(300), 미서부지회(30) |

'21년 하반기 성무 장학금 지급현황

● 수혜 명단 및 지급액 (총 16명, 1,070만 원)

단위 : 만 원

| 기수 | 고인 | 학생명(학년) | 총 지급액 |
|----|-----|---------------------------|-------|
| 42 | 이재근 | 이준영(고2), 이준우(중2), 이서영(중2) | 240 |
| 44 | 박준범 | 박지원(고3), 박소연(고2) | 200 |
| 46 | 김상민 | 김민재(중1), 김민영(초5) | 120 |
| 47 | 김부찬 | 김미르(중2), 김우주(초6) | 120 |
| | 안우진 | 안규연(초6) | 50 |
| 48 | 유홍 | 유태웅(중2), 유도윤(초6) | 120 |
| 52 | 민병철 | 민지운(초5), 민지예(초5) | 100 |
| | 오승현 | 오재성(중3), 오재서(초6) | 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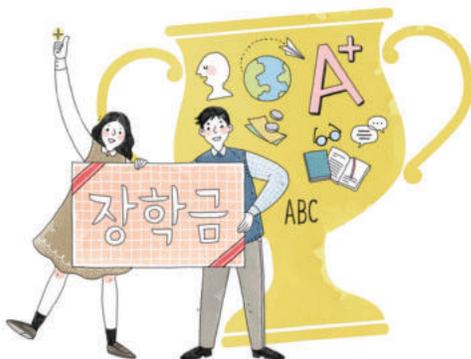
※ 대학생 4명 전반기 지급

'22년 성무 장학금 지급현황

● 수혜 명단 및 지급액 (총 20명, 1,780만원)

단위 : 만 원

| 기수 | 고인 | 학생명(학년) | 총 지급액 |
|----|-----|------------------------------------|-------|
| 42 | 이재근 | 이연서(대4), 이준영(고3), 이준우(중3), 이서영(중3) | 440 |
| | 최병국 | 최민준(대3) | 200 |
| 44 | 박준범 | 박소연(고3) | 100 |
| | 이승신 | 이서연(대1) | 200 |
| 46 | 김상민 | 김민재(중2), 김민영(초6) | 120 |
| 47 | 김부찬 | 김미르(중3), 김우주(중1) | 140 |
| | 안우진 | 안규연(중1) | 70 |
| 48 | 고종진 | 고윤서(초6), 고건(초3) | 100 |
| | 유홍 | 유태웅(중3), 유도윤(중1) | 140 |
| 52 | 민병철 | 민지운(초6), 민지예(초6) | 100 |
| | 오승현 | 오재성(고1), 오재서(중1) | 170 |



성무 장학기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9902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편집집 후기

누가 “진통의 꽃은 아름답다” 라고 했나?

아이를 가진 산모는 늘 걱정이라고 한다.

“태어날 아기가 일그러진 데는 없을까?” “발가락은 모두 있을까?”

“예쁘게 생겼을까?” 아기가 옥동자(玉童子)는 아니어도 그저 건강한 정상아였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annual magazine 「성무」 51호 편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금년 5월부터 겪어온 과정은 산모의 마음과 같았다. 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편집위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발간 계획을 수립한 후 편집 방향을 잡고 원고 청탁과 수집, 교정 등 일련의 과정을 겪은 것이 산모의 진통과 같았으리라. 이제 산달(産月)이 모두 차서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진통의 꽃이 아름답기를 내심 기대해 본다.

그간 편집 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성무지 50호 편집의 know how를 가르쳐 주신 박병구 선배와 김주연 선배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수집과 원고 작성, 사진 등을 10여 차례나 제공해 준 공군본부와 공사 공보정훈실 관계자, 역사 관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성무지 51호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해 주신 29차 총동창회 편집위원과 행정업무를 챙겨준 총동창회 이경달 사무총장과 설민진 실장, 그리고 대한기획 인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원고 청탁에 기꺼이 응해주신 모든 필자 여러분과 훌륭한 뮤지컬 배우 최재림을 키우시고 성무지에 인터뷰 기사로 출연시켜 주신 최미락 선배입니다.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지만 순산을 바라는 산모의 마음으로 「성무 51호」의 탄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鎮>



기고 안내

공사 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필, 여행기, 체험기, 취미활동 그리고 회원들과 나누거나 전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 등 다양한 글들을 보내 주십시오.

제52호 성무지 원고는 2023년 7월 마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2. 10. 31

발행인 박재복

편집인 김규진, 강명흥, 김순노, 오한두, 위진호, 이두희, 이명길, 정덕용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 소 (우)069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연락처 02-823-1091

이메일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www.kafaaa.or.kr, www.srins.re.kr

편집·제작 대한기획인쇄 02-754-0765

고객의 물류를 책임지는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

국내 전지역 물류 Network를 보유
one stop 화물관리 services



- 항공/해상 수출입 화물운송 서비스
Export and import cargo trucking services

- 창고 보관 서비스
Warehouse services

- 수출 포장 서비스
Export packing services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Container Loading and Unloading

- 환적화물 서비스
Trans Shipment Services



CEO 한동석

- 공군사관학교 졸업(31기)
- 현 (주)백마종합물류 대표이사

 **BML** 백마종합물류(주)
Baeg Ma Logistics

C-130J가 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부여된 임무는 한국의 풍경만큼이나 다양하고 막중합니다.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태백산과 소백산을 거쳐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C-130J는 임무수행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전략적 및 전술적인 임무수행, 다양성 및 신뢰성을 갖춘, 수십번을 시도하고 시험한, 검증되고 준비된 항공기입니다. C-130J는 전 세계가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ockheedmartin.com을 확인 바랍니다.

Lockheed Martin. Your Mission is Ours.®



**FLYING
TOGETHER.**



F-15K 슬램 이글은 지난 15년 이상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 진화할 위협에 대응한 최신 센서와 시스템 및 생존성 제품군을 통해 F-15K의 뛰어난 운용 성능과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잉은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평화 유지와 필승의 기반이 되는 합리적인 비용의 고성능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BOEING**